보험동향 2012년 가을호

ǀ 총괄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ǀ 경제금융 동향	경제총괄	전용식 (연구위원)
	세계경제	이정환 (선임연구원)
	국내경제	채원영 (연구원)
	금융경제	이경아 (연구원)
ǀ 국내보험시장 동향	보험총괄	전용식 (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세중 (선임연구원)
	손해보험	최　원 (선임연구원)
		이혜은 (연구원)
ǀ 해외보험시장 동향	미　국	김세중 (선임연구원)
	영　국	이정환 (선임연구원)
	일　본	박정희 (선임연구원)
	중　국	이소양 (연구원)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 목차

Ⅰ. 테마진단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의미와 시사점 / 1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정책과 연준의 QE3: 의미와 시사점 / 24

Ⅱ.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49
2. 국내경제 / 69
3. 금융경제 / 79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 85
2. 생명보험 / 90
3. 손해보험 / 111

Ⅳ. 해외보험시장 동향

1. 미국 동향 / 137
2. 영국 동향 / 144
3. 일본 동향 / 152
4. 중국 동향 / 159

Ⅴ.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 170

Ⅵ. 통계표 / 183

Ⅰ. 테마진단

◆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의미와 시사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1. 검토배경

■ 최근 국제 3대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 S&P, 그리고 피치는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을 각각 한 단계씩 상향조정하였음.

○ 지난 8월 27일 무디스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상향조정 이후 S&P 및 피치도 싱글 “A+”에서 더블 “AA-”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음.

■ 금번 등급 상향조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추세 속에서 상향된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음(〈표 1〉 신용평가사별 · 국별 신용등급 분포 참조).

○ 신용평가등급체계는 신용평가사별로 상이한 등급기호를 갖고 있으나 크게 투자적격등급(investment grade)과 투기등급(speculative grade)으로 분류됨.

○ 투자 적격 등급(investment grade)은 “BBB-”(무디스 사는 “Baa3”) 이상을 갖는 등급을, 투기등급은 “BB+”(“Ba1”) 이하에 해당되는 등급을 각각 의미함.

〈표 1〉 신용평가사별 · 국별 신용등급 분포

구분	등급	Moody's	S&P	Fitch
투자등급	AAA(Aaa)*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싱가폴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폴, 홍콩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싱가폴
	AA+(Aa1)	홍콩(+)	미국(-), 프랑스(-)	홍콩
	AA(Aa2)		벨기에(-)	벨기에(-)
	AA-(Aa3)	한국, 사우디, 중국(+), 대만, 벨기에(-), 칠레, 일본	한국, 사우디,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사우디
	A+(A1)		칠레(+)	
	A(A2)			
	A-(A3)	남아공(-),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이태리(-), 말레이시아
	BBB+(Baa1)	러시아, 멕시코, 태국	이태리(-), 남아공(-), 아일랜드(-), 태국, 스페인(-)	남아공(-), 아일랜드(-)
	BBB(Baa2)	브라질(+), 이태리(-)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스페인(-),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태국
	BBB-(Baa3)	인도, 인도네시아, 스페인(-)	인도(-)	인도(-), 인도네시아
투기등급	BB+(Ba1)	터키(+),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터키, 필리핀
	BB(Ba2)	필리핀(+)	터키, 포르투갈(-)	
	BB-(Ba3)	포르투갈(-)	베트남	
	B+(B1)	베트남(-)		베트남, 이집트(-)
	B(B2)	이집트(-)	이집트(-),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B_(B3)	아르헨티나		
	CCC+(Caa1)			
	CCC(Caa2)		그리스(-)	그리스
	CCC-(Caa3)			
	CC(Ca)			
	SD***(C)	그리스		

주: * 괄호 안 등급은 무디스 기준, ** 국가 뒤 (-) 부정적 등급전망, (+) 긍정적 등급전망, *** SD: 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자료: 기획재정부(2012. 8)

■ 본고에서는 국가신용등급의 의미와 특징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함.

○ 먼저 국제 신용 평가회사들이 국가 신용평가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에 관해 살펴보고 신용등급의 일반적 특징을 기술하고자 함.

○ 다음으로 이러한 신용평가 분석체계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이 의미하는 바와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국가신용등급의 평가방법론 및 특징

가.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의 의미

■ 국가 신용등급이란 신용평가회사가 한 국가가 발행한 채권(bond)의 채무불이행 위험(default risk)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국가별로 순위를 매겨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을 말함.[1)]

○ 국채신용등급은 정부가 발행한 채무증서를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직면한 신용위험(credit risk)을 반영함.

○ 국가신용등급은 채권발행국의 경제, 금융, 사회 및 정치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동 국가의 신용상태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의견을 반영함.

○ 국가신용등급은 자국통화 또는 외화통화표시로 정부발행채권의 신용상태를 국별로 비교하여 점수화함.

- 자국통화 표시 국채에 대한 신용평가는 적기에 채권보유자에게 채무상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및 의지를 반영함.
- 외화표시 국채의 신용평가는 외채상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외환보유액(foreign exchange)을 가용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 및 의지를 반영함.

○ 최근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2)]

■ 민간 경제주체자와 달리 정부의 채무불이행은 채무상환능력(Ability to repay)보다는 채무상환의지(Willingness to repay)에 의해 결정됨.

---

1) 이하에서는 단기채권 보다는 장기채권의 신용평가과정에 살펴보고자 함.

2) Cantor Richard and Packer Frank(1995)참조.

○ 일반적으로 민간 경제주체자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하여 채무불이행을 어쩔 수 없이 선언함.

○ 이와는 달리 정부는 채무상환을 위해 조세징수권 및 통화발행권이라는 주권(sovereignty)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

- 예컨대, 해외통화표시 국가채무가 채무불이행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은 제한된 권한(limited authority)을 갖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없음.

○ 정부는 채무상환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재량에 의해 채무상환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수 있음.

○ 정부는 채무상환에 따른 제반 비용(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비용)이 상환거부에 따른 제반비용보다 큰 경우에 채무상환을 거부함.

■ 따라서 국가신용등급 결정 시 정부의 상환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정부의 대응조치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은 상이한 신용등급사건으로 인식함.

○ 자국통화의 대외가치가 대규모 평가절하되는 경우(대외충격) 정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함.

- (1)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경우 또는

(2)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지 않지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shock-absorbing capacity)이 떨어지는 경우(예컨대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대외부채의 대내 상환부담이 증가되는 경우) 또는

(3) 정부의 신용상태에 전혀 변함이 없는 경우(환율평가절하로 경상수지가 개선되어 자본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첫 번째 사건은 신용등급변화의 사유가 되고 두 번째 사건은 신용등급변화는 아니지만 신용등급 하향압력사유가 되고 세 번째 사건은 신용등급의 조정사유가 되지 않음.

■ 특히 외화표시 국채의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그 국가의 대외채무포지션(external position)이 중요한 역할을 함.

○ 외화차입비중이 높은 신흥국들에서 발생하는 국제수지 위기는 과거에는 외화표시 대외 채무불이행(외채위기)에 의해 유발되었으나 최근에는 금융자유화와 통화의 태환성 증대로 이러한 관계는 약화되는 경향임.

○ 대신 신흥국들의 최근 위기는 신뢰위기(confidence crisis)가 발생하여 급작스러운 자본 유출을 초래하여 외환위기로 연결되는 경향임.

- 외환위기는 외채상환부담가중과 외환보유액의 고갈로 정부의 대외 신용상태를 악화 시킴.

○ 따라서 한 국가의 대외 포지션상태가 대외 신용위험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임.

나. 국가신용등급의 평가 방법론: S&P사의 접근방법[3)]

■ 국가 신용등급방법론은 크게 등급산출체계, 외화통화표시 국가 신용등급 결정요인 분석, 국내 통화표시 국가 신용등급 결정방식으로 구성됨.

○ 신용등급의 전반적 산출체계는 정부채권의 채무불이행의 과거사례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분석을 기초로 마련됨.

-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예상치 못한 사건(전쟁, 정치적 불안정, 교역조건 악화 등) 발생에 대한 정책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 못한 경우에 국가채무 불이행이 발생함.
- 대내외적 충격 발생 시 대응할만한 재정 및 통화정책의 여력이 없거나 또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정책실행이 불가능한 경우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급속 악화됨.
- 이는 채무상환부담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정부는 정책수단의 하나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여파로 상당 수 국가들, 특히 유로화지역 회원국들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됨.

- 유로 주변부 회원국들은 외부차입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성장둔화 및 자금조달여건 악화에 직면하면서 국채자금조달비용이 급등하였음.

---

3) 국가신용등급 평가방법과 구성요인에 관한 논의는 Standard & Poor's사 보고서(2008 & 2011)를 주로 참조하였는데 이는 Moody's 사의 국가 신용등급 평가방법론(2006 & 2012)과 유사하기 때문임.

■ 국가 신용등급은 신용등급의 결정요인, 점수화, 신용등급부여의 단계로 산출함(〈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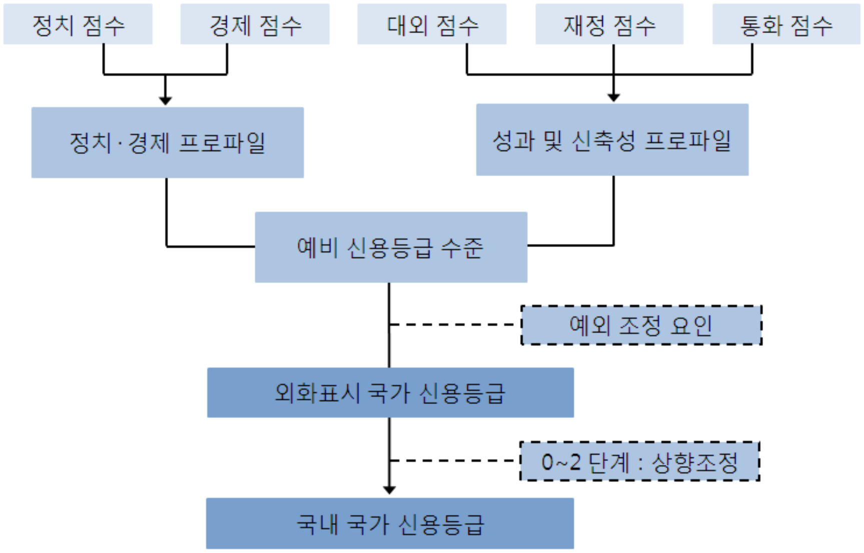
○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정치부문, 경제부문, 대외부문, 재정부문, 통화부문 요인으로 분류됨.

○ 각 부문에 각각 일정한 점수를 부과하되 각 요인별 점수체계는 최우수에는 "1", 최불량에는 "6" 점수로 구성함.

○ 마지막 단계로 예비적 신용등급표(indicative sovereign rating levels)를 산출되며 이를 토대로 예외조정요인을 감안하여 외국 통화표시 신용등급이 결정되며 여기에 국내통화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국내통화표시 신용등급이 최종적으로 산출됨(〈그림 1〉 하단부분 참조).

- 국내 통화표시 국가신용등급 = 해외 통화표시 국가신용등급 + 상향조정(1~2단계)요인
- 국내통화표시 국가채무발행의 특수성은 국가는 한 국가 내에서 조세징수권과 통화 발행권을 갖고 있어 언제든지 동 수단을 통해 대내 국가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1〉 국가 신용등급 결정체계



다. 국가신용등급의 특징

■ 지금까지 국가신용등급 평가방법론에 관해 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서는 국가들의 경제구조와 신용등급과의 관계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을 기술하고자 함.

○ 거시경제와 국가 신용등급과의 관계

○ 재정부문의 성과와 국가 신용등급과의 관계

○ 통화정책성과와 국가 신용등급과의 관계

○ 대외 국가채무와 국가 신용등급과의 관계

1) 거시경제와 국가 신용등급과의 관계

■ 첫째, 국가 신용등급은 국민소득수준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그림 2〉 참조).

○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의 신용등급은 "AAA"으로 수렴하는 경향임.

- 50,000불(2008년 중앙값기준)인 국가의 신용등급은 "AAA"에 속하고 20,000불 이상 40,000불 이하인 국가의 신용등급은 "AA"에 해당함.

○ 국가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의 경제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민소득수준이 낮거나, 금융시장의 발달이 미미하거나, 소득불균형이 왜곡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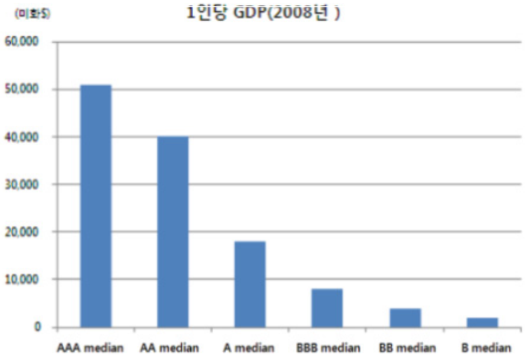
■ 한편 중간수준의 신용등급("BBB")을 갖는 국가들은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패턴임(〈그림 3〉 참조).

○ 고도의 경제성장을 보인 중국이 이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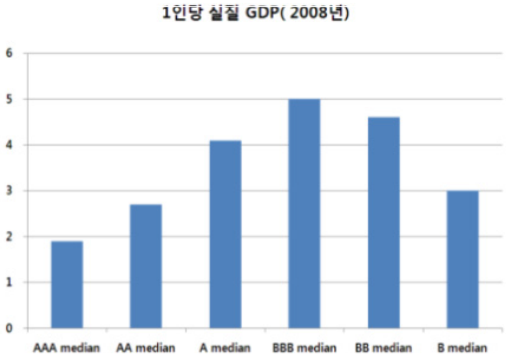
○ "AA" 이상의 신용등급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지 않음.

○ 신용등급이 낮은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 경제성장의 변동성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음.

〈그림 2〉 국민소득과 신용등급



〈그림 3〉 경제성장률과 신용등급



자료: standard & poor's 2008

2) 재정부문의 성과와 국가 신용등급과의 관계

■ 신용등급이 투기등급(speculative grade)에 속하는 국가일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수준임(〈그림 4~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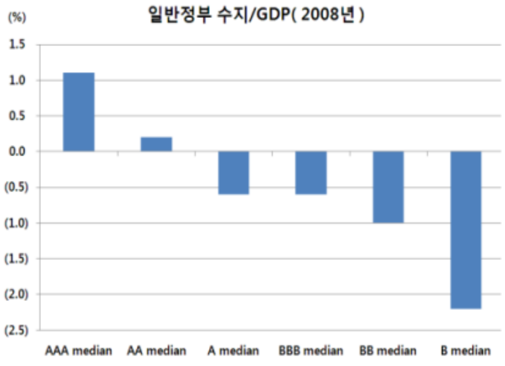
○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이 높거나 또는 국가채무변화가 높은 국가일수록 낮은 신용등급임(〈그림 4&5〉 참조).

- 설령 정부재정적자비율이 높지 않더라도 준재정(quasi-fiscal)활동, 재정투명성의 결여, 정부수익창출능력의 한계, 차입능력 제한 등으로 재정적 신축성(fiscal flexibility)이 낮은 국가일수록 투기등급에 속함.

○ 특이한 점은 “AA” 신용등급을 갖는 국가가 가장 낮은(GDP 대비) 순 채무비율을 보이고 있음(〈그림 6〉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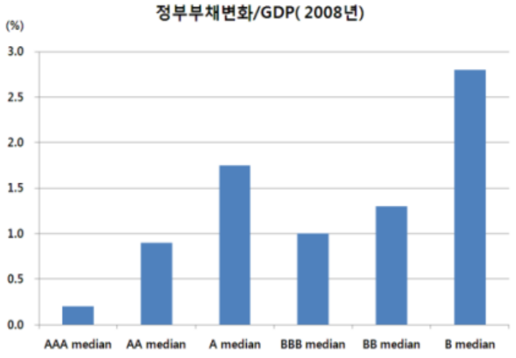
- 이는 “AA”에 속한 아랍권의 석유수출국들의 재정건전성개선에서 비롯됨(최근 원유가 상승지속으로 재정흑자지속).

〈그림 4〉 재정수지와 신용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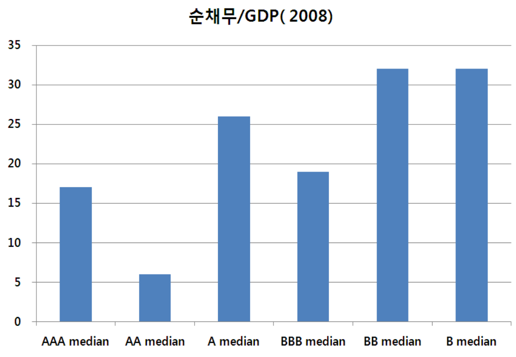
자료: standard & poor's 2008

〈그림 5〉 정부채무변화와 신용등급



자료: standard & poor's 2008

〈그림 6〉 순 채무와 신용등급



3) 통화정책성과와 국가 신용등급과의 관계

■ 통화적 요인 중의 하나인 물가수준이 높을수록 국가신용등급은 낮음(〈그림 7〉 참조).

○ "AAA" 신용등급을 갖는 국가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2% 내외, "AA" 신용등급을 갖는 국가는 3% 내외의 물가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인플레이션은 농산물 및 원유 등 상품가격 급등과 재정압력에 기인함.

- 최근 들어 대내적 요인보다는 대외적 요인과 글로벌 유동성이 인플레이션 발생요인으로 작용하고 통화관리의 신축성이 보다 중요해짐.

4) 대외 국가채무와 국가 신용등급과의 관계

■ 대외부문의 주요 결정요인인 CAR 대비 경상수지비율은 국가신용등급과 정(+)의 상관관계임(〈그림 8〉 참조).

○ 대외 유동성 주요 측정지표인 CAR 대비 경상수지비율은 대외 유동성의 주요 측정지표로 사용됨.

- CAR는 경수계정의 수입(CAR: Current Account Receipts)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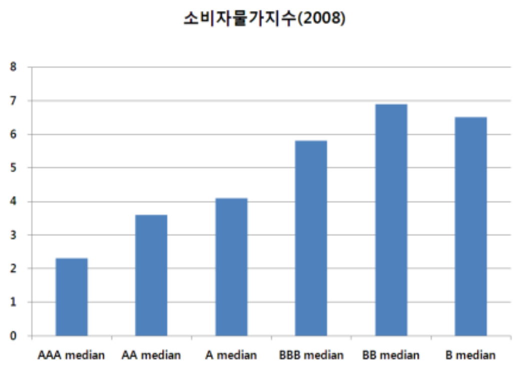
○ "AA" 신용등급을 갖는 국가의 경상수지비율이 가장 양호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랍권의 석유수출국의 경상흑자기조에 기인함.

○ 이를 제외하고는 선진국들은 경상계정의 수입대비 2% 내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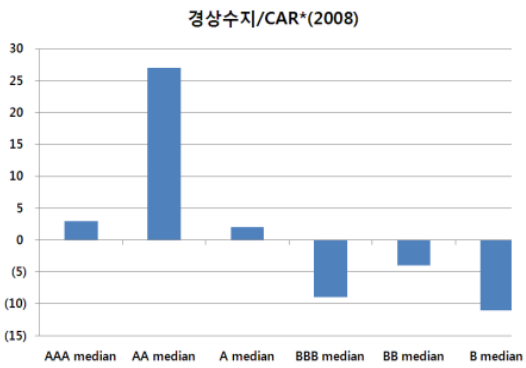
○ 대외유동성의 다른 지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 CAR 대비 경상수지 비율지표와 동일한 예측력을 보유함.

- 대외 유동성 지표 = (경상계정지출 + 단기 외채) / (CAR + 외환보유액)

〈그림 7〉 물가와 신용등급



〈그림 8〉 경상수지와 신용등급



■ 순 대외채무비율이 낮을수록 국가신용등급은 높은 경향임(〈그림 9〉 참조).

○ 순 대외채무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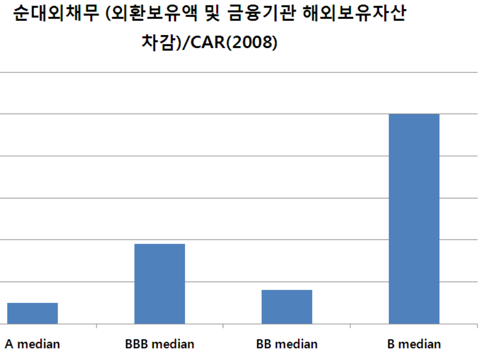
- 순 대외채무비율 = 순 대외부채 / CAR

순 대외채무 = 거주자의 대외부채 - (외환보유액 + 거주자의 대외자산)

○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대외채무가 자국통화로 표시되어 있어 대외부채 상환부담은 낮은 편임.

○ 그러나 기축통화를 보유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들의 대외채무는 해외통화로 표시되어 있어 대외채무비율이 높을수록 신용등급은 낮은 편임.

〈그림 9〉 대외채무와 신용등급



라. 국가신용등급의 한계점

■ 그러나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채무위기의 예측력과 국가신용등급과 국채 스프레드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측면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음.

○ 국가신용등급이 채무위기의 예측력이 표준화된 거시경제변수를 갖는 단순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하지 못하다는 실증적 분석이 있음.

-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1977년 이후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53개국들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국가신용 등급에 의한 위기예측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4)]

○ 현재 국가채무부담은 미래채무를 예측하는데 좋은 지표가 아닌 예로 EU 주변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최근 들어 갑자기 급등함.

- 따라서 현재 높은 국가채무비율은 채무불이행을 예측하는데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임.

4) Matthieu, B etc.(2012) 참조.

■ 먼저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신인도등급(country rating)개념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채권발행에 신용등급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위험을 평가함.

○ 한편 국가신인도등급은 한 국가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제반 위험(정치적 위험, 환위험, 경제적 위험, 국가채무불이행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신용등급보다 포괄적임.

3.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의 의미와 특징

■ 위에서 논한 국가신용등급방법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AA-")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음.

○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AA"에서 "정치 및 경제 프로파일"의 점수는 최대 '3'(준 우수에 해당) 이하이거나 "신축성 및 성과 프로파일"의 측면에서 최대 '3.8~4.2'(우수에 해당)점수에 속함.

- 정치적 점수: 적어도 현재까지는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균형된 경제성장정책을 유지하여왔으나 향후 저출산 및 노령화 추세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중장기적 재정과제 등으로 현 재정정책기조가 변화될 가능성(〈부록 표 1〉 참조)이 있음.
- 경제적 점수: 동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000~$250,000('3'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중간 값)에 해당되므로 당분간 이 수준에 상당기간 동안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부록 표 2〉 참조).
- 대외부문 점수: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국으로 분류된 국가로 대외채무를 순 대외채무비율로 측정될 때 최소 점수 '2'에 해당(순 대외채무비율이 50~100%)되나 개선될 여지가 있음(〈부록 표 3〉 참조).
- 재정 점수: 재정건전성 지속으로 인한 재정성과나 재정신축성측면에서 '1' 또는 '2' 점수에 해당되어 상향조정의 주요 요인이라 판단함(〈부록 표 1~3〉 참조).
- 통화점수: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도의 시행, 통화정책의 독립성, 국채시장과 금융시장의 발달로 '2' 또는 '3'의 점수에 해당함(〈부록 표 6〉 참조).

■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된 근거로 건전한 재정기초여건, 경제복원력 및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대외충격으로부터 대외채무의 취약 개선과 지정학적 위험 불변에 기인함.

○ 건전한 기초재정여건에 힘입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대내외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함.

- 더블 A 신용등급을 보유한 국가들 가운데 정부재정지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경제복원력을 강화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회피와 빠른 회복세(2010년)를 시현함.

■ 그러나 국가신용등급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음.

○ 첫째, 발행자에 대한 신용(issuer credit)에 관한 평가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 신인도(country rating)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2. 다. 국가신용등급의 한계점〉 참조).

- 국가신용등급은 국가가 채권발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위험을 측정하는 반면 국가신인도는 외국투자자가 국내투자 시 직면하게 되는 제반위험을 포함하고 있어 훨씬 포괄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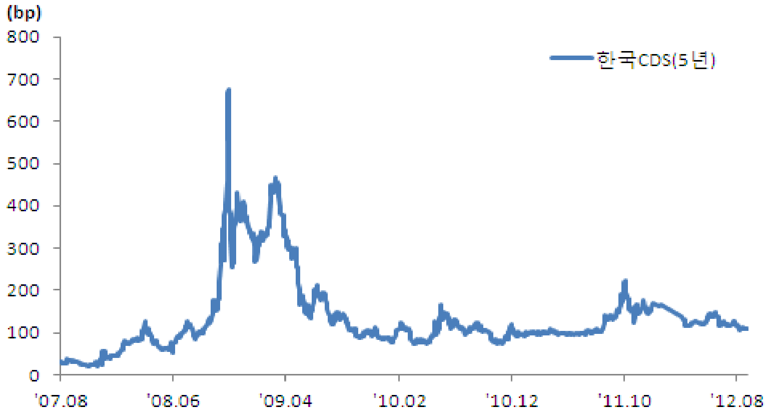
○ 둘째, 국가신용등급은 시장참여자의 정부신용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미래지향적(forwarding looking) 정보를 반영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다분히 후행적임(〈그림 2〉 참조).

- 우리나라 5년물 국채 신용부도스왑이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반영함.

○ 셋째,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은 기존 우량 신용등급국가 달리 변동성이 크다는 사실을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음.

- 97년 외환위기 이전에도 "AA" 유지하였으나 97년 외환위기 당시 투기등급인 "B+"로 급락한 적이 있는데 이는 최근 그리스가 "AA"의 신용등급에서 선택적 채무불이행등급인 "C" 등을 경험한 유로주변국 사례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임.

〈그림 10〉 우리나라 정부 신용부도스왑(CDS) 가격추이



자료: Bloomberg

4. 요약 및 시사점

■ 지금까지 국가신용등급의 의미와 특징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첫째, 국가신용등급은 분명 호재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신용등급이 결정되는 방식과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가신용등급은 발행자에 대한 신용(issuer credit)에 관한 평가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보다 포괄적인 발행국에 대한 투자등급(country rating)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임.

○ 셋째, 자국통화표시 국가신용등급은 외화표시 신용등급에 비해 한두 단계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부가 한 국가 내에서 조세징수권 및 통화발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임.

○ 넷째, 국가신용등급은 시장참여자의 정부신용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미래지향적(forwarding looking) 정보를 반영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다분히 후행적임.

■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됨.

○ 첫째,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은 정부의 신용평가개선이지 국가등급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둘째,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정부재정건전성유지와 외환보유액의 확대에 기인함.

○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은 기존 우량 신용등급국가 달리 변동성이 크다는 사실임.

■ 한편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정부를 비롯해 민간회사(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의 해외자금조달금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신용등급 격상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신용등급도 상향조정됨을 의미로 해외 채권 발행 시 조달금리가 하락하여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함.

○ 또한 국가신용등급이 높아지면 CDS프리미엄이 낮아져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자금 조달 비용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더불어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 따라서 국가신용등급의 유지와 상향조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거시안정정책, 구조개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방만한 예산집행과 공기업 및 가계부채급증으로 정부 우발채무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가계부채 1000조 원, 공기업 부채가 390조 원에 이르고 향후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정부의 지출증가확대와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 측면에서 재정개혁이 단행될 필요가 있음.

○ 추가적인 국가신용등급상승을 위해서는 자유변동환율제도와 원화의 완전태환성 도입도 고려해볼 필요[5]가 있음.

- 우리나라는 IMF 환율제도분류에 의하면 자유 변동환율제(free-floating exchange rate regime)가 아닌 변동환율제(floating)를 채택하고 있음.
- 자유변동환율제도란 외환시장개입이 예외적이고 일정기간 동안한 개입횟수가 외부적으로 식별가능하고 제한적인 환율제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동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 변동환율제로 분류함.

---

5) 환율제도에 대해서는 〈부록 표 5-1〉 통화부문 점수에서 1) 환율제도 참조 바람.

- 원화의 완전태환성이란 비거주자가 원화를 자유롭게 차입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현재 원화된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이 일정한 한도로 제한되어 있음.

〈참 고 문 헌〉

기획재정부(2012. 8. 27), 『Moody's의 국가신용등급 사상 최고등급 "Aa3"부여』, 보도자료.

Bulow, Jeremy, and Rogoff, Kenneth.(1989), A Constant Recontracting Model of Sovereign Deb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97, No.1.

Bussiere, Matthieu, and Risstiniemi Annukka.(2012), Credit Ratings and Debt.

Cantor Richard and Packer Frank(1995. 6), Sovereign Credit Ratings, Current Issues in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Moody's Investors Service(2006), A Guide to Moody's Sovereign Ratings.

Moody's Investors Service(2012), Moody's Sovereign Rating Methodology, Presented at the Moody's-NYU Credit Conference.

Standard & Poor's(2008), Criteria: Sovereign Credit Ratings: A Primer, RatingsDirect.

Standard & Poor's(2011), Sovereign Government Rating Methodology And Assumptions, Global Credit Portal.

부 록

S&P's사의 각 부문별 점수 평가

〈부록 표 1〉 정치부문 점수 평가

점수	주요 요인: 정책입안 및 정치제도의 실효성, 안정성, 예측가능성	부수적 요인: 정치제도의 투명성 및 책임성
1	• 전향적 정책입안: 위기관리 및 경제성장 실적 • 제도 및 정책의 안정성: 미래 위기 발생에 대한 대응의 예측가능성 제고	• 광범위한 상호견제기능 • 계약집행의 공정성 및 법 준수 •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2	• 지속가능한 재정 및 균형성장 정책의 단기 • 개혁실행능력 미비 • 정치환경변화의 불확실성	• 실효적 상호견제기능 • 재정자료 및 통계의 시기적절성
3	• 중장기 재정개혁의 불확실성	• 상호견제기능의 형성과정 • 정책결정의 부분적 공개 • 통계정보공개의 지연

점수	주요 요인	부수적 요인
4	• 지속가능 재정 및 균형 경제성장에 저해 정책 선택 • 향후 정책대응 예측가능성 감소	• 상호견제기능의 불확실성 • 투명성 취약: 정치간섭에 의한 정보공개 미비
5	지속가능 재정상태 유지 및 채무상환 능력 및 의지를 약화시키는 정책 선택 • 정치제도의 불안정성 • 정책대응의 예측불허	• 계약집행의 불확실성 • 투명성 결여: 부패, 자료 갭, 정보제한
6	• 정치제도의 취약성 • 정치제도의 붕괴가능성	• 계약실행의 불확실성 및 법준수 미비 • 투명성 결여: 자료 갭, 자료수정의 빈번성, 국가채무통계 통제

〈부록 표 2〉 경제부문 점수 평가

1인당 GDP($)	35,000 이상	25,000~ 35,000	15,000~ 25,000	5,000~ 15,000	1,000~ 5,000	1,000불 이하
초기 점수	1	2	3	4	5	6

긍정적 조정요인	부정적 조정요인
• 통화의 대외가치가 저평가 된 경우 • 동일 그룹 내에서 평균 이상의 경제성장 (1인당 실질 GDP) 예) '2'점수그룹에서 1.5% 이상 성장 '3'과 '4' 그룹에서 4% 이상 성장 '5'와 '6' 그룹에서 6% 이상 성장	• 통화 대외가치가 평가절상 • 동일그룹에서 평균 이하 성장 • 경제성장동인이 대내신용팽창과 자산인플레이션인 경우 • 경제력이 집중되거나 변동성이 큰 산업에 노출된 경우(특정 산업의 부가가치 〉 GDP의 20%)
경제 부문 점수 = 초기점수 + 조정가능 점수(최대 2단계 조정가능)	

〈부록 표 3〉 대외부문(external sector) 점수 평가

		글로벌 기축통화 발행국가	국제 통화거래 국가	기타: 대외 유동성 측정			
				총 대외 필요 자금 / (경상계정 수입 + 가용외환보유액)			
				50% 이하	50 ~100% 이하	100 ~150%	150% 이상
대외 채무: (협의의 순외채) /CAR	−50% 이하	1	1	1	1	1	2
	−50~0%	1	1	1	1	2	3
	0~50%	1	1	1	2	3	4
	50~100%	2	2	2	3	4	5
	100~150%	2	3	3	4	5	5
	150~200%	3	4	4	5	5	6
	200% 이상	3	4	5	6	6	6

긍정적 조정 요인	부정적 조정 요인
• 보수적 대외포지션: 순 국제투자포지션 〉 순 대외채무 + CAR • 경상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는 통화를 가진 국가	• 대외 자금조달 여건 악화위험에 처한 국가 • 교역조건변동성이 높은 국가: 10% 이상의 표준편차 • 대외채무가 낮지만 채무제약조건에 처한 국가 • 국제통화를 갖고 있으나 지속적 경상적자 (CAR의 10%) 또는 고 단기외채(CAR의 100% 이상)에 처한 국가
대외부문 점수 = 초기점수 + 조정가능 점수(최대 2단계 조정가능)	

〈부록 표 4-1〉 재정부문 점수: 재정성과 및 신축성

<table>
<tr><th>정부채무변화
/GDP(%)</th><th>0 이하</th><th>0~3%</th><th>2~4%</th><th>3~5%</th><th>4~7%</th><th>6%</th></tr>
<tr><td>초기점수</td><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r>
<tr><th colspan="3">긍정적 조정요인</th><th colspan="4">부정적 조정요인</th></tr>
<tr><td colspan="3">• 유동성 자산보유비중(〉GDP대비 25%)인 정부
• 단기적으로 정부수입 또는 정부지출삭감 능력(〉 GDP 대비 3%)
정성적 평가:
- 정부정책 및 과거실적
- 헌법, 정치, 행정상 장애요인
- 정치/경제적 합의</td><td colspan="4">• 단기적으로 정부수입창출능력 제한
- 지하경제의 발달, 조세징수 취약
• 인프라제공 및 기본서비스 부족
- 교육, 의료, 생계수준 등
- 연령관련 지출(노인 복지) 압력

• 총 채무 40% 이상이 외화 및 잔여만기 3년 이내로 표시된 경우
• 비거주자가 정부채무의 60% 이상 보유한 경우
• 채무상환프로파일의 변화가 큰 경우
• 은행대차대조의 상당부분이 국채로 구성된 경우 (20% 이상)
• 지속불가능하거나 변동성이 큰 정부수입(GDP 대비 25% 이상이 부동산 또는 재화에 노출된 경우)</td></tr>
<tr><td colspan="7">재정 성과 및 신축성 점수 = 초기점수 + 조정 가능 점수(최대 2단계 조정가능)</td></tr>
</table>

〈부록 표 4-2〉 재정부문 점수: 채무상환부담

		채무수준 GDP대비 순국가채무 비율(%)				
	정부수익대비 이자비용	30% 이하	30~ 60%	60 ~80%	80 ~100%	100% 이상
채무상환비용	5% 이하	1	2	3	4	5
	5~10%	2	3	4	5	6
	10~15%	3	4	5	6	6
	15% 이상	4	3	4	5	6

긍정적 조정요인	부정적 조정요인
• 향후 2~3년 이내 정부의 자금상환계획이 공적 조달로 이루어질 경우, 순 채무국의 채무점수는 초기점수 보다 1단계 상향조정	다음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점수는 초기점수에 비해 1단계 하향조정 • 총채무의 40% 이상이 외화표시 또는 3 년 미만의 만기 • 비거주자가 국가채무의 60% 이상을 보유한 경우 • 부채상환조건이 빈번히 조정되는 경우 • 은행 자산 중 20% 이상 국채로 구성된 경우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에 대한 부정적 조정요인
• 정부 우발채무는 하향조정 단계 대상 우발채무규모가 소, 중, 대(moderate, high, very high)에 따라 1단계, 2단계, 3단계 이상 하향조정 가능
채무상환부담 점수 = 초기 점수 + 조정가능점수* 조정가능점수: 긍정적인 조정요인의 경우 최대 1단계 상향조정, 부정적인 조정요인의 경우 최대 3단계 하향조정

〈부록 표 4-3〉 재정부문 점수: 우발채무

우발채무 범위	평가방식: 다음 요인의 합계 1. 금융부문: 스트레스 시나리오 시 금융위기의 예상 비용 2. 비금융공기업: 잠재적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 추정 3. 보증, 준예산(off-budget) 및 우발채무 묵시적 보증, 추가 경정예산 등
미미(limited)	GDP 대비 30% 미만
소(Moderate)	GDP 대비 30~60%
중(High)	GDP 대비 60~80%
대(Very High)	GDP 대비 80% 이상

〈부록 표 5-1〉 통화부문 점수

초기점수	1	2	3	4	5
1) 환율제도					
환율제도 구분	자유변동 환율제	변동환율제	관리변동 환율제: 외환시장개입, 자본유출입 우려	고정환율제	currency board
2) 통화정책의 신뢰성					
중앙은행의 운영상 독립 및 통화정책의 목적	• 장기적(10년 이상)독립성 유지 • 통화정책목표의 명료성 • 통화정책수단의 다양화	• 독립성유지 • 시장 기반형 정책 수단	• 독립성제한 • 지급준비율 중심의 통화 정책	• 독립성 불확실 • 통화정책의 실효성 의문 (위기 시)	• 독립성 훼손: 정치적 간섭 • 통화파급경로 실효성 의문
3) 금융시스템을 통한 통화파급경로의 실효성					
대내 고정금리 발행 국채시장구조	• 만기: 20년 이상 • 금리결정방식: 시장결정 • 유통시장: 높은 유동성	• 만기: 10년 이상 • 금리결정방식: 시장결정 • 유통시장: 높은 유동성	• 만기: 5~10년 이상 • 국채 절반 이상 은행 및 공공기간 보유 • 위기 시 만기 단기화현상	• 만기: 5년 이하 • 국채 절반 이상 은행 및 공공기간 보유 • 위기 시 만기 단기화	• 만기: 5년 이하 • 국채 대부분 은행 및 중앙은행 보유 • 고정금리 채권규모 제한적
자국통화표시 자산	GDP대비 100% 이상	80~100%	60~80%	40~60%	40% 미만
시장가치	GDP대비 75% 이상	50~75%	25~50%	10~25%	10% 미만

〈부록 표 5-2〉 통화부문 점수: 초기 점수 조정

통화부문 초기 점수에 대한 부정적 조정요인: '1'~'5'
• 1단계(one category) 하락조정요인 - 5년 간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디플레이션): 과거, 현재, 향후 3년 - 외화표시 예금 및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 dollarization - 국가가 통화통합 회원인 경우: 유로화 회원국 - 자국통화의 완전태환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 • 2단계(two categories) 하락조정요인 - 통화통합회원국으로 물가수준 및 임금수준이 회원국 평균대비 괴리도가 큰 경우 - 평균 물가 10~15%인 경우 통화점수 '4' 평균 물가 15~20%인 경우 통화점수 '5'
통화적 조정요인: '6'
• 일방적 고정환율제 • dollarization비율 통화대비 75% 이상인 경우 • 평균 인플레이션 20%초과

〈부록 표 6〉 대내 통화표시 국가신용등급 조정: 해외통화표시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단계	요인
2단계 상향조정	• 자율변동환율제 및 통화국제화 그리고 독립적 통화정책 유지 • 국내통화표시 고정수익증권 및 단기금융 시장의 발달 시가(market capitalization) 〉 GDP 대비 25% • 정치점수 또는 재정점수가 다른 점수평균보다 1점 이상 높지 않아야 함
1단계 상향조정	• 관리변동환율제라 하더라도 자율변동환율제를 지향하는 환율제 • 국내통화표시 고정수익증권 및 단기금융 시장의 발달 시가(market capitalization) 〉 GDP 대비 10% • 재정점수가 다른 점수평균 보다 1점 이상 높지 않아야 함

◆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정책과 연준의 QE3: 의미와 시사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전성주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유럽경제는 침체를 보이고 있으며, 이의 여파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미국경제도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경기부양이 절실하나 유럽과 미국의 경우 재정여력이 부족하여 통화정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정책금리가 0%에 가깝기 때문에 전통적인 통화정책보다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1])이 불가피한 상황임.

○ 유럽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긴축목표 달성에 치중해야 함.

○ 미국은 재정절벽(Fiscal Cliff)[2])에 직면해 있음.

■ ECB(European Central Bank)와 연준(Federal Reserve Board, FRB)은 각각 국채매입프로그램(SMP: Securities Market Programme)과 1, 2차 양적완화(Quantity Easing, QE1, QE2) 정책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왔는데, 최근 들어서도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함.

○ ECB는 2012년 9월 6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국채(만기 1~3년)에 대해 무제한 매입 정책을 결정함.

- 이는 2010년 5월부터 시작하여 2012년 2월에 중단된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보다 강화된 통화정책임.

---

1) 정책금리가 0%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단기국채와 통화가 완전대체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단기국채를 매입하는 전통적인 공개시장조작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중앙은행은 외환, 장기국채, 민간의 유가증권 등 위험자산을 매입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필요함(Bernanke 2003, 서병한 2007).

2) 현재 법률로 정해진 재정감축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말까지 이에 대한 의회의 수정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재정지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의미함.

- ECB는 무제한 매입한 국채가 디폴트될 경우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선순위권도 포기하였음.

○ 연준도 2012년 9월 13일 연방공개시장회의(FOMC)에서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부증권(MBS)을 사들이는 한편 초저금리 기조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3차 양적완화 정책(QE3)을 실시하기로 발표함.

- 연준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 단기국채 매도 및 장기국채 매입)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 말까지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장기채권을 매입하게 됨.
-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부증권을 계속해서 매입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힘.
- 또한 재정절벽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요구함.

○ 한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상시적인 통화정책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짐.

■ 재정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부양이 여의치 않다는 점과 ECB와 연준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제도(중앙은행제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장기화는 암묵적으로 물가상승을 용인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ECB와 연준의 대차대조표 위험(Balance Sheet Risk)[3]도 높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높이려는 시도로 추측됨.

○ 그러나 재정지출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아 경기부양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며,[4] 더욱이 연준과 ECB가 매입한 위험자산으로부터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 때문에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와 통화가치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3) 자산과 부채 구성이 Mismatch되어 금리 또는 환율 등 거시변수의 변화에 의해 중앙은행의 적자가 발생할 위험임.

4) 연준 내부에서도 QE3에 대해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인 찰스 플로서는 QE3가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함.

■ 또한 향후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더라도 대차대조표 위험으로 인해 연준과 ECB는 자산가치 하락을 염려하여 적기에 정책금리를 충분히 인상하지 못하게[5]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장기화는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본고는 연준과 ECB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의미를 유럽 및 미국의 경제상황, 중앙은행제도 및 대차대조표 위험과 연결하여 살펴보고 향후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함.

2. 중앙은행제도: 연준 및 ECB

가. 중앙은행제도와 대차대조표 위험

■ Bretton Wood 체제 붕괴 이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부채인 통화는 법정통화/불태환통화(Fiat Money)로서 동 가치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자산(경우에 따라서는 자본금 포함)에 의해 뒷받침됨.

○ 금본위제하에서는 중앙은행이 부채인 통화를 발행하는 대신 자산으로 금을 보유하기 때문에 통화가치가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금의 가치와 연동됨.

○ 금본위제가 아닌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자산을 보유하는가에 따라 법정통화에 대한 신뢰성이 달라짐.

- 단기국채를 보유할 경우 정부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대차대조표 위험이 없으나, 다른 위험자산을 보유할 경우 신용위험과 금리위험, 환위험 등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위험이 존재함.
- 대차대조표 위험이 현실화되어 자산가치가 발행한 부채인 통화가치를 하회하게 될 경우 물가가 상승하는 한편, 중앙은행의 신뢰가 저하됨.

---

5)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장기국채, 외환 및 민간부분의 위험자산을 매입했어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 수지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됨(Cargill 2001, Bernanke 2003, Stella 2005).

○ 대차대조표 위험이 큰 중앙은행 제도가 채택된 경우 이에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자본금 등 대차대조표 위험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중앙은행 제도는 크게 통화가치가 정부의 미래 조세수입(권)으로 뒷받침되는 경우와 중앙은행의 리저브(Reserve)[6]로 뒷받침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Sims(2001)와 Zhu(2003)는 이를 각각 조세권지지통화제도(Tax-based Monetary System)와 리저브지지통화제도(Reserve-based Monetary System)로 정의함.

○ 연준과 ECB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조세권지지통화제도와 리저브지지통화제도가 혼합(hybrid)되어 있으며 그 혼합 정도에 따라 대차대조표 위험 발생 가능성도 상이함.[7]

○ 연준과 ECB는 각각 전형적인 조세권지지통화제도와 리저브지지통화제도를 채택한 중앙은행임.

나. 조세권지지통화제도: 연준

■ 조세권지지통화제도의 경우 중앙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주로 단기국채)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채인 통화를 발행하며, 이에 따라 통화가치는 정부의 미래 조세수입(권)에 의해 지지됨.

○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미래 조세수입에 의해 상화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대차대조표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연결하면 통화는 정부의 미래 조세수입(권)으로 뒷받침되게 됨.

- 미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경우 통화가치도 줄어들게 됨.
-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

6) 리저브는 중앙은행의 자본금 또는 적립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자산, 유가증권, 장기국채 등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함.

7) 환위험으로 인해 대부분의 정부는 중앙은행 계정과 별도의 계정으로 외환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부담을 재정에서 충당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외환을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에 보유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담을 한국은행이 부담하고 있어 대차대조표 위험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그림 1〉 조세권지지통화제도

정부 B/S		중앙은행 B/S		연결 B/S	
ET	PB CB	CB	M	ET	PB M

주: ET는 정부의 미래 조세수입(권), PB는 민간보유 국채, CB는 중앙은행 보유 국채, M은 통화임

■ 단기국채와 통화는 동일한 회계단위(unit of account)로 표시되며 단기국채는 금리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권지지통화제도를 채택한 중앙은행은 항상 흑자를 보이게 됨에 따라 대차대조표 위험이 없음.

○ 또한 단기국채는 동질적으로 유동성이 높아 공개시장조작 수단으로 효과적이며,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단기국채를 통한 공개시장 조작으로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

■ 또한 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해 장기국채, 외환, 민간의 유가증권 등을 매입하는 연준의 양적완화정책과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한 결과로 인해 중앙은행 수지가 악화되더라도 정부의 미래 조세권이 이를 뒷받침함.

○ 그러나 재정이 건전하지 못할 경우 대차대조표 위험으로 인해 적극적인 통화정책 수행이 어려워지게 됨.

■ 연준이 대표적인 조세권지지통화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준의 경우 정부 재정에 문제가 없다면 대차대조표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적극적인 통화정책 수행이 가능함.[8)]

○ 대차대조표 위험이 없기 때문에 연준은 흑자를 적립하지 않고 정부로 귀속시키며, 이하에서 살펴볼 ECB와 다르게 막대한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음.

8) 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 실제 물가상승률과 목표 물가상승률 차이 이상으로 명목금리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함.

■ 〈그림 2〉는 연준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4년 말 대차대조표와 최근인 2011년 말 대차대조표를 비교한 것인데, 시기별로 조세권지지통화제도의 특징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통화정책 변화가 잘 나타나 있음.

○ 2004년 말 대차대조표를 보면 화폐발행액과 국채의 규모가 거의 동일하며, 통화와 국채가 부채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압도적이었음.

○ 이와 대조적으로 2011년 말 대차대조표의 경우 자산측면에서 연방기관채권과 연방주택저당채권 규모가 국채 규모만큼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1, 2차 양적완화정책의 결과임.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3배 정도 확대되었고 위험자산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대차대조표 위험이 높아졌음.

- 흥미로운 현상은 양적완화정책으로 풀린 통화가 예금기관예금으로 상당 부분 연준으로 되돌아 왔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1, 2차 양적완화정책의 경우 금융시장 불안을 어느 정도 완화하였으나 경기부양에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음.

〈그림 2〉 연준의 대차대조표

2004년말 (단위: 10억 달러)

국채	718	화폐발행	719
RP 매입	33	예금기관예금	24
기타자산	29	RP 매도	31
해외자산	35	기타부채	17
		자본	24
총자산	815	부채및자본	815

2011년말 (단위: 10억 달러)

국채	1,213	화폐발행	956
연방기관채권	144	예금기관예금	1,298
주택저당증권	958	RP 매도	59
기타	222	기타부채	171
		자본	53
총자산	2,537	부채및자본	2,537

자료: 연준 연차보고서

다. 리저브지지통화제도: ECB

■ 리저브지지통화제도의 경우 중앙은행이 민간의 유가증권, 외환, 장기국채 등 위험자산을 보유하고 이에 상응하는 통화를 발행하며, 통화가치는 정부의 미래 조세수입(권)이 아닌 중앙은행의 자산(리저브)에 의해 지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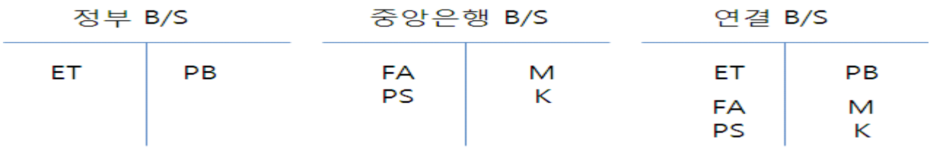
○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연결하더라도 통화가치는 중앙은행의 리저브에 의해 뒷받침되며 국채가치만 미래 조세수입(권)에 의해 지지됨(〈그림 3〉 참조).

-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더라도 조세권지지제도와는 달리 통화가치가 영향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중립적인 통화정책 수행이 가능함.

○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통화와 회계단위가 다르고 만기구조가 상이한 이질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는 이들 자산의 가치를 관리할 수 없으며, 금리, 환율, 신용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음.

○ 중앙은행은 금리 및 환율 변동 등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상당한 규모의 자본금을 보유하는 한편, 통화가치와 미래 조세수입(권)과 무관하기 때문에 흑자를 정부의 재정으로 귀속시키지 않음.

〈그림 3〉 리저브지지통화제도



주: ET는 정부의 미래 조세수입(권), PB는 민간보유 국채, FA는 외화자산, PS는 민간의 유가증권, M은 통화, K는 자본금임

■ 리저브지지통화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ECB

○ 1999년에 출범한 ECB는 유로존의 통합정부가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함.

○ ECB는 EU조약에 따라 유로존 회원국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발행시장에서의 매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ECB가 일부 유로존 회원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해당 국가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최근 ECB가 재정위기국의 국채를 발행시장에서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유로존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9)]

9) ECB가 유통시장에서 유로존 회원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EU 조약 제101조), 이에 대해 독일은 발행시장에서 ECB의 국채매입을 금지시킨 취지가 유통시장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 <그림 4>는 ECB의 2004년 말 대차대조표와 2011년 말 대차대조표를 비교한 것인데, ECB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자산과 부채가 크게 늘림.

○ 2004년 말 대차대조표를 보면 유로화의 가치는 해외자산과 기타자산에 의해 지지됨을 알 수 있으며, 해외자산이 환위험 및 금리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자본금을 보유함.

○ 2011년 말의 경우 화폐발행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해외자산과 기타자산 역시 크게 증가하였음.

- 환위험과 금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자본금 역시 확대됨.

○ 미국의 GDP가 유로존의 GDP 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경우 부채와 자산이 2004~2011년 기간 중 3배 이상 늘어났으나 ECB는 2.5배 정도 증가하는데 그쳐 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ECB가 정책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음.

<그림 4> ECB의 대차대조표

2004년말 (단위: 10억 유로)

해외자산	38	화폐발행	40
기타자산	9	기타부채	4
Intra-EU system Claims	44	Intra-EU system Liability	40
		자본	6
총자산	90	부채및자본	90

2011년말 (단위: 10억 유로)

해외자산	66	화폐발행	71
기타자산	22	기타부채	79
Intra-EU system Claims	120	Intra-EU system Liability	40
		자본	38
총자산	231	부채및자본	231

주: Intra-Eurosystem Claim은 유로를 배분 받은 유로존 각국 중앙은행에 대한 ECB의 청구권
Intra-Eurosystem Liability는 해외자산을 이전한 유로존 각각 중앙은행에 대한 ECB의 채무
자료: ECB 연차보고서

3. 유럽 재정위기와 ECB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가. 유럽 재정위기와 유로존 대응

1) 유럽 재정위기

■ 재정위기는 일반적으로 국가부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협의의 정의이며 1970~2010년 기간 중 선진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개도국에서만 52건이 발생함(Baldacci et al. 2011).

○ 한편, IMF 등 국제기구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거나, CDS 프리미엄이 1,000bp 이상 상승하여 대외차입이 어려워지거나, 물가상승률이 연간 35% 이상(선진국의 경우) 높아지는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 재정위기에 포함됨.

- 광의의 재정위기는 같은 기간 선진국에서 41건, 신흥국에서는 135건이 발생하였음(Baldacci et al. 2011).

■ 재정위기는 기본적으로 신뢰위기이며, 정부의 경우에도 무제한 차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Cecchetti et al. 2011).

○ 정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와 정부부채에 상응하는 만큼 미래 조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재정여력(Fiscal Capacity)이 정부부채 규모를 제한함.

○ 재정여력은 재정지출의 경직성, 그리고 가계부채, 기업부채 수준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정위기를 유발하는 정부부채 임계치도 국가별로 상이함.[10)]

- Baldacci et al.(2001)에 따르면 광의의 재정위기를 경험한 국가의 정부부채 수준은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60%(표준편차 34%), 개도국의 경우 GDP 대비 49%(표준편차 31%)로 나타남.

---

10) 채원영 · 윤성훈(2012. 8. 24)은 「가계, 기업, 정부부채의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KIRI Weekly』에서 OECD 주요국의 경제주체별 GDP 대비 부채수준을 비교하였는데, 재정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정부부채 수준도 중요하지만 정부부채 및 총부채의 증가 속도도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함.

■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재정위기가 발생한 국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을 줄이는 가운데 통화가치를 절하하여 한편으로는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을 낮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제성장률을 높임으로써 위기를 극복함.

○ 재정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인데, 이것이 가능했던 요인은 환율 절하에 따른 수출 증대와 주변 국가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임(노진영 · 임춘석 · 채민영 2010).

○ 또한 재정위기 및 환율절하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크게 하락한 것도 재정위기 극복에 일조함(윤성훈 2011).

■ 유럽 재정위기는 2010년 그리스를 시작으로 포르투갈, 아일랜드에서 발생하였고, 이후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확산됨.

○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가 IMF와 EU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으며, 스페인도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음.

■ 유럽 재정위기는 단일통화체제에서 발생한 유로존 회원국 간 불균형 심화와 방만한 재정운용 등으로 인해 정부부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음.

○ 재정위기국의 경우 경제의 펀더멘탈에 비해 환율이 고평가되었고 ECB가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따라 경제활력을 위해 재정적자가 불가피하였음.

- 이에 따라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왔음.
- 또한 아일랜드를 제외한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정부지출 중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등 다른 유로존 국가(10~14%) 보다 크게 높아 재정지출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재정구조를 갖고 있었음.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부채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재정위기로 나타남.[11]

---

11) 그러나 가계와 기업의 부채 증가가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실업률 상승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Eggertson and Krugman 2010)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재정이 건전하였으나 부동산 거품 붕괴로 금융기관의 부실이 표면화되면서 이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재정위기가 나타남.

〈표 1〉 재정위기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01	2007	2008	2009	2010	2011
그리스	경제성장률	4.2	4.3	1.0	-2.0	-4.5	-3.8
	재정수지	-4.5	-6.5	-9.8	-15.6	-10.3	-9.1
	경상수지	-7.2	-14.3	-17.9	-14.3	-12.3	-11.3
	정부부채	103.7	107.4	113.0	129.4	145.0	165.3
	실업률	10.9	8.3	7.7	9.5	12.6	17.7
포르투갈	경제성장률	2.0	2.4	0.0	-2.5	1.3	-1.0
	재정수지	-4.8	-3.1	-3.6	-10.2	-9.8	-4.2
	경상수지	-10.3	-10.7	-12.6	-10.8	-9.7	-6.5
	정부부채	53.5	68.3	71.6	83.1	93.3	107.8
	실업률	4.1	8.1	8.5	10.6	12.0	12.9
이탈리아	경제성장률	1.8	1.5	-1.3	-5.2	1.3	1.1
	재정수지	-3.1	-1.6	-2.7	-5.4	-4.6	-3.9
	경상수지	-0.1	-2.4	-2.9	-2.0	-3.5	-3.1
	정부부채	108.2	103.1	105.7	116.0	118.6	120.1
	실업률	9.1	6.1	6.7	7.8	8.4	8.4
스페인	경제성장률	3.6	3.6	0.9	-3.7	-0.1	0.7
	재정수지	-0.5	1.9	-4.5	-11.2	-9.3	-8.5
	경상수지	-3.9	-10.0	-9.6	-5.1	-4.5	-3.9
	정부부채	55.6	36.3	40.2	53.9	61.2	68.5
	실업률	10.3	8.3	11.3	18.0	20.1	21.7
아일랜드	경제성장률	5.7	5.6	-3.5	-7.6	-1.0	0.9
	재정수지	0.9	0.1	-7.3	-14.0	-31.2	-13.1
	경상수지	-0.6	-5.3	-5.6	-2.9	0.5	0.0
	정부부채	35.1	24.8	44.2	65.1	92.5	108.2
	실업률	3.9	4.6	6.3	11.9	13.7	14.4

주: 재정수지, 경상수지, 정부부채는 GDP 대비임
자료: Eurostat

○ GDP 대비 부채가 높은 국가의 국채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때문에 유로존 금융기관이 대거 인수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감독기능이 유로존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함.

2) 유로존 대응

■ EU는 유로존 출범 당시 단일 통화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12)]을 인식하고 초기부터 재정위기 예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음.

- ○ 1992년 유로존 국가 간 EU 조약을 체결하여 과도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각각 GDP 대비 3%와 60%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규율(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을 설정함.
- ○ 유로존 국가 간 채무인수를 금지함.
- ○ 또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리저브지지통화제도에 부합되도록 ECB에 대해 유로존 회원국의 국채인수 및 금융기관에 대한 특권적 접근을 금지시켰음.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구제금융과 경기부양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규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재정위기가 확산되자 EU는 EFSM, EFSF, ESM 등 위기관리체계를 도입하였음.

- ○ EFSM(유럽재정안정메카니즘,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Mechanism)은 EU 위원회가 관리하는 공동체 예산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재정위기국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금융지원한도는 600억 유로이며 대출형식으로 지원함.
  - 운영기간은 2010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이며, 국가채무 조정 시 투자손실을 분담하지 않음.
- ○ EFSF(유럽재정안정기금,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는 27개국 유로존 재무장관의 합의에 따라 2010년 6월에 설립된 특수목적기구와 유사한 성격의 기금임.
  - 금융지원 한도는 4,400억 유로이며 채권발행을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한데, EFSF가 발행한 채권이 AAA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신용등급이 AAA인 6개 국가(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룩셈부르크)의 보증이 필요함.
  - 2013년 6월까지 한시적인 기금으로 ESM으로 대체될 예정임.

---

12) 단일 통화체제의 문제점은 첫째, 단일통화 적용에 따른 유로존 국가 간 내외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 둘째, 단일 통화정책과 국가별 재정정책의 모순 가능성, 셋째, 유로존 국가 간 위기 전염에 대한 취약성 등임.

- 최근 들어 금융지원 한도를 1조 유로로 확대를 추진함.

○ ESM(유럽안정기구, 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은 2012년 10월부터 EFSF와 병행하여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조건부로 설립을 비준함.

- EFSF와 달리 자본금(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조성)을 바탕으로 차입이 가능하며 재정위기국의 국채를 매입할 수 있음.
- 대출지원의 조건은 독일이 요구하는 재정 긴축안을 받아들이는 것임.

■ 재정 건전화를 위해 유로존 회원국은 재정적자 축소 또는 재정균형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는 등 재정긴축을 강력히 추진함.

〈표 2〉 재정위기국의 재정건전화 추진계획(2011년 당시)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그리스	재정수지	-10.4	-7.6	-6.5	-4.8	-2.6	-1.5
	정부부채	143	166	172	17	160	146
아일랜드	재정수지	-32.0	-10.4	-8.9	-7.3	-4.9	-4.6
	정부부채	95	109	115	118	118	117
포르투갈	재정수지	-9.1	-5.9	-4.5	-3.0	-2.3	-1.9
	정부부채	93	106	112	115	115	113
스페인	재정수지	-9.3	-6.0	-4.4	-3.0	-2.1	-
	정부부채	60	67	68	69	69	-
이탈리아	재정수지	-4.6	-3.9	-1.6	-0.1	0.2	-
	정부부채	119	121	120	116	113	-

자료: 박진호 · 김아현(2011)

○ 재정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EU 25개국이 새로운 재정협약에 서명함.

- 재정협약 체결국은 GDP 대비 구조적 재정적자 비율을 0.5%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게 됨.

○ 그러나 그리스, 스페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1년 당시 계획했던 재정긴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긴축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급등함에 따라 국민적 저항에 봉착하고 있음.

■ 위기관리체계가 궁극적으로 재정위기 극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이 제안되고 있음.

○ 재정위기국의 국채발행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EU 공동으로 유로본드를 발행하자는 주장이 프랑스에서 제안되었는데, 이 경우 재정위기국의 국채발행 비용은 낮아지나 독일 등 재정건전국의 국채발행 비용은 높아지기 때문에 독일 등이 이에 반대함.

○ 독일은 유럽 재정위기가 방만한 재정지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EU 차원에서 재정을 통합하여 EU가 재정지출을 결정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 경우 재정의 주권마저 상실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반대함.

○ 금융기관 감독을 개별국가 차원이 아니라 EU 차원에서 시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대상기관과 재원 조달 등의 이견이 남아 있음.

■ 위기관리체계와 새로운 재정협약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재정위기국에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으나 경제성장을 제고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ECB가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에 나서지 않는 한 유럽의 재정위기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재정긴축으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급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긴축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함.

- 경제가 위축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면 재정위기를 겪지 않고 있는 다른 유로존 회원국과의 펀더멘탈 격차가 확대되어 유로존 역내 회원국 간 불균형이 더욱 확대되어 유로존의 존립이 흔들릴 수도 있음.

○ 유로화 환율 절하를 유도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을 높여 정부부채의 실질가치를 축소시켜야 함(윤성훈 2011).

- 이를 위해서는 독일 등 재정이 건전한 회원국이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을 용인하여야 할 것이나 쉬운 결정은 아님.

나. ECB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 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였던 ECB는 2009년 5월 유로화 표시 담보부증권(Covered Bond)[13]을 한시적으로 매입하는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함.

○ ECB는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금융위기로 위축된 담보부채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연준의 양적완화정책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함.

○ 이에 따라 이러한 ECB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연준의 양적완화정책과 대비하여 신용완화정책(Credit Easing)이라고 불리움.

■ 이후 유통시장에서 회원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국채매입프로그램을 2010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운용하는 한편, 2010년 6월 종료된 담보부증권 매입을 2011년 11월 재개함.

○ 이러한 조치와 함께 2011년 10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자금공급조작(LTRO)과 단기자금공급조작(MRO)도 실시함.

■ 이러한 조치는 연준이 그 동안 시행한 양적완화정책(GDP 대비 18%)에 비해 매우 적은 규모(박진호 · 김아현 2011)인데, 이는 ECB와 독일 등이 유로존 회원국의 국채 매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고 매입대상 자산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임.

○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경우 유동성문제(Liquidity Problem)가 아니라 지급능력문제(Solvency Problem)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ECB가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움.

- ECB가 재정위기국 국채매입 시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이들 국가의 정부부채의 화폐화가 우려됨.
- 신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중앙은행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ECB의 신뢰성 및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함(ECB 2010).
- 드라기 ECB 총재도 2011년 11월 ECB의 최종대부자로서의 책임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것이지 정부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채매입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라고 주장함.
- 이러한 ECB의 입장은 리저브지지통화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임.

○ 유럽은 미국과 달리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서 ECB가 자본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는 신용도가 높은 자산이 충분하지 않음.

---

13) 일반적인 담보부증권(ABS)과 달리 담보부채권 발행자인 은행이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이전되지 않음.

○ 한편, 재정위기국 국채를 ECB가 대규모로 매입하는 것은 이들 국가의 재정긴축 노력 유인을 크게 악화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음.

■ 그러나 재정긴축에 대한 스페인, 그리스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로존 위기관리체계가 재정여력 부족으로 재정위기 극복에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ECB는 그 동안의 입장에서 벗어나 재정위기국 국채매입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함.

○ ECB는 2012년 9월 6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국채(만기 1~3년)에 대해 무제한 매입 정책을 결정함.

○ 이는 2010년 5월부터 시작하여 2012년 2월에 중단된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SMP: Securities Market Programme)보다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시행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임.

- ECB는 무제한 매입한 국채가 디폴트될 경우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선순위권도 포기하였음.

○ 리저브지지통화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정책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아짐.

■ ECB의 정책기조 변화는 유럽의 재정위기 및 경제전망과 중앙은행제도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함.

○ 첫째, 유럽 재정위기가 유로존 위기관리체계와 회원국의 긴축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물가상승과 유로화 평가절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함.

- 국채매입에 따른 신용위험을 ECB가 부담함에 따라 정부부채의 화폐화 위험성이 높아지며, 이는 유로화의 가치하락으로 연결될 것임.

- 유로화의 가치하락으로 대외경쟁력을 회복하는 한편 정부부채 수준을 낮추는 근본적인 대응으로 판단됨.

○ 둘째, 이러한 ECB의 조치는 글로벌 환율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데, IMF 총재는 유럽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개도국은 자국통화의 평가절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브라질 등 개도국은 유럽 및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은 위장된 보호무역정책이라고 비난함.

○ 셋째, 유럽 경제가 장기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ECB의 정책금리가 1%를 하회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ECB의 국채매입과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상시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유로존의 재정통합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임.

○ 넷째, 물가가 ECB의 예상보다 높아지더라도 ECB는 자산가격 하락을 우려하여 정책금리 인상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아짐.

4. 미국의 경기회복을 위한 연준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가. 미국의 경제 및 정부부채 상황

■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주택시장 거품이 붕괴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과 2009년 경제가 침체를 보였으며, 경기부양, 금융기관 지원 등을 위해 재정지출이 급증함.

○ 2001~2003년 기간 중 부시행정부의 감세와 군비 증가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고,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부채 수준도 크게 늘어났음.

〈표 3〉 미국경제의 주요 지표

(단위: %)

구분	200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경제성장률	1.1	2.7	1.9	-0.3	-3.5	3.0	1.7
재정수지(GDP 대비)	0.9	-2.0	-2.7	-6.7	-13.0	-10.5	-9.6
경상수지(GDP 대비)	-3.7	-6.0	-5.1	-4.7	-2.7	-3.2	-3.1
정부부채(GDP 대비)	57.8	66.6	67.2	76.1	89.9	98.5	102.9
실업률	4.7	4.6	4.6	5.8	9.3	9.6	9.0

자료: 연준

■ 막대한 재정지출에 힘입어 미국 경제는 2010년 회복되었으나 2011년 이후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다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등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음.

■ 특히 정부부채의 법정한도를 높임으로써 국가부도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의회의 대립으로 정치적 불신을 초래함.

○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을 2조 1,000억 달러로 늘리는 대신 향후 10년간 정부지출을 2조 4,000억 달러 감축하기로 합의함.

○ 재정지출 감축 방안의 경우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획과 같이 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인지는 미지수임.

-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로 재정지출을 줄이기가 어려운 상황임.

■ 그러나 2009~2035년 기간 중 정부지출의 의무적 지출 증가분의 80%가 의료보장 지출, 20%가 사회보장연금 지출로 추정되는 등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을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계획대로 재정적자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정부부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0년 미국의 재정부채는 GDP 대비 1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재정지출의 PAYGO(Pay As You GO)원칙 부활, 세금공제 혜택 축소, 세제 단순화, 부가가치세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음.

■ 더욱이 최근 들어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부시 정부 당시 도입된 감세혜택이 2012년 말로 폐지되고 이후 세율 인상과 정부지출이 감소하는 등 급작스러운 재정긴축을 의미함.

○ IMF는 미국의 재정절벽이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함.

○ Bernanke 연준 의장도 재정절벽 현상 발생 시 경기회복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함.

○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감세조치를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의 가구에 한해 감세혜택을 1년 연장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임.

■ 미국 대선 이후 재정절벽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 역시 GDP 대비 정부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미국도 1980년대 재정적자를 해소한 요인이 플라자 합의에 따른 달러화 가치 절화와 IT 확산으로 인한 경제성장이었다는 점에서 재정적자 축소 및 정부부채 감축을 위해서는 명목경제성장률 제고가 필요함.

나. 연준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2008년 12월 사상 최저수준인 0.0~0.25%로 낮추는 한편, 1차 양적완화정책(2008년 12월~10년 3월)을 한시적으로 시행함.

○ 정책금리 인하와 함께 향후 정부보증기관 채권과 MBS를 매입하고 필요한 경우 장기 국채 매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1차 양적완화정책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됨.

○ 이후 정부보증기관 채권과 MBS 매입을 1조 4,000억 달러로 확대하였고 장기국채도 3,000억 달러를 매입하기로 결정함.

■ 2010년 3월 연준은 2차 양적완화정책을 발표하였는데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포함하여 9,000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하기로 결정함.

○ 또한 2011년 9월 4,000억 달러 규모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발표함.

■ 연준의 QE1, QE2에 대해 연준은 물가상승을 우려하여 일시적인 조치임을 강조하였고, 대차대조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함.

○ 유동성 공급 시 담보자산에 대해 Haircut, Margin Call 등의 제도를 도입함.[14)]

---

14)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2009), 「연준의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B/S 변화와 연준 수지에 미치는 영향」, 해외경제포커스 제2009-27호 참조.

■ 그러나 QE1 및 QE2로 인해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상품가격과 주식시장이 회복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그림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중에 풀린 통화의 상당 부분이 연준으로 환수되어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그린스펀이 연준의장일 때 주식시장에 대해 연준이 반응하여 Greenspan Put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처럼 Bernanke Put이 형성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 또한 유동성이 신흥시장국으로 흘러들어감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함.

■ 연준은 2012년 9월 13일 연방공개시장회의(FOMC)에서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부증권(MBS)을 사들이는 한편 초저금리 기조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3차 양적완화정책(QE3)을 실시하기로 발표함.

○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 말까지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장기채권을 매입하게 됨.

■ QE3가 QE1 및 QE2와 다른 점은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부증권을 계속해서 매입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정책의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이는 QE3가 경기부양보다는 물가상승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임.

○ Bernanke 연준 의장은 이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나 공개시장조작회의에서도 물가상승 용인에 대한 주장이 등장하는 등 물가상승의 불가피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연준의 QE3는 미국의 재정상황 및 중앙은행제도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함.

○ 첫째, 미국의 재정건전화는 재정적자 축소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물가상승과 달러화 절하가 불가피함.

- 달러화의 가치 하락으로 대외경쟁력을 회복하는 한편 정부부채 수준을 낮추는 근본적인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둘째, 연준의 조치는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한편, 환율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 2012년 9월 19일 일본은행도 추가적인 양적완화정책을 발표하였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경기부양이나 내면적으로는 엔화 강세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15)

○ 셋째, IMF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10년간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준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대차대조표 위험 상승으로 물가상승에 연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될 수 있음.

5. 결론 및 시사점

■ Baldacci et al.(2011)과 Cecchetti et al.(2011)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재정위기의 임계수준은 정부부채가 GDP 대비 100% 정도인 것으로 보이며, 유로존과 미국은 이미 동 수준을 넘어섰음.

○ 더욱이 유럽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등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으며, 미국은 재정절벽에 직면한 상황임.

■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경기회복이 더디며 유로존과 미국 고용시장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부양이 필요하나, 정부부채 수준이 위험수준을 넘어서 재정지출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유로존과 미국의 경우 정책금리가 1% 이하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고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불가피함.

15) 일본은행은 70조 엔이었던 국채매입기금을 80조 엔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양적완화정책을 2013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연준과 ECB가 채택한 중앙은행제도를 고려할 때 대차대조표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2012년 9월 들어 ECB는 재정위기국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결정하였고, 연준도 QE3가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속될 수 있음을 밝히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시각 변화를 보임.

○ 이전까지 ECB의 신용완화정책과 연준의 양적완화정책에 대해 한시적인 정책임이 강조되었음.

○ 그러나 이번 정책결정과 함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상시정책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함.

○ 이러한 정책은 암묵적으로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건전화가 재정긴축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물가상승과 명목경제성장이 불가피함을 ECB와 연준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재정정책 지원이 없는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쉽지 않다는 점과 ECB와 연준이 채택한 통화제도(중앙은행제도)를 고려할 때 이번 ECB와 연준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ECB와 연준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금융시장 안정(Tail Risk 축소)에는 기여할 것임.

○ 그러나 유로존과 미국의 경기회복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물가상승률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증대됨.

○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더라도 확대된 대차대조표 위험으로 ECB와 연준의 적극적인 통화정책(금리 인상)이 어려워질 것임.

○ 유로존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통합이 빨라질 개연성도 있음.

○ ECB와 연준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환율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음.

■ 이러한 전망이 가시화될 경우 금융산업과 보험산업은 특히 저성장기조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유럽 재정위기가 전 세계 보험업계에 미친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나[16] 저성장 기

16) 유럽 재정위기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며 향후에도 그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Swiss Re 2011, Willis Market Security 2011). 이는 은행업에 비해 보험업은 투자 레버리지

조가 장기화될 경우 보험산업은 대출채권[17] 미상환 위협에 시달릴 위험이 있음.

○ 실질금리가 0% 또는 마이너스 수준에서 장기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자산운용전략이 필요함.

- 전반적인 자산 운용에 있어 자산 포트폴리오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헤징 전략을 쓸 필요가 있음.

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대부분의 투자위험은 보험계약에 의해 계약자들이 책임지며, 장부상의 국공채에 대한 투자는 시장가치로 평가(marked to market value)되어 즉각 반영되는 한편, 단기부채에 대한 수요와 유동성 제약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임. 국내 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 가운데 외화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불과하며, 설사 유럽의 재정위기국 중 일부가 채무이행을 유예하더라도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FY2005 이후 외화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그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에 비해 손해보험사들은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7) 우리나라의 경우 FY2005 운용자산 내 비중이 24.7%에 달하였던 대출채권은 FY2011 현재 20.1%로 줄어든 상태이나 이 중 납입보험료를 담보로 한 보험약관 대출금보다는 부동산담보 및 신용대출금에 대한 미상환 발생 시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 위험자산은 대출채권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참 고 문 헌〉

노진영・임춘석・채민영(2010), 「국가채무의 부도사례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 주는 시사점」, 한은조사연구 2010-4, 한국은행.

박진호・김아현(2011),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에 대한 ECB의 정책대응」,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1-47호, 한국은행.

서병한(2007), 『통화정책론 - 재정・통화정책의 정상화 방안』, 율곡출판사.

윤성훈(2011), 「주요국 재정위기의 원인 및 진단」, 보험금융정책 세미나: 글로벌 금융불안의 진단과 국내보험시장 파급 발표자료.

채원영・윤성훈(2012), 「가계, 기업, 정부부채의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주간포커스.

한국은행(2009), 「연준의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B/S 변화와 연준수지에 미치는 영향」, 해외경제 포커스 제 2009-27호.

Baldacchi, Emanuele, James McHugh, and Iva Petrova(2011), "Measuring Fiscal Vulnerability and Fiscal Stress: A Proposed Set of Indicators", IMF Working Paper, WP/11/94, IMF.

Bernanke, Ben S.(2009), "Some Thoughts on Monetary Policy in Japan", speech delivered at the Japan Society of Monetary Economics, Tokyo, May 31. 2009-27호.

Cargill, Thomas F.(2001), "Monetary Policy, Deflation, and Economic History: Lessons for the Bankof Japan", Monetary and Economic Studies, Bank of Japan, Vol. 19, pp.113~34.

Cecchetti, Stephen G.(2011), M. S. Mohanty, and Fabrizo Zampolli, "The Real Effects Of Debt", BIS Working Paper No.352, BIS.

Eggertson Gauti B., and Paul Krugman(2010), "Debt, Deleveraging and Liquidity Trap", mimeo.

Stella, Peter(2005), "Central bank Financial Strength, Transparency and Policy Credibility", IMF Staff Papers, Vol.52, No.2.

Sims, Christopher(2001), “Fiscal Aspects f Central Bank Independence”, mimeo, Princeton University.

Swiss Re(2011), “Global insurance review 2011 and outlook 2012/13”, Economic Research & Consulting,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Willis Market Security(2011), “Impact of the Eurozone Debt Crisis on Insurer Solvency”.

Zhu, Feng(2003), “Central Bank Balance Sheet Concerns, Monetary and Fiscal Rules and Macroeconomic Stability”, Mimeo, Yale University.

Ⅱ. 경제금융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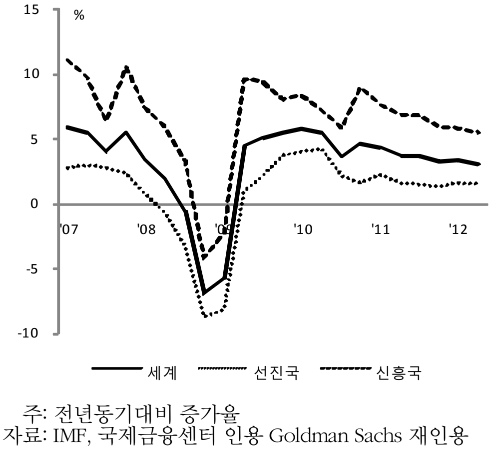
1. 세계경제

> 2012년 2/4분기 세계경제 성장률은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인한 소비 및 무역 위축, 고용 여건 개선 지연 등으로 전년동기 및 전분기대비 모두 하락함.

■ 2012년 2/4분기 세계경제 성장률[1]은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의 동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한 3.1%를 기록하였으며 전분기대비로도 0.7%p 둔화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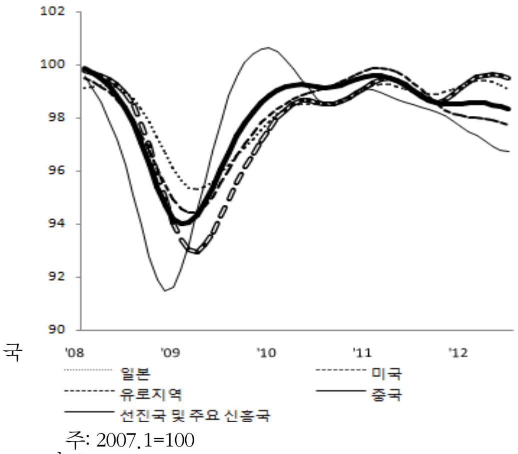
- ○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 및 주택경기 부진, 정부 및 민간부문의 부채조정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1.5%로 2012 1/4분기 1.6%에 비해 위축되었음.
- ○ 신흥국들은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대외부문 수요 위축으로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이 2012 1/4분기 5.8%에서 5.5%로 하락하였음.

〈그림 1〉 세계경제 성장률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IMF, 국제금융센터 인용 Goldman Sachs 재인용

〈그림 2〉 세계 경기선행지수



주: 2007.1=100
자료: OECD

---

1) 국제금융센터 인용 Goldman Sachs 재인용.

2) 한국은행 인용 IMF 재인용. 전분기대비 증가율(연율) '12. 1/4분기 3.6% → '12. 2/4분기 2.9%.

■ 2/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3])는 유럽 재정위기 해결이 지연되면서 전분기 98.6에서 98.4로 하락함.

○ 자국 이기주의로 인한 유럽 재정위기 해법 지연은 유로지역 경기침체 지속뿐만 아니라 2012년 하반기 세계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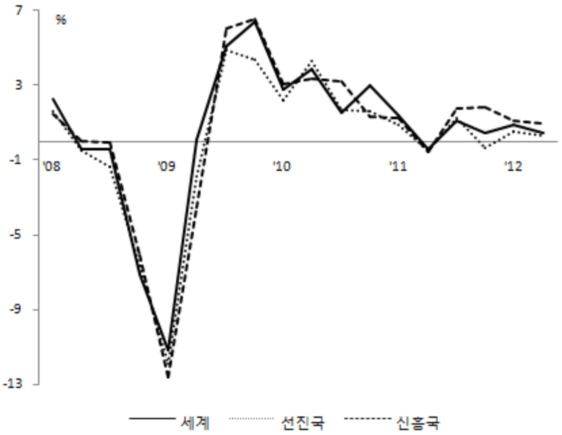
■ 2/4분기 세계무역 규모의 경우 세계경기 둔화와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교역이 부진해지면서 전분기대비 증가율이 하락함.

○ 세계무역 규모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4분기 2.0%에서 2/4분기 2.9%로 상승하였으나 이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며, 2/4분기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0.5%로 1/4분기 0.9%보다 하락함.

○ 2/4분기 전분기대비 무역규모 증가율은 선진국 0.3%, 신흥국 1.0%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1/4분기 선진국 0.5%, 신흥국 1.1%보다 하락한 것이며, 특히 선진국 중 일본과 유로지역의 하락폭이 컸음.

- 유로지역은 증가율이 1/4분기 1.3%에서 2/4분기 0.6%로 하락하였고, 일본은 1/4분기 0.5%에서 2/4분기 -0.7%로 하락함.

〈그림 3〉 세계 무역액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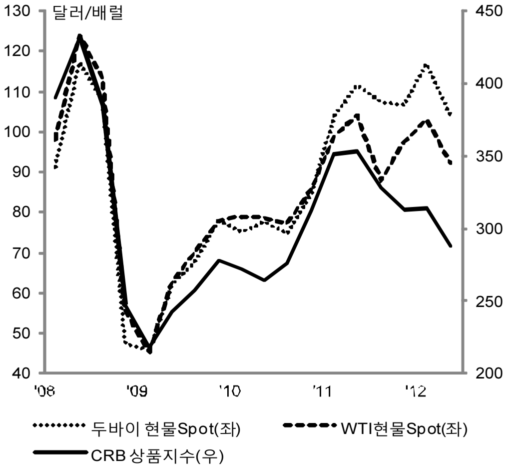
주: 2000=100, 전분기대비 증가율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3) 세계경제는 OECD국가들과 6개 주요 신흥국으로 구성.

■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분기 들어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국제유가, 곡물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5%를 기록하였으며 하락세를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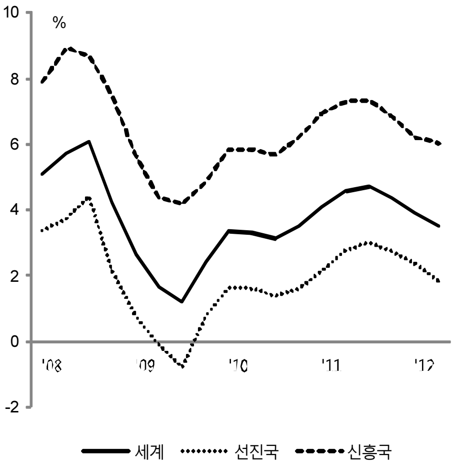
- ○ WTI 및 두바이 국제유가는 세계수요 감소로 2/4분기 배럴당 평균 97.8달러를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10.9% 하락하였으며 CRB지수[4] 역시 세계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9.0% 하락함.
- ○ 선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 2.4%에서 2/4분기 1.8%로 낮아졌고, 신흥국은 같은 기간 6.2%에서 6.0%로 하락함.

〈그림 4〉 국제유가 · 원자재가격 추이



주: CRB 상품지수 1967=100
자료: Bloomberg

〈그림 5〉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IMF

4) 곡물, 원자재, 원유 등의 가격지수.

가. 미국경제

2012년 2/4분기 미국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세계경기 둔화 등 경기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소비와 투자 부진, 고용여건 개선 지연으로 저성장세를 지속함.

〈최근 동향 및 전망〉

■ 2012년 2/4분기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0.3%를 기록함.

○ 민간소비는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채조정에 따른 저축 증가, 고용여건 개선 지연 등으로 성장률이 하락함.

- 가처분소득은 전분기대비 3.1% 증가하였으며 저축률은 1/4분기 3.6%에서 2/4분기 4.0%로 상승하였음.

○ 민간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투자심리 불안으로 설비 및 주택 투자가 동반 부진해지면서 전분기대비 0.2% 증가에 그침.

○ 수출은 재화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1.3% 증가하였으나 수입은 서비스 수입 감소로 인해 0.7% 증가함.

○ 정부지출은 연방 및 주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라 전분기대비 0.2% 감소함.

〈표 1〉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0	2011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2/4
실질GDP	3.0	1.7	0.6	0.6	0.6	0.0	0.6	0.3	1.0	0.5	0.3
민간소비	2.0	2.2	0.6	0.6	1.0	0.8	0.2	0.4	0.5	0.6	0.4
서비스	0.9	1.4	0.6	0.5	0.6	0.5	0.5	0.4	0.1	0.3	0.5
재화	4.3	3.7	0.8	0.9	1.9	1.3	-0.2	0.3	1.3	1.2	0.1
민간투자	17.9	4.7	3.5	3.9	-1.5	-1.3	3.0	1.4	7.6	1.5	0.2
설비	4.4	8.7	2.9	1.9	2.2	-0.3	3.4	4.4	2.3	1.8	0.9
주택	-4.3	-1.3	5.3	-8.1	0.4	-0.3	1.0	0.3	2.9	4.8	2.0
수출	11.3	6.8	2.3	2.3	2.4	1.4	1.0	1.5	0.4	1.1	1.3
수입	12.5	4.9	4.7	3.3	0.0	1.0	0.0	1.1	1.2	0.8	0.7
정부지출	0.7	-2.1	0.7	-0.1	-1.1	-1.8	-0.2	-0.7	-0.6	-0.8	-0.2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2. 9),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FOMC[5]는 민간소비 및 투자 위축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주택경기 부진, 재정긴축 등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과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미국 재정절벽 가능성으로 인한 경기회복 불확실성 증대 등 다수의 경기하강 요인에 근거함.

○ FOMC는 2012년 성장률 전망치를 6월의 1.9~2.4%에서 1.7~2.0%로 하향 조정함.

〈내수부문〉

■ 2/4분기 내수부문은 유럽 재정위기 영향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매판매와 민간기계수주 모두 부진해 짐.

○ 소비자신뢰지수는 고용여건 개선 지연, 가계부채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67.5에서 65.3으로 떨어졌고 소매판매는 전분기대비 0.4% 감소함.

○ 민간기계수주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분기대비 2.6% 감소하였고 주택착공은 2.9%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증가세가 둔화됨.

■ 다만, 정부의 수요측면 정책에 힘입어 주택경기는 바닥을 확인하면서 회복세를 보임.

○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대비 2.3% 상승하였으며 신규주택판매는 3.1% 증가함.

○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저금리 (재)융자 프로그램에 힘입어 주택 압류 매물과 주택 재고가 감소하는 동시에 신규주택수요가 증가함.

〈표 2〉 미국의 주요 내수부문 지표

구분	2011	2010	2011				2012			
	연간	4/4	1/4	2/4	3/4	4/4	1/4	2/4	6월	7월
소매판매 증가율[1] (%)	8.2	3.3	2.6	1.4	1.2	2.1	1.5	-0.4	-0.5	-0.1
소비자신뢰지수[2]	58.1	57.0	66.9	61.5	50.3	53.6	67.5	65.3	62.7	65.4
민간기계수주액[3](%)	17.2	5.4	3.8	6.7	-0.7	2.7	-3.3	-2.6	-0.4	-1.3
주택착공호수 증가율[3](%)	6.7	-7.8	8.1	-1.8	7.4	10.5	5.4	2.9	2.2	-0.6
주택가격지수[4]	140.0	142.9	141.7	140.9	139.9	137.5	137.0	140.1	141.5	142.1

주: 1)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전분기대비, 월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5) FOMC(2012. 9),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생산부문〉

■ 2/4분기 생산부문의 성장세는 유로지역 및 중국 등의 해외수요 감소, 기업수익 감소,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전분기대비 둔화됨.

○ 세전 및 세후 기업수익은 전분기대비 각각 0.8%, 0.4% 감소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 악화되어 전분기 53.3에서 52.7로 하락하였으며 산업생산지수는 전분기대비 0.6% 상승에 그침.

〈표 3〉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1	2010	2011				2012			
	연간	4/4	1/4	2/4	3/4	4/4	1/4	2/4	6월	7월
산업생산지수 상승률[1)](%)	4.1	0.5	1.1	0.3	1.4	1.2	1.4	0.6	0.3	0.2
산업생산가동률[2)]	77.9	75.4	76.2	76.3	77.1	77.9	78.7	78.9	78.9	79.0
ISM제조업PMI	55.3	57.9	60.1	56.6	52.1	52.4	53.3	52.7	49.7	49.8
경기선행지수[3)]	104.0	111.3	113.4	114.7	93.8	94.2	95.2	95.7	95.3	95.8

주: 1)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2) 2007=100, 3) 2004=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고용과 물가〉

■ 2/4분기 고용시장 여건은 실업률이 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가운데 일자리 수 감소와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증가하면서 전분기보다 악화됨.

○ 실업률과 포괄적실업률[6)]은 8.2%, 14.7%를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각각 0.1%p 하락하였으나 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음.

- 실업률: 8.1%(4월) → 8.2%(5월) → 8.2%(6월); 포괄적실업률: 14.5%(4월) → 14.8%(5월) → 14.9%(6월)

○ 비농업 취업자 수는 전분기 67만 7,000명에서 20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실업수당 청구자(월 평균)는 전분기 36만 9,000명에서 38만 2,000명으로 증가함.

6) 구직포기자 및 비자발적 임시직 실업을 반영.

■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 하락과 식료품 가격 상승세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은 1/4기보다 0.9%p 하락한 1.9%를 기록함.

○ 에너지가격과 식료품가격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3%, 2.9%를 기록하여 전분기보다 각각 8.2%p, 1/0%p 하락함.

○ 근원소비자물가는 신차구매가격을 제외한 주거비, 교통비, 서비스 가격 등의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2.3% 상승하여 상승률이 전분기보다 0.1%p 높아짐.

- 신차구매가격 2.9% → 1.5%, 주거비 2.0% → 2.2%, 교통비 1.7% → 1.8%, 서비스가격 2.3% → 2.5%

〈표 4〉 미국의 주요 고용 · 물가 지표

구분	2011	2010	2011				2012			
	연간	4/4	1/4	2/4	3/4	4/4	1/4	2/4	6월	7월
실업률[1](%)	9.0	9.6	9.0	9.0	9.1	8.7	8.3	8.2	8.2	8.3
포괄적 실업률(u-6)[2](%)	15.9	16.8	15.9	16.0	16.2	15.6	14.8	14.7	14.9	15.0
비농업취업자 증감[3](만 명)	46.0	46.1	57.6	38.9	38.3	49.2	67.7	20.0	4.5	14.1
실업수당 청구자수[4](만 명)	40.9	43.4	41.4	42.4	41.0	39.0	36.9	38.2	38.5	36.6
소비자물가 상승률[5](%)	3.2	1.3	2.1	3.4	3.8	3.3	2.8	1.9	1.7	1.4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1.7	0.7	1.1	1.5	1.9	2.2	2.2	2.3	2.2	2.1
생산자물가 상승률[6](%)	6.0	3.8	4.9	6.9	6.9	5.4	3.4	1.1	0.7	0.5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2.4	1.4	1.8	2.2	2.7	3.0	3.0	2.7	2.6	2.5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3) 전분기대비 증감, 전월대비 증감,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대비, 6) 1982=100, 전년동기대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나. 유로경제

> 2012년 2/4분기 유로경제는 재정위기 확산으로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됨.

〈최근 동향 및 전망〉

■ 2012년 2/4분기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고정자본투자의 동반 부진으로 -0.2%를 기록함.

○ 민간소비는 가처분소득 감소, 체감경기 악화, 고용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0.2% 감소함.

○ 고정자본투자는 투자심리 위축, 신용 할당,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설비투자 및 주택투자 모두 부진해지면서 전분기대비 0.8% 감소함.

○ 정부지출은 유로지역 전역의 재정긴축으로 전분기보다 더욱 억제됨.

○ 수출은 유로화 가치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회복과 남미와 중동지역 수출 증가로 전분기대비 1.3% 늘어났으며, 수입은 전분기대비 0.9% 증가함.

〈표 5〉 유로지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0	2011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2/4
EA17 GDP	1.9	1.4	0.9	0.4	0.3	0.8	0.1	0.1	-0.3	0.0	-0.2
민간소비	0.9	0.2	0.1	0.3	0.4	0.1	-0.4	0.2	-0.5	-0.2	-0.2
고정자본	-0.5	1.4	1.9	0.2	-0.3	1.7	-0.1	-0.4	-0.5	-1.3	-0.8
정부지출	0.5	0.1	0.2	0.1	0.0	0.1	0.1	-0.2	0.0	0.2	0.1
수출	11.3	6.1	4.6	2.1	1.5	1.3	1.2	1.5	-0.2	0.7	1.3
수입	9.6	3.9	4.2	1.6	1.5	0.7	0.4	0.5	-1.4	-0.2	0.9

자료: Eurostat

■ 지역별로는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재정위기가 심화된 남유럽 국가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함.[7)]

○ 2/4분기 독일 경제는 민간소비 지출(0.4%)과 수출(2.5%)이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기계 및 장비 등에 대한 투자지출 감소(-0.9%)로 0.3% 성장함.

○ 이탈리아(-0.8%). 스페인(-0.4%) 등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내수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됨.

■ 유럽중앙은행(ECB)은 더 이상 유럽 재정위기가 악화되지 않고 하반기에 완만한 세계경제 회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유로지역은 당분간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 재정긴축 확대, 은행의 신용 축소 등으로 유로지역 경기체감지수(ESI)는 2/4분기 91.1을 기록하고 7월에는 87.9로 더욱 하락함으로써 경기침체가 3/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ECB는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월의 -0.5~0.3%에서 -0.6~-0.2%로 하향 조정함.[8)]

〈내수부문〉

■ 2012년 2/4분기 소매판매는 주요국[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으며 소비자 체감경기 역시 침체를 지속함.[10)]

○ 소매판매는 주요국(0.2%)을 제외한 북유럽(-0.2%), 남유럽(-1.5%), 동유럽(-1.5%) 모두 전분기대비 감소하여 유로지역 평균적으로는 0.4% 감소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주요국과 북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전분기대비 하락하였으나 유로지역 평균적으로는 -19.7을 기록하여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함.

---

7) 유럽 주요국의 경제지표는 〈표 7〉 유럽 주요국 실질 GDP증가율 참조.

8) ECB(2012. 9), Monthly Bulletin.

9) 독일, 프랑스, 영국.

10) 〈표 6〉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참조.

〈표 6〉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1	2010	2011				2012			
	연간	4/4	1/4	2/4	3/4	4/4	1/4	2/4	6월	7월
유로지역 ESI[1]	101.0	105.7	106.9	105.2	98.4	93.6	94.1	91.1	89.9	87.9
소매판매 증가율[2](%)	0.4	-0.4	-0.1	-0.4	1.2	0.8	0.4	-0.4	-0.1	0.4
소비자신뢰지수[3]	-14.6	-10.4	-11.0	-10.7	-15.9	-20.6	-20.0	-19.7	-19.8	-21.5
산업생산 증가율[4] (%)	5.9	1.1	2.8	1.5	0.3	0.3	1.4	0.1	-0.3	-0.2
제조업기대지수[3]	9.4	16.8	18.7	13.1	5.2	0.6	2.1	-3.6	-5.6	-7.7
실업률[5](%)	10.2	10.1	9.9	10.0	10.2	10.6	10.9	11.2	11.3	11.3
소비자물가 상승률[6](%)	2.7	2.0	2.5	2.7	2.7	2.9	2.7	2.5	2.4	2.4

주: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3)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4) 비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5) 계절조정, 6)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pean Commission, Key euro area indicators(2012. 9);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생산부문〉

■ 2012년 2/4분기 유로지역 산업생산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산업생산 선행지수는 모든 지역에서 하락함으로써 3/4분기 유로지역 산업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유로지역 산업생산은 독일과 동유럽 국가의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0.1% 증가함.

- 독일(0.3%)과 동유럽(0.8%) 국가를 제외하고, 프랑스(-0.5%), 영국(-1.6%), 북유럽 국가(-0.4%), 남유럽 국가(-0.1%)의 산업생산은 전분기대비 감소함.

○ 유로지역 제조업기대지수는 -3.6을 기록하여 전분기(2.1)보다 크게 하락함.

- 남유럽 국가들을 비롯하여 주요국과 북유럽 국가들의 제조업기대지수 역시 전분기대비 하락함.

- 남유럽국가: 이탈리아(2.0 → -6.3), 스페인(-3.7 → -6.2); 주요국: 독일(5.6 → -2.1), 프랑스(-1.4 → -5.5), 영국(13.2 → 5.4); 북유럽국가: 덴마크(13.7 → 5.0), 핀란드(5.8 → 0.5)

〈고용과 물가〉

■ 2/4분기 고용여건은 지역에 관계없이 실업률이 대체적으로 정체 또는 상승하는 한편 취업자 수 증가도 정체됨으로써 전분기보다 악화됨.

○ 유로지역 평균 실업률은 11.2%로 전분기보다 0.3%p 상승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전분기와 동일함.

○ 독일과 영국의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하락하였으나, 프랑스의 실업률이 상승하여 주요국의 실업률은 전분기와 같은 7.9%를 기록함.

- 주요국(7.9% → 7.9%): 독일(5.6% → 5.5%), 프랑스(10.0% → 10.1%), 영국(8.2% → 8.1%)

○ 동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반면, 북유럽 및 남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상승함.

- 동유럽(10.0% → 10.0%): 폴란드(10.0% → 10.0%), 루마니아(7.2% → 7.2%), 슬로베니아(8.2% → 8.2%), 슬로바키아(13.7% → 13.7%), 헝가리(11.1% → 11.0%)
- 북유럽(6.4% → 6.5%): 스웨덴(7.5% → 7.6%), 노르웨이(3.2% → 3.0%), 덴마크(7.6% → 7.9%), 핀란드(7.5% → 7.6%)
- 남유럽(17.6% → 18.6%): 스페인(23.8% → 24.7%), 이탈리아(10.0% → 10.6%), 그리스(21.7% → 23.5%), 포르투갈(14.8% → 15.5%)

■ 2012년 2/4분기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 전분기보다 낮아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유로지역 전역에 걸쳐 나타남.

○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2%p 하락함.

-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에너지가격 상승률은 6.7%를 기록하여 전분기보다 2.7%p 하락하였으며,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 기록하여 전분기보다 0.1%p 높아짐.

○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 지역에서 전분기보다 하락함.

- 주요국(2.8% → 2.4%), 북유럽(1.8% → 1.5%), 동유럽(3.8% → 3.5%), 남유럽(2.6% → 2.4%)

〈표 7〉 유럽 주요국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0	2011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2/4
독일 GDP	3.7	3.0	2.2	0.7	0.6	1.2	0.5	0.4	-0.1	0.5	0.3
민간소비	0.6	1.4	0.8	0.3	0.7	0.7	-0.5	1.3	-0.3	0.1	0.4
고정자본	5.5	6.4	5.7	1.6	-0.2	4.2	0.2	0.4	0.8	-0.9	-0.9
수출	13.7	8.2	7.0	2.0	1.0	2.7	0.5	2.1	-0.5	1.2	2.5
수입	11.7	7.8	6.2	0.9	1.3	2.3	2.2	1.7	-0.4	-0.2	2.1
프랑스 GDP	1.4	1.7	0.5	0.4	0.3	0.9	-0.1	0.3	0.0	0.0	0.0
민간소비	1.3	0.3	0.0	0.7	0.4	0.2	-1.0	0.2	0.0	0.2	-0.2
고정자본	-1.4	2.9	1.2	0.9	0.3	1.1	0.6	0.3	1.3	-0.8	0.6
수출	9.3	5.0	3.1	2.2	0.4	1.4	0.7	1.6	1.2	0.1	0.2
수입	8.3	5.0	3.3	3.8	0.2	2.8	-1.0	0.5	-1.6	0.6	1.8
이탈리아 GDP	1.5	0.5	0.7	0.4	0.2	0.1	0.3	-0.2	-0.7	-0.8	-0.8
민간소비	1.2	0.2	-0.1	0.8	0.3	0.2	-0.1	-0.5	-1.0	-1.1	-1.3
고정자본	1.7	-1.2	0.4	0.5	-1.3	0.8	-0.1	-1.3	-2.7	-3.6	-2.3
수출	11.4	6.3	3.8	2.3	3.0	0.6	0.5	1.9	-0.1	-0.5	0.3
수입	12.4	1.0	3.2	2.0	5.0	-1.7	-1.5	-1.5	-2.8	-3.8	-0.6
스페인 GDP	-0.1	0.7	0.2	-0.1	0.1	0.3	0.2	0.0	-0.5	-0.3	-0.4
민간소비	0.8	-0.1	0.9	-1.2	1.1	-0.7	-0.2	-0.6	-1.0	0.4	-0.9
고정자본	-6.3	-5.1	-2.3	-1.5	-1.3	-1.0	-1.2	-0.7	-3.3	-2.7	-3.0
수출	13.5	9.1	4.2	3.0	1.8	1.0	1.2	3.5	0.1	-1.8	1.6
수입	9.0	-0.1	4.1	0.3	1.1	-1.0	-2.0	0.8	-2.8	-2.0	-1.5
영국 GDP	1.4	0.8	1.1	0.7	-0.5	0.2	-0.1	0.6	-0.4	-0.3	-0.5
민간소비	0.8	-0.8	0.9	-0.2	0.3	-0.8	-0.6	-0.7	0.5	-0.1	-0.4
고정자본	3.0	-1.7	-2.7	2.8	-1.7	-0.8	-0.1	0.6	-0.6	1.9	-3.2
수출	5.3	4.8	4.0	0.9	3.3	1.7	-3.0	0.7	3.1	-1.7	-1.7
수입	8.5	0.6	2.9	2.1	1.5	-2.2	-0.8	0.2	1.6	-0.3	1.4

자료: 유럽중앙은행, 독일통계청, 프랑스통계청, 이탈리아통계청, 스페인통계청, 영국통계청

다. 일본경제

2012년 2/4분기 일본경제는 대지진 피해 복구 관련 주택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세계경기 둔화와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대외부문과 생산부문이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세가 둔화됨.

〈최근 동향 및 전망〉

■ 2012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대지진 피해 복구[11] 관련 투자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둔화 인해 전분기대비 0.2% 상승에 그침.

○ 민간소비 지출은 정부의 소비진작 효과 소진과 체감경기 개선 지연으로 전분기대비 0.1% 증가에 그침.

- 일본은행은 소비진작 효과가 1/4분기에 집중되었고 2/4분기에는 소진된 것으로 분석함.

○ 설비투자 지출은 중소기업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1.4% 증가하였고 주택 투자 지출은 대지진 피해 복구가 본격화되면서 전분기대비 0.9% 증가함.

○ 정부투자 지출은 지진 피해 사회간접자본을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1.8% 증가함.

○ 수출은 엔화 안정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로 전분기대비 1.2% 증가에 그쳤으며, 수입은 자본재와 화력발전 연료 수입 증가로 전분기대비 1.6% 증가함.

〈표 8〉 일본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0	2011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2/4
실질 GDP	4.4	-0.7	1.5	0.7	0.0	-2.0	-0.3	1.7	0.1	1.3	0.2
민간소비	2.6	0.1	0.3	0.4	0.2	-1.5	0.6	1.1	0.7	1.3	0.1
설비투자	0.5	1.1	4.7	1.1	-1.6	-0.1	-0.9	0.3	5.5	-1.6	1.4
주택투자	-4.2	5.4	0.9	0.2	4.7	1.7	-3.0	4.8	0.1	-1.6	0.9
정부지출	2.1	1.9	1.6	0.4	0.4	0.3	0.6	0.2	0.4	1.1	0.2
정부투자	0.4	-3.6	-6.5	1.0	-2.2	-4.4	7.4	-1.1	-1.0	3.6	1.8
수출	24.2	-0.1	6.2	1.1	-0.2	-0.4	-5.8	7.8	-3.6	3.4	1.2
수입	11.1	5.9	5.7	2.0	0.4	1.5	0.0	3.4	1.0	2.2	1.6

자료: 일본 내각부(2012. 9)

11) 19조 엔(2,40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대지진 피해 재건 프로그램.

■ 일본중앙은행(BOJ)은 지진피해 복구 관련 투자지출 증가가 지속되고 소비진작을 통한 민간소비 지출이 연착륙된다고 하더라도 수출 회복 지연으로 하반기에도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12)]

○ 일본은행은 기업수익 증가에 따른 고용 증대,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 증가,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에 힘입어 민간소비 지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BOJ는 종전(5월) 전망에서 하반기 세계경제 회복을 전제로 경제성장률이 FY2012년 2.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OECD는 2012년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13)]

〈내수부문〉

■ 2012년 2/4분기 소비부문은 소매판매가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하고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진작 효과가 소진되면서 전분기대비 정체된 모습을 보임.

○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로는 기저효과에 의해 3.1% 증가하였으나 전분기대비로는 0.5% 감소하였고 특히, 자동차판매는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효과가 소진되면서 전분기대비 0.8% 증가에 그침.

○ 소비자신뢰지수는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체감경기 개선이 지연되어 40.4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5~2007년 소비자신뢰지수 평균 46.7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 2012년 2/4분기 투자부문은 민간기계수주액이 감소하였으나 주택착공이 증가하면서 다소 혼조된 모습을 보임.

○ 1/4분기 4.6% 증가하였던 민간기계수주액[14)]은 대기업의 민간기계수주액 감소 영향으로 2/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함.

○ 1/4분기에 3.8% 증가하였던 주택착공호수는 대지진 피해 복구가 본격화 되면서 2/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함.

---

12) Bank of Japan(2012. 9)은 “Minutes of the Monetary Policy Meeting”에서 구체적인 전망치 없이 저성장세만 언급함.

13) OECD(2012. 9), “An interim global economic outlook”.

14) 선박 · 전력을 제외함.

〈표 9〉 일본의 주요 내수부문 경제지표

구분	2011	2010	2011				2012			
	연간	4/4	1/4	2/4	3/4	4/4	1/4	2/4	6월	7월
소매판매 증가율[1](%)	-0.3	0.8	-0.8	-1.7	-1.0	0.8	5.2	3.1	0.2	-0.8
소비자신뢰지수[2]	37.7	41.0	40.5	34.4	37.3	38.5	40.0	40.4	40.4	39.7
주택착공호수 증가율[3](%)	2.7	6.9	3.5	4.2	8.1	-4.5	3.8	6.5	-0.2	-9.6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4](%)	7.1	6.6	6.9	9.0	5.2	7.4	4.6	-2.4	-8.8	-1.9

주: 1) 전년동기대비, 2) 기준치=50, 3) 전년동기대비, 4) 변동성이 큰 선박 · 전력 제외,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생산부문〉

■ 2012년 2/4분기 광공업 생산은 대내외 수요 감소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감소함.

○ 광공업생산지수는 1/4분기에 재고조정을 거치면서 상승하였으나 2/4분기에는 주택건설 자재를 제외한 자동차, 기계류, 전자제품 생산이 대내외 수요 감소로 위축되면서 전분기대비 2.0% 하락함.

○ 가동률지수 역시 대내외 수요 감소로 전분기대비 2.6% 하락함.

〈표 10〉 일본의 주요 생산부문 경제지표

구분	2011	2010	2011				2012			
	연간	4/4	1/4	2/4	3/4	4/4	1/4	2/4	6월	7월
광공업생산 증가율[1](%)	-3.5	-0.1	-1.5	-4.2	5.4	0.4	1.2	-2.0	-1.1	-1.3
- 가동률지수 증가율[1](%)	-3.9	0.0	-2.8	-7.1	9.7	2.0	3.2	-2.6	-1.7	2.3
- 재고율지수 증가율[1](%)	6.4	2.1	-3.0	12.4	-3.8	-1.3	-1.7	7.7	-1.4	1.4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고용과 물가〉

■ 2012년 2/4분기 고용여건은 취업자 수 감소를 제외하고는 비자발적 실업자 감소, 실업률 하락, 취업비율 상승이 나타나 대체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임.

○ 실업률은 4.4%로 전분기대비 0.1%p 하락하였는데 비자발적 실업자는 전분기(10만 5천명)보다 1천 600명이 감소한 반면 비농업취업자는 전분기보다 2만 5,000명 감소함.

○ 고용시장 수급관계를 나타내는 구직자 취업비율[15]은 1/4분기 0.75%에서 0.81%로 개선됨.

■ 2012년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률 둔화로 인해 전분기보다 하락함.

○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은 2/4분기에 각각 전년동기대비 0.6%, 3.7% 상승에 그쳐 전분기보다 상승률이 각각 0.6%p%, 1.8%p 하락함.

○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수요는 아직 저조하여 1/4분기 근원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5% 하락함.

〈표 1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1	2010	2011				2012			
	연간	4/4	1/4	2/4	3/4	4/4	1/4	2/4	6월	7월
실업률(%)	4.6	5.0	4.8	4.7	4.4	4.5	4.5	4.4	4.3	4.3
비자발적 실업자(만 명)[1)]	112.8	128.7	119.7	114.0	108.7	109.0	105.3	103.7	103.0	98.0
비농업취업자 증감[2)](만 명)	2.3	-3.7	16.0	-36.3	-8.0	30.7	25.7	-25.7	28.0	4.0
소비자물가 상승률[3)](%)	-0.3	0.1	-0.5	-0.4	0.1	-0.3	0.3	0.1	-0.2	-0.4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3)](%)	-1.0	-0.8	-1.3	-0.9	-0.5	-1.1	-0.7	-0.5	-0.6	-0.6

주: 1) 연간화 통계, 2) 계절조정, 전분기(월)대비 증감, 3) 2010=100,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15) 내각부.

라. 중국경제

> 2012년 2/4분기 중국경제는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둔화로 인한 대외부문 약화, 그리고 소비와 투자 지출이 둔화되면서 7%대 성장률을 기록함.

〈최근 동향 및 전망〉

■ 2012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소비와 투자의 동반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7.6%를 기록하여 13분기 만에 최저 수준에 도달함.

○ 고정투자 증가율은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0.4%를, 소매판매 증가율도 전년동기대비 13.9%를 기록하는 등 전년동기에 비해 하락함.

○ 수출은 미국 수출이 다소 안정 되면서 두 자리 수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나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둔화 되었고, 수입은 내수 부문 수요 둔화로 증가율이 6.5%로 크게 낮아짐.

〈표 12〉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1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2/4	6월	7월
실질 GDP(%)[1]	9.2	2.2 (9.7)	2.4 (9.5)	2.3 (9.1)	1.9 (8.9)	1.6 (8.1)	1.8 (7.6)	-	-
고정자산투자[2](%)	23.8	25.0	25.6	24.9	23.8	20.9	20.4	20.4	20.4
수출 증가율(%)	20.7	25.3	22.4	20.7	14.4	8.9	10.5	11.3	1.0
수입 증가율(%)	25.3	32.6	23.2	24.7	20.9	9.9	6.5	6.3	4.7

주: 1) 전분기대비, 괄호는 전년동기대비, 2) 전년동기 누계 대비, 도시지역 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IMF는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대내외 부문 부진으로 중국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함.

○ IMF는 2012년 성장률 전망치를 2012. 4월의 8.2%에서 8.0%로 낮추고, 2013년 성장률을 종전의 8.8%에서 8.5%로 하향 조정함.[16]

○ 대다수 전문가들은 하반기 통화 · 재정 확대 정책 효과가 발휘되면서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3/4분기에도 경기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됨.17)

■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 · 통화정책을 실시함.

○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예금 및 대출 금리를 인하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6월에 도입하였고 철도 및 도로 건설 등 인프라 확대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조기 실시하기로 결정함.

〈내수부문〉

■ 2012년 2/4분기 소매판매는 소득수준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체감경기 후퇴 영향으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2/4분기 도시 및 농촌의 가계소득은 임금인상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각각 13.3%, 16.1% 증가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3.9%를 기록하여 전분기 14.9%보다 1.0%p 하락함.

- 특히 자동차, 석유 및 관련제품, 통신장비에 대한 판매 증가율이 하락함.

○ 2/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102.2를 기록하여 전분기 103.0보다 악화됨.

〈표 13〉 중국의 주요 내수관련 지표

구분	2011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2/4	6월	7월
소매판매 증가율(%)	17.1	16.3	17.2	17.3	17.5	14.9	13.9	13.7	13.1
소비자신뢰지수	103.8	102.4	106.8	104.7	99.3	103.0	102.2	99.3	98.2
기업체감경기지수	130.6	138.9	132.4	130.0	120.9	123.0	121.2	-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16) IMF(2012. 7),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17) Li & Fung Research Center(2012. 9).

■ 2012년 2/4분기 주택착공투자는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에 힘입어 증가율이 하락하였으며, 주택 가격과 거래도 전분기보다 하락 또는 감소함.

○ 2/4분기 부동산 관련 고정투자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6.6%로 전분기보다 6.9%p 낮아짐.

○ 2012년 1/4분기 상업용 주택가격은 주요 70개 도시 중 38개 도시에서 전분기대비 하락한 반면, 2/4분기 상업용 주택가격은 57개 도시에서 전분기대비 하락함.

○ 2012년 2/4분기 상업용 주택거래 역시 전분기대비 3.6% 감소함.

〈생산부문〉

■ 2012년 2/4분기 산업생산은 대내외 수요 감소, 경기과열 방지정책의 누적 효과, 신용 긴축, 임금 상승, 친환경 유지비 상승으로 전분기대비 둔화됨.

○ 2/4분기 산업생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4분기보다 2.1%p 하락한 9.5%를 기록함.

■ 2012년 2/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18]는 전분기보다 하락함으로써 산업생산 증가 둔화가 3/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4분기 PMI(51.3)는 기업체감경기 악화로 국내 신규주문, 수출주문, 부품구매, 고용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세가 위축되면서 전분기보다 0.2p 하락함.

〈표 14〉 중국의 주요 생산관련 지표

구분	2011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2/4	6월	7월
산업생산 증가율(%)	13.8	14.9	13.9	13.8	12.8	11.6	9.5	9.5	9.2
구매자관리지수[1]	51.3	52.8	51.9	50.9	49.9	51.5	51.3	50.2	50.1

주: 전년동기대비, 1) 기준=50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18)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물가〉

■ 2012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소비수요 둔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 공공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주거비 하락으로 상승세가 둔화됨.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식료품가격, 주거비, 교통·통신비 하락으로 전분기(3.8%) 보다 둔화된 2.9%를 기록함.

- 식료품가격(8.1% → 5.7%), 주거비(2.0% → 1.7%), 교통·통신비(0.2% → -0.1%) 등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하락함.[19)]

■ 2012년 2/4분기 생산자물가는 에너지가격 및 원자재가격 하락과 수요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4% 하락함.

○ 에너지가격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전분기 4.8%에서 0.0%로 크게 하락하였고 원자재가격 상승률 역시 전분기 -1.9%에서 -4.9%로 낮아짐.

〈표 15〉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구분	2011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2/4	6월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	5.1	5.7	6.3	4.6	3.8	2.9	2.2	1.8
생산자물가 상승률(%)	6.0	7.0	6.9	7.1	3.1	0.1	-1.4	-2.1	-2.9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19) 중국 국가통계국.

2. 국내경제

〈성장 및 내수〉

> 2012년 2/4분기 실질GDP는 전년동기대비 2.3% 성장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감소하는 등 내수부진 속에서 수출증가세가 위축되었기 때문임.

■ 2012년 2/4분기 실질GDP는 민간소비와 수출증가율 둔화가 지속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3% 성장에 그침.

- ○ 민간소비는 주택경기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가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1/4분기보다 0.5%p 하락한 1.1% 증가율을 기록함.
- ○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수장비 투자가 모두 저조함에 따라 3.5% 감소하였으며, 건설투자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건물 및 토목건설이 모두 축소되어 2.1% 감소하였음.
- ○ 재화수출은 금속제품, 반도체를 중심으로 2.1%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1/4분기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화수입은 철강, 일반기계 등이 감소함에 따라 0.1% 감소하여 수출과 수입 모두 1/4분기에 비해 부진하였음.

〈표 16〉 실질 GDP와 지출 항목별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실질 GDP	6.3	4.2 (1.3)	3.5 (0.8)	3.6 (0.8)	3.3 (0.3)	3.6	2.8 (0.9)	2.3 (0.3)
- 민간소비	4.4	2.9	3.0	2.1	1.1	2.3	1.6	1.1
- 설비투자	25.7	10.3	7.7	1.2	-3.3	3.7	8.6	-3.5
- 건설투자	-3.7	-11.0	-4.2	-4.0	-2.1	-5.0	1.5	-2.1
- 재화수출 3)	16.0	18.6	10.9	10.3	3.8	10.5	4.0	2.1
- 재화수입 3)	18.4	13.8	10.0	8.0	3.5	8.7	4.6	-0.1

주: 1) 2000년 가격기준에서 2005년 연쇄가격 기준으로 전환됨
2) ( )는 계절조정이 반영된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3)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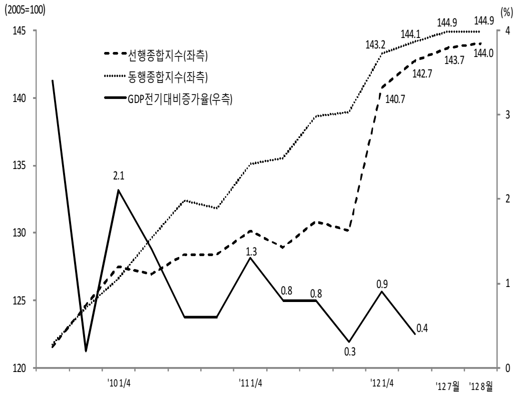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 2012년 8월 경기동행지수는 전월과 동일하였고,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조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에 비하여 모두 하락하였음.

○ 경기동행지수는 비농림어업취업자 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하고 내수 · 출하,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감소하여 전월과 동일하였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p 하락한 98.6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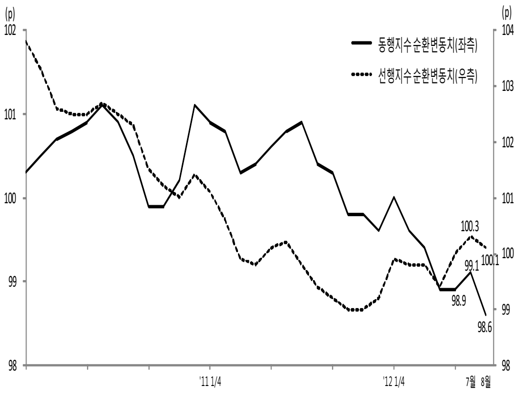
○ 8월 경기선행지수는 소비자기대지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은 감소하였으나 재고순환지표, 코스피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2% 상승한 144.0을 기록하였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p 하락한 100.1로 나타났음.

〈그림 6〉 GDP와 경기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그림 7〉 경기종합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2년 8월 소매판매지수는 준내구재와 비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함.

○ 승용차, 컴퓨터 · 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는 2/4분기동안 전년동기대비 2.2% 늘어났으나 7월에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 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7.3% 증가하였고 8월에는 3.5%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자동차업계 파업의 영향[20]으로 승용차판매가 11.9% 감소하였기 때문임.

20)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자동차업계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은 2012년 7월 27,300대, 8월 약 116,000대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8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1.8% 내외 하락한 것으로 추산됨. 자동차업계 파업은 소매판매(승용차판매), 서비스업 생산(도소매업), 설비투자(운송장비)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음(7월 → 8월(전월비, %): 승용차판매 3.0 → -13.5, 도소매업 생산 2.3 → -1.9, 운송장비투자 -5.9 → -33.2).

○ 의복 및 오락 · 취미 · 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2/4분기 전년동기대비 0.4% 늘어났고, 7월에는 신발 · 가방, 오락 · 취미 · 경기용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1.2% 증가하였으나 8월에는 소비위축이 심화되면서 4.2% 감소하였음.

○ 음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2/4분기 1.1% 증가하였으며 7월에는 음식료품, 화장품 등이 증가한 반면 서적 · 문구 등이 감소하여 0.5% 증가하는데 그쳤고 8월에는 0.9% 감소하였음.

〈표 17〉 소비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소매판매	5.1	5.7	4.4	1.5	4.1	2.0	1.0	2.7	-0.3
- 내구재	12.9	17.5	10.4	3.0	10.7	3.6	2.2	7.3	3.5
* 승용차	10.2	13.0	8.3	-7.7	5.5	-7.4	0.1	1.5	-11.9
- 준내구재	6.1	5.6	4.0	2.2	4.4	0.7	0.4	1.2	-4.2
- 비내구재	0.8	-0.4	2.0	1.4	1.0	2.3	1.1	0.5	-0.9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2년 2/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하였고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1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7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 등이 증가하여 1.3%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8월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모두에서 투자가 급감하여 14.3% 감소하였음.

- 설비투자가 급감한 이유는 유럽재정위기의 여파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설비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되었기 때문임.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2012년 2/4분기 공공부문의 공공운수업과 민간부문의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등에서 발주가 감소하면서 18.5% 감소하였음.

- 7월에는 6.8% 감소하는데 그쳤으며, 8월에는 16.1% 감소하였음.

〈표 18〉 투자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설비투자지수	6.6	4.8	-3.5	-11.4	-3.7	9.3	-0.4	1.3	-14.3
- 기계류	6.8	7.0	-3.5	-10.7	-4.7	11.8	-1.4	1.4	-12.0
- 운송장비	5.6	-5.7	-3.2	-14.5	0.8	-2.9	4.8	0.9	-26.5
국내기계수주	20.9	11.5	13.1	17.7	36.2	-2.4	-18.5	-6.8	-16.1
건설투자	-11.9	-6.8	-4.6	-4.0	-6.5	1.5	-1.4	-	-
- 건설기성	-12.6	-6.6	-8.4	-0.5	-6.7	-3.7	-10.8	0.2	-7.3
건축	-15.1	-8.4	-8.0	-2.8	-8.4	-1.1	-13.1	-1.6	-10.6
토목	-9.2	-4.2	-8.8	2.2	-4.5	-6.9	-7.9	2.9	-2.8
- 국내건설수주	-11.8	-1.7	1.5	22.4	4.0	36.6	0.8	23.9	-29.9
건축	-7.7	-2.5	9.8	40.6	10.9	31.3	-4.3	57.3	-22.0
토목	-17.2	0.1	-11.0	-1.1	-6.6	44.5	11.5	-4.7	-49.4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2년 2/4분기 건설기성은 건축 및 토목공사 모두 감소폭이 커져 10.8% 감소하였으며 국내건설수주는 0.8% 증가하는데 그침.

○ 2012년 7월 건설기성은 토목공사가 2.9% 증가한 반면 건축공사가 1.6% 감소하여 0.2% 증가하였으며 8월에는 건축 및 토목 공사 모두 감소하면서 7.3% 감소하였음.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2/4분기 0.8%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1/4분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음.

- 7월에는 건축이 57.3% 증가하였으나 토목이 4.7% 감소하여 23.9% 증가하였으며 8월에는 건축 및 토목 모두 감소하면서 29.9% 감소하였음.

〈대외거래〉

■ 2012년 8월 수출(확정치)은 전년동월대비 6.2% 감소한 430억 달러, 수입은 9.7% 감소한 41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흑자로 나타났음.

○ 수출은 지속적인 세계 경제침체로 원료 및 연료(−6.9%) 및 중화학 공업품(−6.8%)의 수출이 감소하였고, 경공업제품(1.4%)과 식료 및 직접소비재(1.8%)는 다소 증가하였음.

○ 수입은 내수 소비 및 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비재(−8.6%), 원자재(−5.1%) 및 자본재(−19.4%) 등이 모두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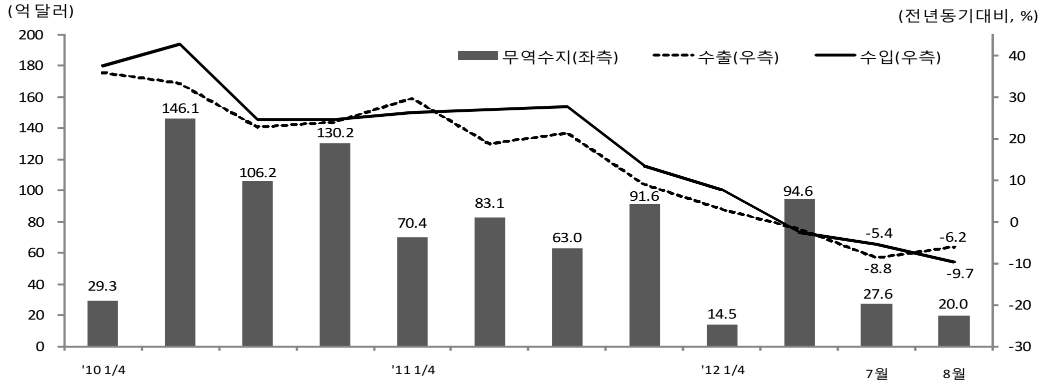
〈표 19〉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28.8	37.5	25.1	11.2	24.5	14.2	1.8	8.3	1.8
	원료 및 연료	64.8	73.5	66.1	40.2	60.2	23.4	-6.8	-12.1	-6.9
	경공업 제품	20.4	17.2	28.7	11.7	19.2	10.2	3.2	4.6	1.4
	중화학 공업품	27.5	14.1	15.5	6.3	15.2	-0.2	-2.1	-9.8	-6.8
	전 체	29.9	19.4	20.8	9.7	19.3	3.0	-1.7	-8.8	-6.2
수입	소비재	28.9	28.1	32.4	14.6	25.6	6.3	-1.8	-0.0	-8.6
	원자재	31.7	35.6	38.2	21.0	31.4	8.9	-0.8	-6.3	-5.1
	자본재	12.9	12.6	8.4	-0.7	7.9	4.8	-6.9	-5.5	-19.4
	전 체	26.3	27.1	27.7	13.4	23.3	7.6	-2.6	-5.4	-9.7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그림 8〉 대외거래지표 추이



자료: 관세청(통관 기준)

■ 2012년 8월 지역별 수출입은 EU, 중동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중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소하였음.

○ EU(3.2%)지역에 대한 수출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중동지역 수출(18.5%) 증가세는 지속된 반면, 미국(-2.8%), 일본(-7.4%) 및 중국(-4.8%)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음.

○ 중동(1.4%)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미국(-26.4%), 중국(-13.5%), 일본(-15.9%)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표 20〉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8월	증감률	1~8월	증감률	8월	증감률	1~8월	증감률
미 국	42.0	-2.8	395.5	7.5	32.3	-26.4	301.9	-0.0
일 본	31.7	-7.4	259.0	0.5	51.0	-15.9	430.8	-6.7
E U	43.3	3.2	338.4	-13.3	40.0	-2.9	332.3	5.3
동남아	96.1	-6.3	819.3	1.9	55.0	-6.5	455.6	-1.8
중 동	25.9	18.5	245.1	17.0	97.5	1.4	851.8	10.5
중 국	110.6	-4.8	856.7	-2.4	65.4	-13.5	536.5	-7.2
중남미	29.8	-6.2	253.9	-4.5	16.8	-1.6	131.7	-4.4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산업생산〉

■ 2012년 2/4분기 광공업 생산은 1.5%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 운수업 등에서 증가하여 1.7% 늘어남.

○ 2012년 2/4분기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1.5%), 자동차(4.8%), ICT(2.5%) 모두 증가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서 증가세는 둔화되었고, 7월과 8월에 각각 0.3%씩 증가하는데 그쳤음.

- 이는 수출 감소, 자동차업계 파업 등이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 2012년 2/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1.8%), 운수업(0.7%) 등이 상대적인 호조를 보였음.

- 7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기에 비해 1.5% 증가하였으나 8월에는 0.6% 증가하는데 그침.

〈표 21〉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광공업	10.4	7.2	5.3	5.0	6.9	3.8	1.5	0.3	0.3
- 제조업	10.6	7.3	5.3	5.3	7.0	4.2	1.5	0.3	0.3
- 자동차	15.5	11.9	16.0	12.6	13.8	10.5	4.8	-6.2	-19.4
- ICT	13.8	9.9	4.5	12.4	10.0	6.4	2.5	0.6	8.0
서비스업	2.8	3.2	4.5	2.7	3.3	2.5	1.7	1.5	0.6
- 도매 및 소매업	4.2	5.0	3.6	2.8	3.8	2.0	0.2	1.8	-0.5
- 운수업	7.2	3.5	4.2	0.9	3.9	0.3	0.7	-1.0	0.0
- 숙박 및 음식점업	-1.2	0.5	0.1	-1.3	-0.5	-0.8	0.2	-0.2	1.6
- 금융 및 보험업	7.0	7.1	9.1	5.9	7.3	5.1	1.8	1.9	-0.6
- 부동산 및 임대업	-19.7	-10.8	-1.3	-6.0	-10.2	-8.1	-4.7	-3.8	-2.9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물가 및 고용〉

2012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2.4% 상승하였으며, 고용시장에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한편, 2012년 2/4분기 가계소득, 소비지출, 가계흑자액 모두 전년동기에 비해 늘어남.

■ 2012년 2/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분기(3.0%)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2.4%를 기록하였음.

○ 전년동기대비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농축수산물은 5.8%, 공업제품은 3.5%, 전기·수도·가스는 4.6%, 집세는 4.5%, 공공서비스는 0.7%, 개인서비스는 0.6%로 나타남.

■ 2012년 2/4분기 소비자기대지수는 물가상승률 둔화 등으로 전분기보다 10.2p높아진 104.2로 나타났음.

〈표 22〉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소비심리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소비자기대지수(p)[1)]	105.0	101.9	95.9	95.5	99.6	94.0	104.2	95.9	92.4
소비자물가지수	3.8	4.0	4.3	4.0	4.0	3.0	2.4	1.6	1.3
〈품목성질별 물가지수〉									
상품	5.7	5.4	6.1	5.4	5.7	4.1	4.0	2.0	1.7
- 농축수산물	16.0	9.1	9.5	2.8	9.2	2.3	5.8	1.6	-1.9
- 공업제품	3.8	4.6	5.5	5.8	4.9	4.3	3.5	1.5	1.8
- 전기 · 수도 · 가스	3.2	4.4	4.6	6.8	4.8	5.7	4.6	6.5	6.5
서비스	2.3	2.8	2.9	2.7	2.7	2.2	1.3	1.1	1.1
- 집세	2.7	3.7	4.4	5.0	4.0	5.0	4.5	4.4	4.2
- 공공서비스	0.1	-0.4	-0.5	-1.0	-0.4	-0.2	0.7	0.3	0.3
- 개인서비스	3.2	3.9	3.9	3.8	3.7	2.4	0.6	0.6	0.7

주: 1) 소비자 기대 및 평가지수가 2008년 8월까지 통계청에서 작성된 후 2008년 9월부터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지수로 개편되었으나, 자료의 연속성을 위해 '85.0/77.0 × 향후경기전망CSI(Consumer Sentiment Index)'로 산출함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 2012년 2/4분기 취업자 수는 지난해부터 1/4분기까지 이어진 고용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하였으나 실업률 또한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개선되었음.

○ 2012년 2/4분기 총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였고, 2012년 7월과 8월에는 각각 1.9%, 2.0%씩 증가함.

- 청년 취업자 수는 2/4분기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0.7%, 2.1%씩 감소하며 감소폭이 커지고 있음.

○ 2012년 2/4분기 고용률은 60.2%, 7월 60.3%, 8월 59.7%로 8월에 소폭 감소하였으나, 실업률은 같은 기간 3.3%, 7월 3.1%, 8월 3.0%를 보이면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음.

- 청년실업률은 2012년 2/4분기에 8.1%를 나타낸 후 2012년 7월 7.3%, 8월 6.4%를 기록하였음.

■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SOC 및 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음.

○ 2012년 2/4분기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하였으며, 2012년 7월 0.8% 증가하였으나 8월 1.1% 감소세로 전환하였음.

○ 2012년 2/4분기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6% 줄어들었으나, 2012년 7월 0.9%, 8월 2.0% 증가세를 보였음.

○ SOC 및 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2012년 2/4분기에 이어 7월과 8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음.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등 공공주택 수주 증가로 2012년 2/4분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전분기에 비해 3.0%p 감소하였고 7월에도 1.5% 증가하며 증가세 둔화를 이어가다 8월에는 상반기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 감소하였음.

〈표 23〉 고용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총취업자	1.8	1.7	1.5	2.0	1.7	2.0	1.8	1.9	2.0
- 청년취업자	-1.2	-1.9	0.0	-0.5	-0.9	0.1	-0.2	-0.7	-2.1
고용률	57.4	59.9	59.5	59.4	59.1	57.8	60.2	60.3	59.7
실업률	4.2	3.4	3.1	2.9	3.7	3.8	3.3	3.1	3.0
- 청년실업률	8.8	7.9	6.7	7.1	7.6	8.2	8.1	7.3	6.4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2.3	0.2	-2.9	-1.5	-1.6	-2.6	-1.4	0.8	-1.1
광공업	5.8	2.7	-0.5	-2.0	1.5	-2.7	-1.6	0.9	2.0
- 제조업	5.8	2.8	-0.3	-1.8	1.6	-2.5	-1.6	0.8	2.0
SOC 및 기타서비스업	1.2	1.6	2.4	3.2	2.1	3.4	2.8	2.2	1.6
- 건설업	-0.2	-2.3	-2.0	4.0	-0.1	4.9	1.9	1.5	-2.0
- 도소매음식숙박	-1.1	-0.1	1.0	1.8	0.4	1.8	2.6	1.0	2.2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1.6	3.6	6.6	5.5	4.3	4.5	2.0	0.7	-1.4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3.0	2.8	2.8	3.1	2.9	3.7	3.4	3.7	3.1

주: 1)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로 정의됨
2) 청년은 15~29세 기준임
3) SOC는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2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며,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도 늘어남.

○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94만 2,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하였으며, 실질소득도 3.7% 늘어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38만 6,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하였으며, 실질소비지출도 1.1% 증가하였음.

○ 2012년 2/4분기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21만 9,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하였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도 83만 3,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5% 늘어남.

- 2/4분기 평균소비성향이 74.1%로 전년동기보다 2.4%p 하락하면서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25.9%로 전년동기대비 2.4%p 상승함.

〈표 24〉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p)

구분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가구당 월평균 소득(만 원)	385.8	371.4	389.8	388.3	384.2	412.4	394.2
- 증가율	4.6	5.2	6.3	7.2	5.8	6.9	6.2
- 실질소득 증가율	0.2	0.9	1.5	3.3	1.9	3.8	3.7
처분가능소득(만 원)	312.1	301.3	315.1	318.0	311.9	333.3	321.9
- 증가율	2.9	4.4	6.3	7.2	5.5	6.8	6.8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만 원)	243.9	230.4	244.4	238.0	239.3	256.8	238.6
- 증가율	5.2	5.1	5.8	3.9	5.0	5.3	3.6
- 실질소비지출 증가율	1.4	1.7	2.0	-0.1	1.0	2.2	1.1
흑자액(만 원)	68.2	70.9	70.8	80.1	72.7	76.5	83.3
- 증가율	-1.9	4.6	7.7	21.7	8.3	12.2	17.5
평균소비성향	78.2	76.5	77.5	74.8	76.7	77.0	74.1
흑자율	21.8	23.5	22.5	25.2	23.3	23.0	25.9

주: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
흑자율 =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3. 금융경제

〈금리〉

> 2012년 3/4분기 국고채 금리는 7월 중 기준금리 인하로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음. 회사채 금리 역시 전분기대비 하락하며 국고채와의 스프레드를 줄여나갔음. 기준금리는 3.0%로 동결되었음.

■ 기준금리는 7월 중 25bp 인하된 이후 3.0%로 동결 유지되고 있음.

○ 금융통화위원회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속도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물가상승률이 국제유가의 안정세로 양호하게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금리를 3.0% 유지한다고 밝힘.

○ 이는 금리인하의 추가적인 효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섣부른 인하보다 차후의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국고채(3년)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및 경기둔화 우려로 전분기 3.30%에서 2.84%로 46bp 하락하였음.

○ 국고채 금리는 7월 초 주요국 금리인하 및 기준금리 인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전분기에 이어 하락세를 유지하였으나, 8월 이후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증시 강세와 국내 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하락폭이 다소 완화되었음.

○ 특히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9월 초 사상 최저치(9/5일 2.74%)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국채선물 반발매도세 유입과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이 결정되면서 소폭 상승하였음.

■ 양도성 예금증서(91일) 금리는 분기 초 기준금리 인하로 큰 폭으로 하락한 뒤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며 국고채(3년) 금리와의 스프레드를 늘려나간 반면 회사채(AA-, 3년) 금리는 전분기에 비해 국고채와의 스프레드를 줄여 나갔음.

○ 양도성 예금증서(91일)는 기준금리 인하와 장기금리 하락, MMF 수신 증가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기준금리와의 격차축소에 따른 가격부담으로 제한적인 하락폭을 나타내었음(2/4분기 3.54% → 3/4분기 3.12%).

○ 국고채 금리(3년)가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양도성 예금금리-국고채' 간 스프레드는 전분기 말 24bp에서 28bp로 확대되었으며, 분기 평잔 기준으로도 15bp에서 34bp로 국고채와의 스프레드 폭을 확대시켜나갔음.

○ 회사채는 장기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발행여건 개선으로 우량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조선 · 건설업체의 발행 확대 등으로 분기 중 순유입이 지속되며 '회사채-국고채'간 스프레드는 57bp에서 50bp로 축소되었음.

〈표 25〉 금리 추이

(단위: %p)

구분		10년 4/4	11년 4/4	12년 2/4(A)	12년 3/4(B)	(B)-(A)
기준금리		2.50	3.25	3.25	3.00	-0.25
CD(91일)	(C)	2.80	3.55	3.54	3.12	-0.42
국고채(3년)	(D)	3.38	3.34	3.30	2.84	-0.46
회사채(3년, AA-)	(E)	4.19	4.10	3.87	3.34	-0.53
스프레드(CD-국고채)	(C-D)	-0.58	0.21	0.24	0.28	-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E-D)	0.81	0.76	0.57	0.50	-

자료: 한국은행

〈환율〉

2012년 3/4분기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대응 기대감과 유로화 강세로 인해 달러화가 약세 기조로 전환하면서 전분기보다 하락한 1,134원(분기 평균)을 기록함.

■ 원/달러 환율은 주가상승, 미국의 3차 양적완화와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정책 발표 등으로 인해 강세를 보임(2/4분기 평균 1,145원 → 3/4분기 평균 1,134원).

○ 7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로 상승하였으나 월 말 수출업체들의 원화수요(달러매도)로 소폭 하락 마감함(7/31일 1,130.5원).

○ 8월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 순매수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미 양적완화(QE3)에 대한 기대감이 완화되면서 소폭 상승 마감함(8/31일 1,132원).

○ 9월 원/달러 환율은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 등에 따른 유로화 강세 등으로 소폭 하락 마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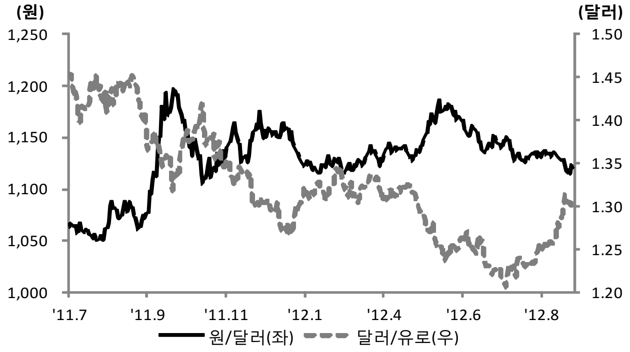
■ 달러화는 ECB 기준금리 인하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유로화 대비 강세를 보였으나 이후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유로화 방어 의지표현과 국채매입 프로그램(SMP: Securities Market Program) 재개 등으로 유로화 대비 소폭 약세로 마감(2/4분기 평균 1.28달러 → 3/4분기 평균 1.25 달러).

○ 7월 달러화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원론적 언급 및 스페인 우려 재부각으로 유로화 대비 강세를 보임(7/31일 1.23 달러).

○ 8월 달러화는 메르켈 총리의 유로화 보호 지지 발언 및 3차 양적완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로화 대비 약세로 전환함(8/31일 1.25 달러).

○ 9월 달러화는 스페인 우려 재부각 등에도 불구하고 ECB의 국채 매입 기대감 등으로 유로화 대비 약세를 지속함.

〈그림 9〉 환율변동 추이



자료: Bloomberg

〈주가지수〉

2012년 3/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로 연중 최저치까지 하락하였으나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이로 인한 유로존 리스크 완화 기대감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며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함(3/4분기 1,996pt로 마감).

■ 2012년 3/4분기 경기 둔화 우려와 외국인 차익매물 출회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유로존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외국인 매수세 유입, 국가 신용등급상향 등에 힘입어 상승기조로 전환하며 큰 상승폭을 보였음.

○ 분기 중 종합주가지수는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 심리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아울러 큰 폭의 외국인 주식순매수 유출입에 따라 여전히 지수변동폭이 커지는 양상을 띠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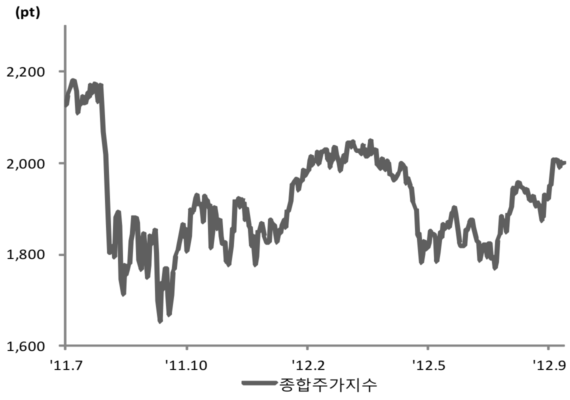
○ S&P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저가매수 유입 등이 긍정적인 작용을 한 반면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제 상황 약화와 미 연준 · 유럽중앙은행 등의 경기부양책 및 통화정책에 대한 실망감은 시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 7월 종합주가지수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 우려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함(7/25일 1,769pt).

○ 8월 종합주가지수는 유로존 재정위기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하였으나 미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차익실현 매물로 상승폭은 제한되었음(8/31일 1,905pt).

○ 9월 종합주가지수는 투자심리 완화, 저가매수세 유입, 유럽위기 해법을 위한 EU · IMF 의 국제 공조 강화, 스페인 구제금융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감소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1,996pt로 소폭 상승 마감하였음.

〈그림 10〉 주가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자금흐름〉

2012년 2/4분기 보험권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은행권 순수신은 감소하였으며 증권 · 투신은 각각 순유출과 순유입을 기록하였음.

■ 2012년 2/4분기 보험권 총순수신은 전분기대비 14.1% 증가하였음.

○ 생명보험 순수신은 수입보험료 증가분과 지급보험금 증가분이 비슷한 규모로 증가하며 순유입을 기록함(10.2%).

○ 손해보험 순수신은 원수보험료는 소폭 증가한 반면 원수손해액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순수신은 전분기 대비 증가함(28.4%).

■ 2012년 2/4분기 은행 순수신은 전분기 대비 55% 감소하였으며, 투신은 2분기 연속 자금 순유입을 나타냈음.

○ 은행권 수신은 분기 초 수시입출식 예금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자금이 재유입이 되며 순유입을 기록하였음.

○ 증권사 수신은 4월과 5월 모두 순유입을 기록하였으나 6월 들어 큰 폭으로 자금이 유출되며 소폭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음.

○ 투신권 수신은 4월에 큰 폭의 자금유출 이후 꾸준히 자금이 재유입 되었으며, 주가하락으로 인한 환매수요 감소와 신규유입 증가로 주식형 펀드는 소폭 증가함.

〈표 26〉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3/4	4/4	1/4	2/4	3/4	4/4	1/4	2/4
보 험	106,839	97,513	95,956	109,637	117,629	123,927	122,280	139,507
- 생 보	80,183	68,578	64,883	78,241	89,732	97,036	96,041	105,806
- 손 보	26,655	28,935	31,073	31,396	27,897	26,891	26,239	33,701
은 행	33,397	274,211	201,600	145,827	242,881	263,282	269,108	120,525
- 일 반	44,878	150,020	123,112	162,787	197,704	173,064	190,485	108,131
- 신 탁	-11,481	124,191	78,488	-16,960	45,177	90,218	78,623	12,394
증 권	-7,803	18,619	34,410	-33,405	34,901	10,078	44,117	-33,365
투 신	-78,660	-111,569	-131,059	-10,171	80,566	-105,662	50,029	83,820
종 금	-13,827	9,480	-10,921	-40,343	-2,093	-52,656	11,809	-490

주: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12 1/4분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고성장으로 전년동기 대비 17.6% 증가한 41조 3,000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농협의 진입에 힘입은 바 크며 농협을 제외하면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한 38조 6,000억 원에 그침.

■ FY2012 1/4분기 보험산업의 수입(원수)보험료는 손해보험이 장기보험의 고성장으로 19.4%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생명보험도 농협생명보험 진입으로 16.5% 증가하면서 17.6% 증가한 41조 3,000억 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고 농협생명보험의 진입효과도 작용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한 24조 5,000억 원을 기록함.

- 그러나 농협생명보험을 제외할 경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한 22조 2,000억 원임.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고성장에 힘입어 19.4% 증가한 16조 8천억 원을 기록함.

- 농협손해보험 제외 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한 16조 4,000억 원을 기록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조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1/4 (농협제외)
생명보험		83.0	21.1	20.7	23.7	22.4	87.8	24.5	22.2
		(7.9)	(9.5)	(7.7)	(1.5)	(5.6)	(5.8)	(16.5)	(5.5)
손해보험		52.2	14.1	14.2	16.6	16.1	61.0	16.8	16.4
		(19.2)	(16.5)	(16.0)	(13.6)	(21.0)	(16.7)	(19.4)	(16.2)
합계		135.3	35.1	34.9	40.3	38.5	148.8	41.3	38.6
		(12.0)	(12.2)	(10.9)	(6.1)	(11.5)	(10.0)	(17.6)	(9.8)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기준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4)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 · 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12 1/4분기 말 보험산업 총자산은 농협의 진입 등으로 인해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크게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9.5% 증가한 644조 원을 기록하였으나 농협을 제외할 경우 2.5% 증가한 603조 원을 나타냄.

■ FY2012 1/4분기 말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 진입 등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자산이 각각 10.3%, 6.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9.5% 증가한 644조 원을 나타냄.

○ 생명보험 총자산은 주식시장 부진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을 농협생명보험 진입이 상쇄하면서 10.3% 증가한 505조 원을 나타냄.

- 농협생명보험을 제외하면 생명보험 총자산은 1.8% 증가한 467조 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총자산은 일반계정자산과 특별계정자산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6.7% 증가한 139조 원을 기록함.

-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면 손해보험 총자산은 4.9% 증가한 136조 원을 기록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

(단위: 조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1/4 (농협제외)
생명보험	417.0	425.0	429.4	442.7	458.2	458.2	505.4	466.6
	(11.8)	(2.0)	(1.0)	(3.1)	(3.5)	(10.0)	(10.3)	(1.8)
손해보험	102.0	112.8	116.5	123.3	129.8	129.8	138.5	136.2
	(18.7)	(10.3)	(3.3)	(5.9)	(5.3)	(27.0)	(6.7)	(4.9)
합계	519.0	537.8	545.9	565.9	588.0	588.0	643.9	602.8
	(13.0)	(3.7)	(1.5)	(3.7)	(3.9)	(13.3)	(9.5)	(2.5)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3)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자료: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 · 손보사,『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익성

FY2012 1/4분기 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생명보험의 책임준비금전입액 증가와 손해보험 보험영업손실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1%p 하락한 2.5%로 나타남.

■ FY2012 1/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자본이익률이 하락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1%p 하락한 2.5%를 기록하였으며 농협 진입에 따른 영향은 없었음.

○ 생명보험산업에서는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책임준비금전입액이 크게 증가하여 자본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1.0%p 하락한 1.9%를 기록함.

○ 반면 손해보험산업에서는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하였으나 보험영업손실이 악화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7%p 하락한 4.2%를 기록함.

〈표 3〉 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1/4 (농협제외)
생명보험	12.4	2.9	1.3	1.8	2.5	8.7	1.9	1.9
손해보험	11.3	5.9	3.4	2.6	3.0	16.4	4.2	4.2
합계	12.1	3.6	1.9	2.0	2.6	10.6	2.5	2.5

주: 1)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는 농협생명, 화재보험 진입으로 FY2012 1분기부터 각각 24개, 18개 국내외 보험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3)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자료: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참고 농협생명/손해보험 시장 진입

■ 2011년 3월 4일 신 · 경 분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협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제로 운영되어오던 농협보험이 2012년 3월 2일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업에 진입함.

○ 농업협동조합법 내에 보험업법 적용배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로 분리하여 출범하였으며,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됨.

○ FY2012 1/4분기 말 농협생명보험의 자산규모는 38조 8,000억 원으로 전체 생명보험자산 중 7.7%를 차지하며 수입보험료는 2조 3,000억 원으로 대형 3사에 이어 4위 수준인 9.4%의 점유율을 차지함.

○ FY2012 1/4분기 말 농협손해보험의 총자산은 2조 3,000억 원으로 전체 손해보험자산의 1.7%를 차지하며, 원수보험료는 4,391억 원으로 전체 손해보험에서 9위 수준인 2.6%를 나타냄.

■ 농협생명보험은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등 단체보험을 제외한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농협손해보험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종목을 판매하고 있음.

○ 농협생명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은 생사혼합보험이 4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이 각각 34.3%, 26.0%를 차지함.

○ 농협손보의 종목별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이 77.8%, 자동차보험이 1.3%, 일반손해보험이 20.8%를 나타냄.

■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의 판매채널은 방카슈랑스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협생명보험 판매채널은 방카슈랑스 비중이 95.4%로 가장 높고 설계사와 임직원이 각각 4.5%, 0.1%를 차지함.

○ 농협손해보험 판매채널은 방카슈랑스 비중이 93.7%로 가장 크고, 설계사가 4.3%, 임직원이 1.9%를 나타냄.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개요〉

■ FY2012 1/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감소하였으나 개인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였고 농협생명보험의 진입효과도 작용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농협생명보험 미포함 시 5.5%)한 24조 5,000억 원을 기록함.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사혼합보험과 생존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20.9%(농협생명보험 미포함 시 9.0%)증가 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기저효과로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도 32.0% 감소함.

○ FY2012부터 농협생명보험이 생명보험 산업에 편입되면서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농협생명보험은 변액보험과 단체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을 판매하고 있음.

■ FY2012 1/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주식시장 부진으로 특별계정 자산과 유가증권 중 주식의 가치가 감소하였으나 농협생명보험이 진입하면서 10.3% 증가함.

○ 농협생명보험을 제외하는 경우 총자산 증가는 1.8%에 그침.

〈표 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조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1/4 (농협제외)
수입보험료		83.0	21.1	20.7	23.7	22.4	87.8	24.5	22.2
		(7.9)	(9.5)	(7.7)	(1.5)	(5.6)	(5.8)	(16.5)	(5.5)
총 자 산		416.7	425.0	429.4	442.7	458.2	458.2	505.4	466.6
		(11.8)	(2.0)	(1.0)	(3.1)	(3.5)	(10.0)	(10.3)	(1.8)

주: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 연금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하단은 증가율이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생명보험회사,『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 FY2012 1/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반면 사망보험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고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이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면서 20.9%(농협생명보험 미포함 시 9.0%)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6.8%(농협생명보험 미포함 시 1.3%) 증가하면서 두 분기 연속 플러스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종신보험 수입보험료가 6.7% 증가하면서 사망보험의 성장을 견인함.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7차 경험생명표 도입에 따른 보험료 인상 전 가입수요가 확대되면서 42.6%(농협생명보험 미포함 시 23.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세제적격 개인연금과 세제비적격 일반연금 수입보험료가 각각 45.5%, 30.7% 증가함.

- 경험생명표 변경에 따른 가입수요 확대로 생존보험 초회보험료는 147.0%(농협생명보험 미포함 시 98.2%) 급증세를 나타냄.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68.5%(농협생명보험 미포함 시 27.5%)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사혼합보험의 판매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주식시장이 정체를 보이고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에 따른 수요위축으로 1.2% 감소하였으며, 초회보험료는 55.7% 감소함.

- 변액보험 종목별로는 수익률 논란에 휩싸였던 변액연금 수입보험료가 유일하게 2.9%의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변액유니버셜은 0.4% 증가하고 수입보험료 규모가 크지 않은 변액종신보험은 6.2% 증가함.
-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기저효과로 인해 FY2011 3/4분기와 4/4분기에도 각각 46.3%, 46.6% 감소한 바 있으나 FY2012 1/4분기에는 55.7%로 감소폭이 확대됨.

○ FY2012 1/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농협생명보험 미포함 시에도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높은 증가세로 인해 9.0%의 성장을 기록함.

■ FY2011 4/4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과 퇴직보험 수입보험료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32.0% 감소함.

○ FY2011 활발히 진행된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에 따른 기저효과로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35.0% 감소하였으며, 퇴직보험도 96.4% 감소함.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1/4 (농협제외)
생존	보험료	170,897	40,937	43,061	43,773	51,654	179,425	58,357	50,442
	증가율	11.6	1.5	3.1	-1.2	16.1	5.0	42.6	23.2
	구성비	20.6	19.4	20.8	18.5	23.1	20.4	23.8	22.7
사망	보험료	287,162	71,520	71,649	71,772	72,171	287,112	76,376	72,429
	증가율	-0.8	-0.3	-0.3	-0.2	0.8	0.0	6.8	1.3
	구성비	34.6	34.0	34.6	30.3	32.2	32.7	31.1	32.6
생사혼합	보험료	105,215	27,350	28,489	29,406	37,134	122,378	46,073	34,879
	증가율	28.2	13.1	14.5	7.4	29.0	16.3	68.5	27.5
	구성비	12.7	13.0	13.8	12.4	16.6	13.9	18.8	15.7
변액보험	보험료	194,130	52,972	54,714	52,149	53,102	212,937	52,354	52,354
	증가율	12.9	17.8	20.0	3.1	0.3	9.7	-1.2	-1.2
	구성비	23.4	25.2	26.4	22.0	23.7	24.2	21.3	23.6
개인계	보험료	757,403	192,778	197,913	197,100	214,061	801,852	233,160	210,104
	증가율	8.7	6.4	7.5	1.5	8.2	5.9	20.9	9.0
	구성비	91.2	91.5	95.6	83.2	95.6	91.3	95.1	94.5
단체	보험료	72,672	17,839	9,040	39,798	9,831	76,508	12,126	12,126
	증가율	-0.5	59.9	12.5	1.4	-31.0	5.3	-32.0	-32.0
	구성비	8.8	8.5	4.4	16.8	4.4	8.7	4.9	5.5
합계	보험료	830,074	210,617	206,953	236,899	223,891	878,360	245,286	222,230
	증가율	7.9	9.5	7.7	1.5	5.6	5.8	16.5	5.5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 연금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3)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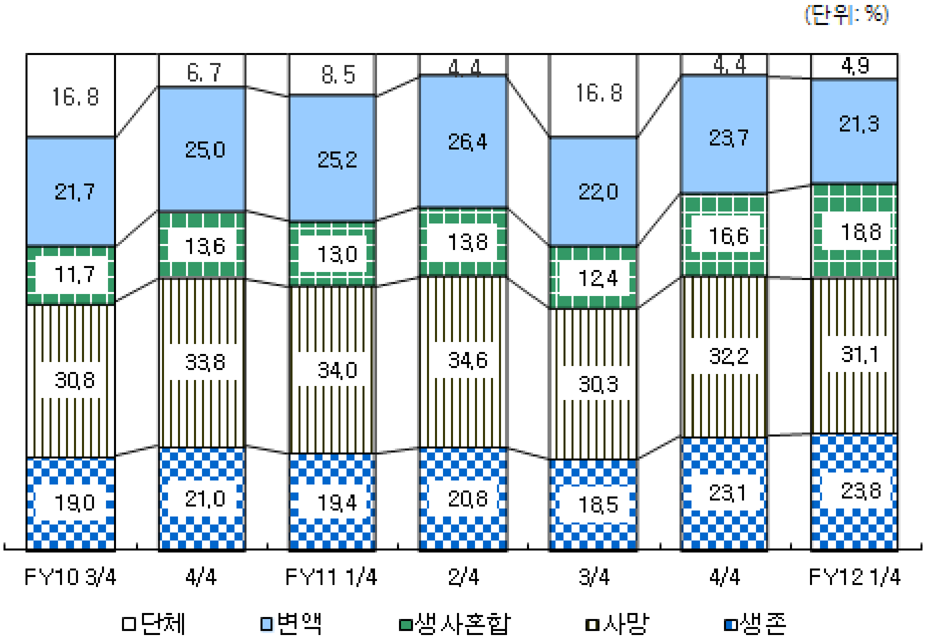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 FY2012 1/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비중이 상승하고 사망보험, 변액보험, 단체보험의 비중은 하락함.

○ 생존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4.4%p 증가한 23.8%로 나타났으며, 생사혼합보험은 5.8%p 증가한 18.8%로 나타남.

○ 사망보험 비중은 2.9% 하락한 31.1%로 나타났으며, 농협생명보험이 취급하지 않는 변액보험과 단체보험은 농협생명보험 진입 효과로 인해 각각 3.9%p 3.6%p로 크게 하락한 21.3%, 4.9%로 나타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2 1/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점유율은 업계 4위권인 9.4%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농협생명보험의 진입으로 상위 3사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함.

○ 상위 3사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흐름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왔으나 농협생명보험의 진입으로 국내중소형사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9.9%p 상승한 37.2%를 나타냄.

○ 상위 3사의 점유율은 6.9%p 하락한 45.8%로 나타났으며, 외국사의 점유율은 3.0%p 하락한 17.0%로 나타남.

■ FY2012 1/4분기 허핀달지수도 상위 3사의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0188 포인트 감소한 0.1031로 나타남.

〈표 6〉 생명보험시장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1/4 (농협제외)
상위 3개사	52.3	52.7	50.8	53.6	50.1	51.8	45.8	50.5
국내중소형사	26.9	27.3	29.1	28.6	30.6	28.4	37.2	30.7
외 국 사	20.8	20.0	20.1	17.8	19.3	19.8	17.0	18.7
허핀달지수	0.1186	0.1219	0.1136	0.1258	0.1111	0.1179	0.1031	0.1148

주: 1) 퇴직보험·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12년 9월 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 카디프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12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12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지급률이 상승하고 생존보험, 변액보험, 단체보험의 지급률이 하락하면서 전년동기대비 6.0%p 낮아진 56.9%로 나타남.

- 생사혼합보험 지급률은 수입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지환급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20.5%p 상승한 65.3%를 기록하였고 사망보험 지급률도 4.6%p 상승한 55.0%를 기록함.
- 생존보험 지급률은 수입보험료 증가와 해지환급금 감소로 10.4%p 하락한 44.1%로 나타났으며, 변액보험 지급률도 해약환급금 감소로 10.2%p 하락한 53.1%로 나타남.

■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지출한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1.1%p 하락한 15.4%로 나타났으며, 해지율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2.8%를 기록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보험금 지급률	69.4	64.7	62.9	56.6	59.0	56.9	58.9	56.9
개 인 계	57.8	56.8	54.0	52.3	51.1	53.0	52.6	53.9
- 생 존	58.8	55.7	54.5	60.8	58.9	51.2	56.1	44.1
- 사 망	52.8	51.3	50.4	53.0	53.2	56.7	53.3	55.0
- 생사혼합	51.7	55.3	44.8	45.7	45.0	39.1	43.3	65.3
- 변 액	67.2	66.6	63.3	48.0	45.0	59.3	53.9	53.1
단 체	230.3	147.2	158.4	152.5	98.5	143.2	124.6	113.9
사 업 비 율	17.4	16.2	16.5	17.7	15.5	16.7	16.6	15.4
해 지 율	10.5	10.5	2.8	5.3	7.9	10.2	10.2	2.8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해지율은 누계치임
자료: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2 1/4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책임준비금전입액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22.6% 감소한 8,440억 원을 기록함(농협생명보험 제외 시 투자영업이익의 감소로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5.9% 감소한 8,083억 원임).

○ 보험영업이익은 지급보험금과 사업비의 증가로 보험영업비용이 29.1% 증가하였지만, 개인보험료의 증가로 보험영업수익이 28.6% 증가하면서 27.0% 증가함(농협생명보험 제외 시 보험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5.1% 증가함).

○ 투자영업이익은 파생상품거래손실/평가손실 등이 증가하여 투자영업비용이 0.5% 증가하였으나, 투자영업수익은 외환차익과 외화환산이익의 증가로 7.8% 증가하여 9.6% 증가함.

- 하지만 2012년 3월에 출범한 농협생명을 제외하면, 투자영업비용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의 처분이익/평가이익의 감소로 투자영업수익도 감소하여 투자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함.

〈표 8〉 생명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0 연간	FY2011 1/4	FY2011 2/4	FY2011 3/4	FY2011 4/4	FY2011 연간	FY2012 1/4 (농협포함)	FY2012 1/4 (농협제외)
총수익	보험영업	59,070	14,438	14,788	14,957	16,688	60,872	18,563	16,245
	투자영업	19,594	5,247	5,481	4,402	4,894	20,024	5,656	5,157
	영업외	3,975	898	903	902	961	3,664	984	984
	소 계	82,639	20,583	21,173	20,261	22,543	84,560	25,204	22,386
총비용	보험영업	46,730	10,864	11,683	11,756	12,397	46,700	14,023	11,774
	투자영업	2,860	1,044	1,657	258	348	3,308	1,049	981
	영업외	657	176	238	171	153	738	165	150
	소 계	50,247	12,084	13,578	12,186	12,898	50,746	15,236	12,905
수지차	보험영업	12,340	3,575	3,105	3,201	4,291	14,172	4,540	4,471
		(57.5)	(9.8)	(-10.3)	(20.6)	(44.6)	(14.8)	(27.0)	(25.1)
	투자영업	16,734	4,203	3,824	4,144	4,546	16,717	4,608	4,176
		(21.6)	(1.8)	(0.2)	(2.3)	(-4.0)	(-0.1)	(9.6)	(-0.7)
	영업외	3,319	721	666	730	808	2,926	820	834
	소 계	32,392	8,499	7,595	8,075	9,645	33,814	9,968	9,481
책임준비금전입		26,979	7,126	6,944	7,090	8,291	29,452	8,909	8,457
법 인 세		1,394	281	132	253	325	992	215	216
당기순이익		4,019	1,091	519	732	1,029	3,371	844	808
		(63.7)	(-15.1)	(-38.2)	(-21.2)	(6.6)	(-16.1)	(-22.6)	(-25.9)

주: 1)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2)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12 1/4분기 운용자산 이익률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글로벌 금융불안과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0.5%p, 0.6%p 하락한 4.8%와 4.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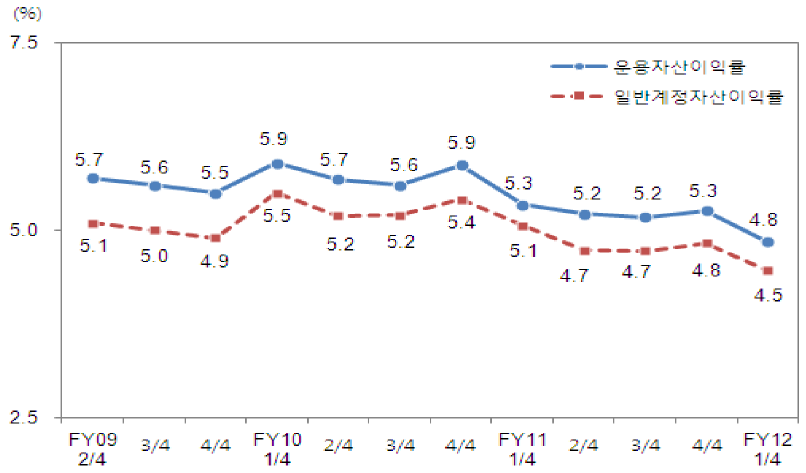
○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6%p 하락한 4.0%인데, 이는 당기손익증권, 매도가능증권 주식 이익률이 모두 하락하였기 때문임.

○ 대출채권 이익률은 6.9%(전년동기대비 0.2%p 하락)였으며, 부동산 이익률은 3.6%(전년동기대비 0.1%p 상승)를 기록함.

■ 일반계정 투자자산 비중은 유가증권 68.1%, 대출채권 18.1%, 현금과예금 3.9%, 부동산 3.3%임.

○ 전년동기에 비해 대출채권 비중은 소폭 줄어든(1.3%p) 반면, 만기보유증권의 증가로 유가증권 비중은 소폭 증가함(2.6%p).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 추이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 환산)
자료: 생명보험회사,『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9〉 생명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1/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 금 과 예 금	4.0	3.2	3.8	3.9	4.0	3.8	4.1	3.8	3.9	3.6
유 가 증 권	65.5	5.0	66.0	4.8	65.9	4.7	66.3	4.8	68.1	4.4
○ 당기손익인식증권	1.9	2.5	1.9	-3.0	1.5	0.3	1.6	2.6	2.2	2.4
- 주 식	0.1	-1.8	0.1	-35.9	0.1	-24.5	0.1	-8.0	0.1	-31.4
- 채권 등	0.8	3.5	0.8	-1.6	0.8	2.3	0.7	4.1	0.8	4.5
- 수익증권	1.0	2.2	1.0	-0.6	0.6	1.4	0.8	2.7	1.3	4.2
○ 매도가능증권	49.8	5.1	50.2	5.0	50.4	4.8	51.4	4.7	47.6	4.3
- 주 식	4.8	1.7	4.4	1.5	4.9	0.9	5.3	1.9	4.7	0.3
- 채권 등	42.3	5.0	43.2	5.1	43.2	5.0	43.5	5.0	40.3	4.8
- 수익증권	2.7	12.2	2.6	9.1	2.4	8.3	2.5	5.8	2.6	2.5
○ 만기보유증권	12.8	5.2	13.0	5.1	13.1	5.2	12.5	5.4	17.0	5.2
- 채권 등	12.8	5.2	13.0	5.1	13.1	5.2	12.5	5.4	17.0	5.2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1.1	3.6	0.9	1.7	0.8	1.2	0.9	7.2	1.4	4.2
대 출 채 권	19.4	7.1	19.5	7.2	19.3	7.4	18.9	7.4	18.1	6.9
부 동 산	3.8	3.5	3.7	3.8	3.7	3.6	3.7	3.5	3.3	3.6
운 용 자 산 계	92.6	5.3	93.0	5.2	92.9	5.2	93.0	5.3	93.3	4.8
비 운 용 자 산	7.4	1.6	7.0	-1.5	7.1	-0.9	7.0	-0.6	6.7	-0.9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률)	100.0 (80.9)	5.1	100.0 (81.7)	4.7	100.0 (81.9)	4.7	100.0 (81.3)	4.8	100.0 (83.2)	4.5
특 별 계 정 자 산	19.1	1.2	18.3	-5.8	18.1	-2.3	18.7	0.9	16.8	-5.4
총 자 산	100.0	4.3	100.0	2.7	100.0	3.4	100.0	4.1	100.0	2.8
총 자 산 규 모	4,250,375		4,293,992		4,426,524		4,582,041		5,052,803	

주: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업무보고서』, 각 월호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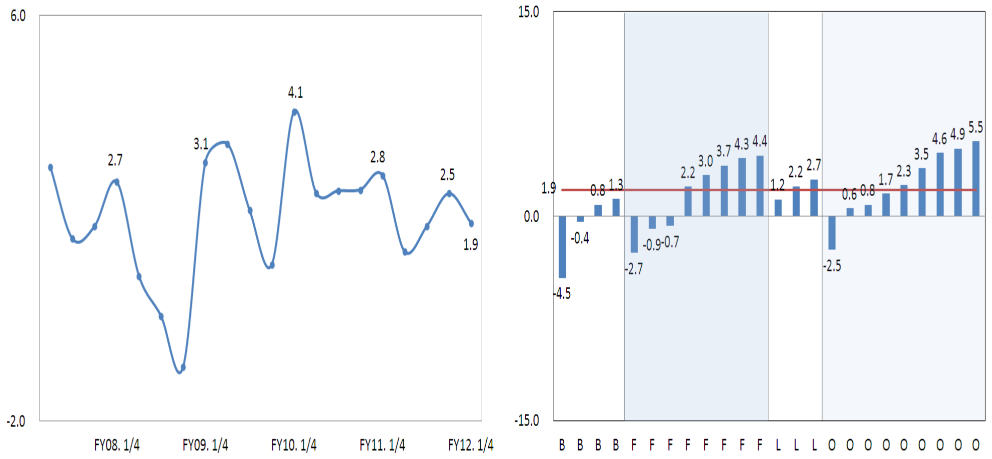
1) 자본이익률(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1)

■ FY2012 1/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0.9%p 하락한 1.9%를 기록했으며, 전분기대비 0.6%p 하락함.

- ○ 대부분의 외국사와 중소형사의 자본이익률은 산업평균(1.9%)을 상회한 반면, 모든 방카사의 자본이익률은 산업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일부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는 음(-)의 자본이익률을 보임.

〈그림 3〉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현황

(단위: %)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2 1/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자본이익률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R_t / E_t^o: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을 매출이익률(R_t / S_t: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자산회전율(S_t / A_t^o: 기중자산대비 매출액), 레버리지비율(A_t^o / E_t^o: 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로 분해하여 분석하며, 분석대상은 이번 분기부터 농협생명보험의 진입으로 24개 회사임.

■ FY2012 1/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당기순이익이 개선된 방카사를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하락한 모습을 보였으며, 전분기대비 기준으로도 모든 그룹의 자본이익률이 하락함.

○ 대형사와 외국사는 당기순이익이 하락하여 자본이익률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0.9%p, 1.1%p, 전분기대비 0.5%p, 0.6%p 하락함.

○ 중소형사의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모두 개선되었지만, 새로 진입한 농협생명으로 인해 자본이 크게 증가하여 자본이익률이 2.9%로 하락함(농협생명보험을 제외한 경우의 자본이익률은 3.8%임).

○ 방카사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6%p 상승하였으나, 전분기대비 1.5%p 하락함.

〈표 10〉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추이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4/4	연간2)	1/4	2/4	3/4	4/4	연간2)	1/4
대형사	3.1	13.6	2.6	1.2	1.4	2.2	7.5	1.7
중소형사	0.3	5.7	4.4	2.1	2.5	3.6	13.5	2.9 (3.8)
외국사	2.1	13.1	3.1	1.5	3.3	2.6	11.4	2.0
방카사	2.8	3.7	-0.8	-0.3	0.1	1.3	0.4	-0.2
전체	2.6	12.4	2.8	1.3	1.8	2.5	8.7	1.9 (1.9)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3) ( ) 안은 농협생명보험을 제외한 자본이익률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1/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하락은 매출이익률 하락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방카사는 레버리지비율,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이 모두 상승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자본이익률이 개선된 반면, 대형사와 외국사는 레버리지비율,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이 모두 하락하여 전년동기대비 자본이익률이 하락함.

○ 한편 중소형사는 레버리지비율과 자산회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출이익률이 크게 하락하여 낮은 자본이익률을 기록함.

○ 전분기 기준으로는 모든 그룹의 매출이익률이 하락하여 자본이익률이 하락함.

〈표 11〉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분해

(단위: 배, %)

구분	레버리지비율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		
	FY2011 1/4	FY2011 4/4	FY2012 1/4	FY2011 1/4	FY2011 4/4	FY2012 1/4	FY2011 1/4	FY2011 4/4	FY2012 1/4
대형사	8.5	8.4	8.4	4.7	4.5	4.5	6.5	5.9	4.5
중소형사	12.4	12.6	12.6	8.8	9.3	10.1	4.1	3.1	2.3
외국사	7.4	7.2	7.2	6.8	6.6	6.4	6.2	5.6	4.3
방카사	11.0	12.5	13.2	9.6	12.4	9.7	-0.8	0.9	-0.2
전체	8.9	8.8	8.9	5.8	6.1	6.1	5.5	4.6	3.5

주: 1) 레버리지비율(배) = 기중자산 / 기중자본
2)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3)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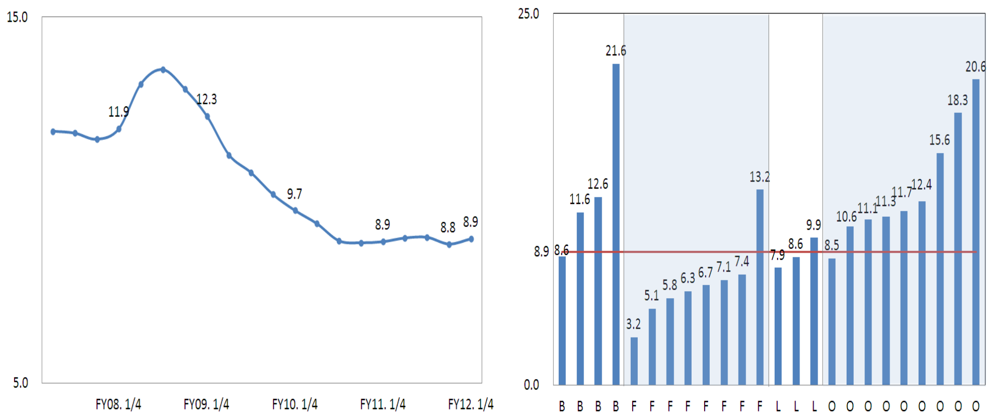
① 레버리지비율(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

■ FY2012 1/4분기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은 8.9배로 전년동기와 동일한 수준임.

○ 대부분의 대형사 및 외국사 레버리지비율은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고, 방카사 및 중소형사는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그림 4〉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 현황

(단위: 배)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2 1/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레버리지비율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레버리지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1/4분기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은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이나 전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중소형사와 방카사의 레버리지비율은 상승했으나, 대형사와 외국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자본증가 효과로 하락함.

○ 전분기대비 방카사의 레버지리비율만 증가한 반면, 나머지 그룹은 보합임.

〈표 12〉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배)

구분	FY2010		FY2011					FY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대형사	8.5	10.8	8.5	8.7	8.7	8.4	11.0	8.4
중소형사	12.2	15.7	12.4	12.4	12.6	12.6	15.2	12.6
외국사	7.5	10.7	7.5	7.3	7.2	7.2	10.2	7.2
방카사	11.3	16.8	11.0	11.3	11.9	12.5	15.7	13.2
전체	8.8	11.4	8.9	9.0	9.0	8.8	10.8	8.9

주: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증가율과 자본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비슷한 수준을 보임에 따라 레버리지비율이 동일한 수준을 보임(농협생명보험 제외 시, 전년동기대비 자산증가율은 9.8%, 자본증가율은 10.2%를 기록함).

○ 전체 자본이 전분기대비 6.9% 증가하였으나, 자산도 10.3% 증가함에 따라 산업 전체 레버리지비율이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함(농협생명보험 제외 시, 전분기대비 자산증가율은 1.8%, 자본증가율은 -0.5%임).

〈표 13〉 FY2012 1/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산 및 자본증가율

(단위: %)

구분	자산증가율		자본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대형사	8.9	1.5	9.5	-1.7
중소형사	69.1 (14.5)	52.6 (3.3)	77.3 (11.6)	60.8 (1.2)
외국사	6.5	1.1	12.7	2.9
방카사	21.9	4.3	4.3	2.1
전체	18.9 (9.8)	10.3 (1.8)	18.3 (10.2)	6.9 (-0.5)

주: ( ) 안은 농협생명보험을 제외한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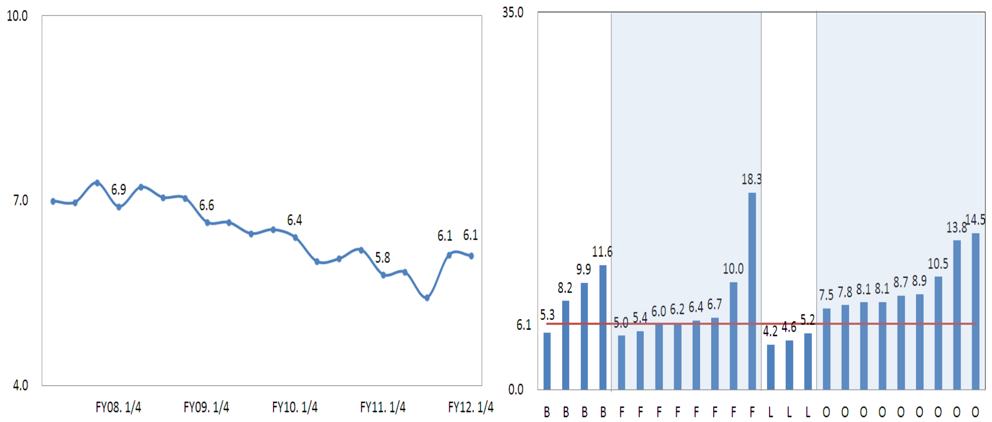
② 자산회전율(기중자산대비 매출액)

■ FY2012 1/4분기 자산회전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인 6.1%를 기록하여 지난 분기 이후 상승하던 추세가 둔화됨.

- ○ 대형사와 일부 외국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들의 자산회전율이 산업평균수준(6.1%)을 상회함.
- ○ 대형사, 외국사의 경우 자산회전율이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여 각각 4.5%, 6.4%를 기록하였으며, 중소형사와 방카사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3%p, 0.1%p 상승함.

〈그림 5〉 생명보험산업 자산회전율 현황

(단위: %)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2 1/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자산회전율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산회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전년동기에 비해 투자영업회전율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보험영업회전율이 상승하여 자산회전율 상승을 초래함.

○ 전분기대비로는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회전율이 모두 동일한 수준임.

〈표 14〉 생명보험산업 자산회전율 분해

(단위: %)

구분	자산회전율			보험영업			투자영업		
	FY2011 1/4	FY2011 4/4	FY2012 1/4	FY2011 1/4	FY2011 4/4	FY2012 1/4	FY2011 1/4	FY2011 4/4	FY2012 1/4
대형사	4.7	4.5	4.5	3.1	3.3	3.1	1.5	1.3	1.4
중소형사	8.8	9.3	10.1	7.1	7.6	8.3	1.7	1.6	1.7
외국사	6.8	6.6	6.4	5.3	5.2	5.1	1.5	1.3	1.3
방카사	9.6	12.4	9.7	8.3	11.2	8.6	1.2	1.2	1.1
전체	5.8	6.1	6.1	4.3	4.7	4.7	1.5	1.4	1.4

주: 1)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2) 보험영업회전율 = 보험영업수익 / 기중자산
3) 투자영업회전율 = 투자영업수익 / 기중자산
자료: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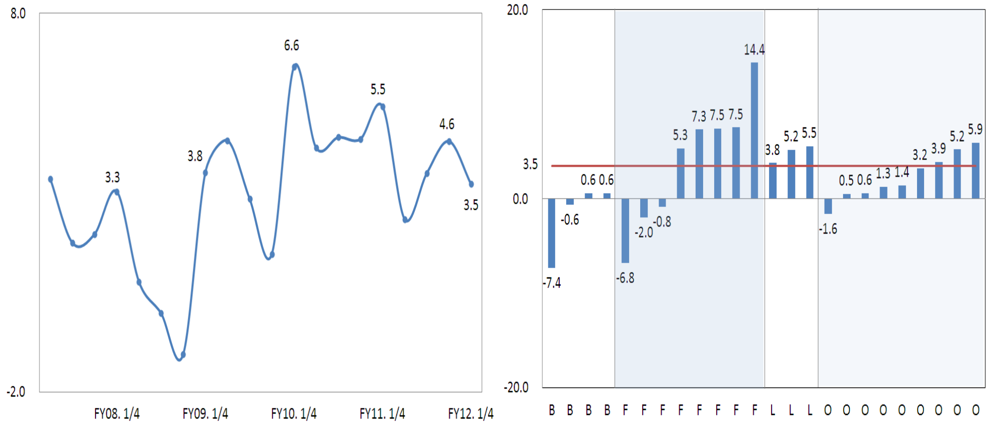
③ 매출이익률(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 FY2012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크게 감소하여 매출이익률은 3.5%를 기록함.

○ 대형사와 다수 외국사의 매출이익률이 산업평균(3.5%)을 상회하고 있으나, 방카사와 중소형사 대부분은 부진한 매출이익률 수준을 나타냄.

〈그림 6〉 생명보험산업 매출이익률 현황

(단위: %)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2 1/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매출이익률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매출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1/4분기 생명보험산업 보험영업이익률은 개선되었으나, 투자영업이익률이 하락한 것이 매출이익률 하락의 원인임.

○ 보험영업이익률의 경우 대형사가 13.3%로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모두 상승하여 양호한 수준을 기록함.

○ 투자영업이익률은 방카사만 전분기대비 1.9%p 상승하였으나,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들 모두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기준으로 하락함.

〈표 15〉 생명보험산업 매출이익률 분해

(단위: %)

구분	매출이익률			보험영업			투자영업		
	FY2011 1/4	FY2011 4/4	FY2012 1/4	FY2011 1/4	FY2011 4/4	FY2012 1/4	FY2011 1/4	FY2011 4/4	FY2012 1/4
대형사	6.5	5.9	4.5	10.7	11.8	13.3	26.3	27.0	24.5
중소형사	4.1	3.1	2.3	29.3	30.3	22.7	15.5	14.3	14.2
외국사	6.2	5.6	4.3	17.2	13.0	16.2	17.0	18.7	16.5
방카사	-0.8	0.9	-0.2	49.2	57.9	49.8	12.0	9.2	11.1
전체	5.5	4.6	3.5	18.2	18.5	18.7	21.4	20.9	19.0

주: 1)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이익 + 특별계정이익 - 법인세비용
2) 보험영업이익률 = 보험영업이익 / 영업수익*　*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3) 투자영업이익률 = 투자영업이익 / 영업수익*　*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12 1/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방카슈랑스 비중이 절대적인 농협생명보험의 진입으로 방카슈랑스 비중만이 크게 증가하고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의 비중은 모두 감소함.

- FY2012 1/4분기 농협생명보험의 모집형태별 비중은 방카슈랑스가 95.4%로 절대적이며, 설계사는 4.5%, 임직원은 0.1%에 불과함.
- 농협생명보험의 진입으로 방카슈랑스 비중은 29.6%p 상승한 69.9%로 나타났으며, 설계사의 비중은 7.7%p 감소한 19.3%로 나타났고 임직원과 대리점 비중은 각각 5.3%와 5.4%에 그침.

〈표 16〉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1/4 (농협제외)
임 직 원	21.0	22.7	12.7	32.5	7.3	21.3	5.3	6.8
설 계 사	26.1	27.0	29.5	23.5	23.4	24.7	19.3	23.6
대 리 점	6.8	9.5	7.3	7.2	6.7	7.1	5.4	7.0
중 개 사	0.0	0.0	0.0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45.5	40.3	50.0	36.5	62.3	46.6	69.9	62.6
기 타	0.7	0.4	0.4	0.3	0.3	0.3	0.1	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34,794	33,748	29,400	42,032	42,889	148,510	45,622	35,405

주: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12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모집조직은 농협생명보험의 진입으로 임직원 수와 설계사 수가 증가하였고 대리점 수도 증가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1,102명 증가한 29,065명으로 나타났으며, 농협생명보험의 임직원 수 761명을 제외하더라도 341명이 증가함.

○ 설계사 수는 전분기에 비해 2,960명 증가하였으며, 전속설계사는 농협생명보험 1,393명 포함 3,237명 증가한 반면 교차설계사는 277명 감소함.

- 농협생명보험이 포함된 국내중소형사 외에 대형3사와 외국사의 설계사 수도 각각 70명, 335명 증가함.

○ 대리점 수는 개인대리점이 88개 감소한 반면 법인대리점이 104개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6개가 증가함.

〈표 17〉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0		FY2011				FY2012
	3/4	4/4	1/4	2/4	3/4	4/4	1/4
임 직 원	26,481	26,586	26,717	27,339	27,340	27,963	29,065
설 계 사	149,140	146,065	147,671	150,161	152,294	153,189	156,149
- 전속	133,763	132,117	134,574	138,024	141,034	141,499	144,736
- 교차	15,377	13,948	13,097	12,137	11,260	11,690	11,413
대 리 점	10,359	9,846	9,610	9,511	9,089	8,965	8,981
- 개인	6,876	6,364	6,177	6,176	5,857	5,712	5,624
- 법인	3,483	3,482	3,433	3,335	3,232	3,253	3,357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개요〉

■ FY2012 1/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고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19.4% 늘어난 16조 7,964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할 경우 16.2% 늘어난 16조 3,573억 원임.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방카슈랑스 채널 중심의 저축성보험 신규 수요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28.1% 증가한 9조 8,381억 원을 기록함.

-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면 23.6% 증가한 9조 4,964억 원임.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 고성장(29.9%)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성장세 둔화(4.8%)로 14.4% 증가한 1조 6,375억 원을 시현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요율 조정과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 증가에 그친 3조 2,615억 원을 나타냄.

-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면 1.8% 늘어난 3조 2,558억 원임.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의 실적 추가로 화재 및 특종보험이 고성장함에 따라 16.9% 증가한 2조 593억 원을 시현함.

-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면 11.7% 증가한 1조 9,667억 원임.

■ FY2012 1/4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은 일반계정자산과 특별계정자산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6.7% 증가한 138조 5,178억 원을 기록함(농협을 제외한 경우 4.9% 증가한 136조 2,210억 원).

○ 일반계정자산은 장기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성장과 농협의 출범으로 전분기대비 6.8% 증가(농협 제외 시 4.9% 증가)하였으며, 특별계정자산은 연금부문의 성장에 따라 5.8% 증가함.

〈표 18〉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조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1/4 (농협제외)
원수보험료	52.2	14.1	14.2	16.6	16.1	61.0	16.8	16.4
	(19.2)	(16.5)	(16.0)	(13.6)	(21.0)	(16.7)	(19.4)	(16.2)
장기손보	28.2	7.7	8.1	8.7	9.7	34.1	9.8	9.5
	(21.0)	(15.3)	(16.9)	(20.4)	(31.3)	(21.2)	(28.1)	(23.6)
연금부문	5.4	1.4	1.0	2.8	1.4	6.7	1.6	1.6
	(54.7)	(61.4)	(43.8)	(11.2)	(15.3)	(24.8)	(14.4)	(14.4)
자동차	12.4	3.2	3.3	3.3	3.3	13.0	3.3	3.3
	(10.6)	(9.1)	(8.3)	(2.2)	(1.1)	(5.1)	(2.0)	(1.8)
일반손해	6.3	1.8	1.7	1.8	1.8	7.1	2.1	2.0
	(7.6)	(10.1)	(14.2)	(9.5)	(17.7)	(12.7)	(16.9)	(11.7)
총 자 산	102.2	112.8[3)]	116.5	123.3	129.8	129.8	138.5	136.2
	(18.7)	(10.3)	(3.3)	(5.9)	(5.3)	(27.0)	(6.7)	(4.9)

주: 1) ( ) 안은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연금부문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3) FY2011 1/4분기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1) 장기손해보험

■ FY2012 1/4분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안정적인 계속보험료 유입과 저축성보험 고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28.1% 늘어난 9조 8,381억 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중심으로 한 초회보험료 급증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75.8% 증가한 3조 1,437억 원을 시현함.

○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초회보험료의 2분기 연속 증가로 13.1% 늘어난 2조 3,029억 원을 기록한 반면, 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초회보험료의 마이너스 성장 지속으로 7.6% 증가한 1조 6,426억 원을 시현함.

○ 운전자보험 원수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의 실적 추가로 6.9% 증가한 6,146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재물보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의 양호한 성장세 등으로 48.7% 증가한 9,315억 원을 기록함.

- 농협손해보험 실적을 제외할 경우 운전자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1.9%이며, 재물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9.0%임.

■ FY2012 1/4분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분기에 이어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84.9% 증가한 1조 1,811억 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저금리 환경 하에서 금리경쟁력 유지,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판매 확대 등으로 261.0%나 늘어난 1조 294억 원을 기록함.

○ 상해보험 초회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 시장 진입으로 22.1% 증가한 562억 원을 기록한 반면, 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2.6% 감소한 302억 원을 시현하여 감소세를 지속함.

○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의 영향으로 52.7% 증가한 101억 원을 기록하여 감소세를 벗어났으며, 재물보험 초회보험료는 12.3% 증가한 399억 원을 시현함.

〈표 19〉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1/4 (농협제외)
원수 보험료	상 해	보험료	74,527	20,363	20,151	21,152	21,889	83,554	23,029	22,685
		증가율	16.3	15.2	10.3	11.5	11.6	12.1	13.1	11.4
	운전자	보험료	22,537	5,749	5,711	5,679	5,642	22,781	6,146	5,641
		증가율	9.3	3.2	1.8	0.7	-1.3	1.1	6.9	-1.9
	재 물	보험료	21,791	6,264	7,444	7,536	7,749	28,993	9,315	8,083
		증가율	16.9	25.2	42.1	34.5	30.3	33.1	48.7	29.0
	질 병	보험료	56,614	15,261	15,484	15,713	16,033	62,490	16,426	16,426
		증가율	13.6	12.8	11.3	9.1	8.6	10.4	7.6	7.6
	저축성	보험료	62,541	17,882	20,988	25,224	33,372	97,465	31,437	30,100
		증가율	59.9	27.5	35.3	52.5	102.7	55.8	75.8	68.3
	통합형	보험료	42,749	11,077	11,188	11,400	11,752	45,417	11,926	11,926
		증가율	7.6	4.5	5.3	6.2	8.8	6.2	7.7	7.7
	자산 연계형	보험료	1,055	222	201	173	136	732	103	103
		증가율	8.5	-17.2	-31.2	-32.6	-43.0	-30.6	-53.6	-53.6
	소 계	보험료	281,813	76,818	81,166	86,877	96,572	341,432	98,381	94,964
		증가율	21.0	15.3	16.9	20.4	31.3	21.2	28.1	23.6
초회 보험료	상 해	보험료	2,046	460	424	490	602	1,976	562	527
		증가율	-9.7	-11.2	-7.8	-5.4	9.3	-3.4	22.1	14.5
	운전자	보험료	540	66	65	72	76	279	101	89
		증가율	-16.9	-48.0	-39.8	-30.7	-62.0	-48.3	52.7	35.1
	재 물	보험료	1,098	355	448	415	345	1,565	399	390
		증가율	58.7	59.5	73.3	37.3	9.9	42.5	12.3	9.6
	질 병	보험료	1,197	310	236	273	331	1,150	302	302
		증가율	-33.3	29.6	-26.1	-7.0	-3.9	-3.9	-2.6	-2.6
	저축성	보험료	12,224	2,851	4,694	7,216	13,715	28,476	10,294	9,082
		증가율	141.8	-4.0	35.0	125.3	432.9	132.9	261.0	218.5
	통합형	보험료	409	102	157	146	198	603	153	153
		증가율	-45.5	-2.4	48.1	51.1	94.6	47.5	49.7	49.7
	자산 연계형	보험료	-7	0	0	-2	0	-2	0	0
		증가율	-101.9	-99.7	-95.0	1,013.8	-100.0	-70.5	-84.9	-84.9
	소 계	보험료	17,509	4,145	6,025	8,609	15,269	34,048	11,811	10,543
		증가율	51.3	-0.7	27.4	90.6	273.6	94.5	184.9	154.3
계속 보험료	상 해	보험료	72,480	19,902	19,727	20,663	21,286	81,578	22,467	22,158
		증가율	17.3	16.0	10.8	11.9	11.7	12.6	12.9	11.3
	운전자	보험료	21,997	5,683	5,646	5,607	5,566	22,502	6,046	5,552
		증가율	10.1	4.4	2.6	1.3	0.9	2.3	6.4	-2.3
	재 물	보험료	20,692	5,909	6,996	7,120	7,403	27,428	8,916	7,693
		증가율	15.3	23.6	40.4	34.3	31.5	32.6	50.9	30.2
	질 병	보험료	55,417	14,951	15,248	15,440	15,701	61,340	16,124	16,124
		증가율	15.3	12.5	12.2	9.4	8.9	10.7	7.8	7.8
	저축성	보험료	50,317	15,031	16,293	18,009	19,657	68,989	21,143	21,018
		증가율	47.7	36.0	35.3	35.0	41.5	37.1	40.7	39.8
	통합형	보험료	42,340	10,975	11,031	11,254	11,554	44,813	11,773	11,773
		증가율	8.7	4.6	4.9	5.8	8.0	5.8	7.3	7.3
	자산 연계형	보험료	1,062	222	201	175	136	734	103	103
		증가율	73.9	-19.1	-31.2	-31.9	-43.0	-30.9	-53.6	-53.6
	소 계	보험료	264,304	72,672	75,141	78,267	81,303	307,384	86,571	84,421
		증가율	19.4	16.3	16.1	15.7	17.0	16.3	19.1	16.2

주: 기간별 수치는 분기별 실적이며, 자산연계형은 FY2009 3/4분기부터 초회와 계속보험료로 구분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2 1/4분기 누적 기준 장기손해보험 해지율은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 증가율이 보유계약액 증가율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한 3.4%를 기록함.

○ 저축성보험 해지율은 지속적인 고성장에 따른 보유계약액 증가로 0.2%p 하락하였으며, 상해 및 질병보험 해지율도 안정적인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각각 0.1%p씩 하락함.

○ 반면, 운전자보험과 재물보험 해지율은 신규 판매가 확대되었으나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증가하여 각각 0.2%p, 0.1%p 상승함.

〈표 20〉 장기손해보험 해지율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4/4	1/4	2/4	3/4	4/4	4/4
상 해	12.4	3.2	5.6	8.0	10.5	3.1
운전자	14.3	3.0	5.8	8.4	11.1	3.2
재 물	14.8	5.0	10.8	15.1	18.8	5.1
질 병	11.9	3.2	6.1	8.8	11.4	3.1
저축성	14.7	3.7	7.1	10.4	13.6	3.5
통합형	9.9	2.3	4.4	6.7	8.9	2.6
계	12.9	3.3	6.4	9.3	12.1	3.4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연금부문(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 FY2012 1/4분기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의 꾸준한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4.4% 증가한 1조 6,375억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 상향 조정[2)]으로 인한 판매 증가로 29.9% 늘어난 9,857억 원을 기록함.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퇴직보험 종료에 따른 퇴직연금 신규 전환효과가 소멸됨에 따라 4.8% 증가에 그친 6,516억 원을 기록함.

2)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011년 1월부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됨.

〈표 21〉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개인연금	보험료	6,908	24,697	7,586	8,200	9,145	9,343	34,273	9,857
	증가율	33.6	38.4	37.2	40.9	41.9	35.2	38.8	29.9
	구성비	56.5	46.1	53.0	79.0	32.6	66.2	51.2	60.2
퇴직보험	보험료	111	5,284	516	4	92	224	835	1
	증가율	-80.7	-39.1	-46.3	-98.6	-97.7	102.3	-84.2	-99.8
	구성비	0.9	9.9	3.6	0.0	0.3	1.6	1.2	0.0
퇴직연금	보험료	5,218	23,616	6,218	2,169	18,857	4,547	31,791	6,516
	증가율	161.7	190.9	160.7	93.2	26.6	-12.8	34.6	4.8
	구성비	42.6	44.1	43.4	20.9	67.1	32.2	47.5	39.8
합계	보험료	12,236	53,598	14,320	10,373	28,094	14,114	66,900	16,375
	증가율	58.2	54.7	61.4	43.8	11.2	15.3	24.8	14.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연금부문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동차보험

■ FY2012 1/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요율 조정으로 대인배상Ⅰ과 자차담보 보험료가 인하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한 3조 2,615억 원을 기록함.

- ○ 대인배상Ⅰ 원수보험료는 요율 인하와 주행거리연동 특약 등의 영향으로 개인용 물건과 업무용 물건이 감소하여 4.6% 줄어든 8,111억 원을 시현함.
-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차량 대형화 및 고급화로 대물 담보 증가세는 유지되었으나 손해율 개선에 따른 요율 인하의 영향으로 자차 담보가 감소함에 따라 3.3% 증가한 2조 2,923억 원에 그침.

〈표 22〉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대인Ⅰ		8,545	34,613	8,502	8,584	8,311	8,028	33,426	8,111
		3.6	1.2	-0.4	-1.7	-5.5	-6.0	-3.4	-4.6
종합보험	대인Ⅱ	3,211	12,914	3,247	3,402	3,360	3,313	13,323	3,288
		3.9	4.3	1.9	4.7	2.9	3.2	3.2	1.3
	대물	8,851	33,679	8,979	9,535	9,857	9,970	38,342	10,280
		17.3	14.2	14.5	16.4	12.0	12.6	13.8	14.5
	자차	9,042	33,173	8,575	8,754	8,455	8,453	34,237	7,973
		26.8	22.5	16.0	9.4	-3.2	-6.5	3.2	-7.0
	자손	1,125	4,394	1,115	1,177	1,164	1,117	4,572	1,128
		10.7	10.2	5.8	9.2	2.4	-0.8	4.1	1.2
	무보험	282	1,139	272	279	265	258	1,074	254
		2.8	2.6	-2.9	-3.0	-8.5	-8.4	-5.7	-6.4
	소계	22,512	85,299	22,188	23,148	23,101	23,111	91,548	22,923
		18.1	15.2	12.3	11.3	3.9	2.7	7.3	3.3
외화표시		20	102	27	30	39	25	122	30
		-0.6	-5.9	0.4	47.8	14.3	23.9	19.2	9.9
이륜자동차		128	569	173	164	149	151	637	268
		16.5	11.6	10.3	13.0	7.9	17.9	12.1	54.6
기타		938	3,552	1,087	1,202	1,202	1,191	4,682	1,284
		15.2	6.0	30.7	36.8	33.1	27.0	31.8	18.1
합계		32,143	124,134	31,977	33,128	32,803	32,507	130,415	32,615
		13.8	10.6	9.1	8.3	2.2	1.1	5.1	2.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Ⅰ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2 1/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대인배상Ⅰ 손해율 악화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전년동기대비 1.4%p 하락한 78.2%를 나타냄.

○ 대인배상Ⅰ 손해율은 요율 조정으로 경과보험료가 줄어든 반면 발생손해액은 증가하여 9.4%p 높아진 82.6%를 시현함.

○ 종합보험 손해율은 '자기부담금 정률제' 등 손해율 개선 노력으로 자차 담보 손해율이 하락함에 따라 5.0%p 낮아진 77.3%를 기록함.

〈표 23〉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대인Ⅰ		65.9	73.5	73.2	80.4	90.5	81.3	81.3	82.6
종합보험	대인Ⅱ	80.0	74.6	86.5	88.9	91.2	88.1	88.7	101.8
	대물	80.7	86.1	87.5	89.6	93.2	88.7	89.8	85.4
	자차	84.0	86.5	78.7	79.0	70.4	66.8	73.7	59.6
	자손	77.9	77.2	66.0	72.5	91.0	90.3	80.1	73.0
	무보험	42.9	34.6	47.6	60.6	68.3	64.6	60.1	50.6
	소계	81.2	83.2	82.3	84.1	83.7	80.1	82.6	77.3
외화표시		71.7	71.5	71.9	84.4	87.8	54.9	75.0	71.2
이륜자동차		64.4	85.4	89.2	92.2	89.7	81.9	88.3	95.9
기타		84.4	81.0	74.4	85.1	81.6	79.9	80.4	65.3
합계		77.1	80.3	79.6	83.2	85.4	80.4	82.2	78.2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손해율이며, FY2011부터 IFRS가 적용됨
2)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임
3)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Ⅰ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4)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일반손해보험

■ FY2012 1/4분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해상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의 두 자릿수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2조 593억 원을 기록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포함되어 주택물건과 일반물건이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25.3% 증가한 782억 원을 시현함.

- 전체 화재보험에서 농협손해보험 화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이며,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0.7% 증가에 그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적하보험과 항공보험이 물동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각각 11.9%, 10.7% 증가하였으나 비중이 큰 선박보험이 선박수주 실적 둔화 등으로 15.2% 줄어듦에 따라 전체 1.5% 감소한 2,356억 원을 시현함.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이행보증 및 통신 관련 신용보험 고성장이 계속되면서 15.1% 증가한 4,081억 원을 기록함.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책임 및 상해보험의 양호한 증가세와 기타 특종보험[3)]의 고성장으로 18.9% 증가한 1조 2,377억 원을 시현함.

- 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배상책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일반배상 및 생산물 책임보험이 각각 26.4%, 12.8% 늘어남에 따라 12.6% 증가한 2,070억 원을 나타냄.

-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의료비 상승 및 근로자 복지확대 추세 등의 영향으로 일반 및 단체상해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11.7% 증가한 3,328억 원을 시현함.

- 기타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 진입에 따른 도난 물건 증가 등에 힘입어 134.8%나 늘어난 1,964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하였을 경우 87.8% 증가함.

---

3) 다른 손해보험 종목에 편입되지 않는 도난, 원자력, 상금 보상 등의 기타 물건을 의미함.

〈표 24〉 일반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1/4 (농협제외)
화 재	보험료	2,660	624	598	758	656	2,636	782	629
	증가율	-3.7	0.4	-0.7	-2.7	-0.2	-0.9	25.3	0.7
	구성비	4.2	3.5	3.5	4.1	3.7	3.7	3.8	3.2
해 상	보험료	7,721	2,393	2,138	1,833	2,335	8,699	2,356	2,342
	증가율	-4.1	14.8	8.5	-5.5	35.2	12.7	-1.5	-2.1
	구성비	12.3	13.6	12.4	10.0	13.3	12.3	11.4	11.9
보 증	보험료	13,074	3,547	3,634	3,908	4,083	15,172	4,081	4,056
	증가율	6.4	11.0	22.0	14.4	17.2	16.1	15.1	14.4
	구성비	20.8	20.1	21.0	21.3	23.2	21.4	19.8	20.6
특 종	보험료	37,120	10,409	10,270	11,026	9,525	41,230	12,377	11,654
	증가율	11.5	7.7	13.7	10.8	12.5	11.1	18.9	12.0
	구성비	59.0	59.1	59.3	60.0	54.1	58.2	60.1	59.2
해 외 원보험	보험료	2,326	636	667	854	1,007	3,164	997	997
	증가율	11.9	46.9	17.4	21.8	61.6	36.1	56.6	56.6
	구성비	3.7	3.6	3.9	4.6	5.7	4.5	4.8	5.1
합계	보험료	62,901	17,608	17,307	18,380	17,606	70,901	20,593	19,677
	증가율	7.6	10.1	14.2	9.5	17.7	12.7	16.9	11.7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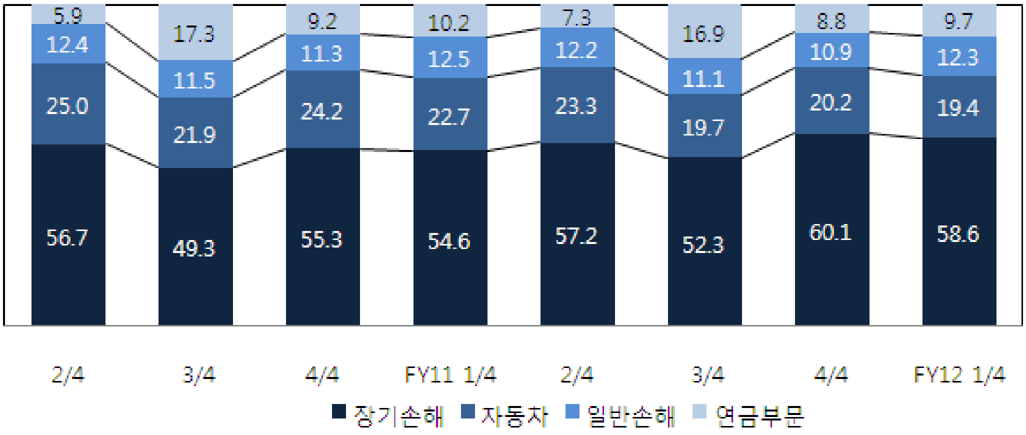
■ FY2012 1/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장기손해보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확대된 반면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연금보험 비중은 모두 전년동기대비 축소됨.

○ 장기손해보험 비중은 저축성보험 고성장으로 4.0%p 증가한 58.6%를 기록하였으나, 자동차보험 비중은 요율 인하에 따른 자동차보험 저성장으로 3.3%p나 축소된 19.4%를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과 연금부문 비중은 모두 양호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상대적인 고성장으로 각각 0.2%p, 0.5%p 축소된 12.3%, 9.7%를 나타냄.

〈그림 7〉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단위: %)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2 1/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기타 국내사 점유율이 전년 동기대비 늘어난 반면 상위 4사, 전업사, 외국사 점유율이 축소되었으며, 허핀달지수는 0.0086 감소한 0.1434를 기록함.

○ 상위 4사 점유율은 주력 상품인 저축성보험과 연금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협손해보험 시장 진입에 따른 기타 국내사 비중 증가로 1.4%p 축소된 69.8%를 기록함.

○ 기타 국내사 점유율은 전체 손해보험에서 2.6%를 차지하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포함됨에 따라 1.9%p 확대된 25.5%를 나타냄.

○ 전업사 및 외국사의 점유율은 기타 국내사 점유율 확대로 각각 0.1%p, 0.5%p 낮아진 2.4%, 2.2%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외국사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표 25〉 손해보험산업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1/4 (농협제외)
상위 4사	69.9	71.2	70.8	72.5	72.2	71.7	69.8	71.7
국내 기타사	24.7	23.6	23.8	22.8	22.9	23.3	25.5	23.5
전업사	2.5	2.5	2.6	2.4	2.5	2.5	2.4	2.5
외국사	2.9	2.7	2.9	2.3	2.4	2.6	2.2	2.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2.9	2.6	2.8	2.3	2.3	2.5	2.1	2.2
허핀달지수	0.1471	0.1520	0.1488	0.1504	0.1492	0.1501	0.1434	0.1504

주: 1) 국내 기타사에는 국내 중소형사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사가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국내 및 외국계 재보사를 포함함. 외국사는 차티스(舊 AIG), ACE, 페더럴,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미쓰이스미토모뿐만 아니라 AXA손보, 에르고다음다이렉트와 같은 외국계 온라인사도 포함되었음. 온라인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음다이렉트, AXA손보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임

2) 허핀달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Ⅰ, Ⅱ를 모두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12 1/4분기 손해보험 손해율은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의 손해율 악화로 전년동기대비 2.2%p 상승한 80.4%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정부와 손해보험업계의 손해율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발생손해액이 소폭 증가(1.7%)에 그치면서 1.4%p 개선된 78.2%를 기록함.

○ 그러나 장기손해보험(2.6%p 상승)을 비롯하여 대부분 종목의 손해율은 악화됨.

■ FY2012 1/4분기 사업비율은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0.1%p 낮아진 18.2%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순사업비가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 증가로 26.7% 증가하였으나 보유보험료도 28.0%나 증가함에 따라 0.2%p 낮아진 16.6%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최근 실적 부진으로 보유보험료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0.1%p 상승한 20.8%를 시현함.

■ FY2012 1/4분기 합산비율은 발생손해액 증가로 인한 손해율 상승으로 2.1%p 상승한 98.6%를 기록함.

〈표 26〉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손해율	장기손해보험	80.5	81.2	81.7	82.6	83.2	84.6	83.1	84.3
	자동차보험	77.1	80.3	79.6	83.3	85.4	80.6	82.2	78.2
	화재보험	300.2	38.8	47.4	61.0	66.3	62.6	59.0	59.1
	해상보험	109.6	83.7	58.7	42.2	63.5	60.2	57.2	64.3
	보증보험	33.8	9.2	43.9	43.0	65.0	67.5	55.0	61.0
	특종보험	66.4	62.2	61.6	69.2	70.9	69.6	68.0	61.1
	해외원보험	41.9	41.1	43.5	56.6	53.8	55.5	53.3	53.6
	해외수재보험	69.9	68.4	54.4	78.5	112.1	131.0	95.0	65.5
	전체	77.8	77.6	78.2	80.7	82.7	82.8	81.2	80.4
사업비율		22.3	22.0	18.3	18.2	18.1	18.9	18.4	18.2
합산비율		100.1	99.6	96.5	98.9	100.8	101.7	99.6	98.6

주: 1)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이며, FY2011부터 IFRS가 적용됨.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3)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2 1/4분기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투자영업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에서 적자를 기록하며 크게 하락하여 전년동기대비 15.9% 감소한 8,098억 원의 흑자를 시현함(농협손해보험 제외 시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6.4% 감소한 8,053억 원임).

○ 보험영업에서는 신계약과 계속보험료의 성장세에 힘입어 장기성보험의 성장 지속으로 보험영업수익이 21.6% 증가하였으나, 환급금, 사업비와 보험료적립금 증가로 보험영업비용도 24.1% 증가함에 따라 219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전분기대비 적자폭이 축소됨(농협손해보험 제외 시 보험영업이익은 5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함).

○ 투자영업에서는 이자수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평가이익 및 대손충당금 환입의 증가로 투자영업수익이 3.7% 증가하였으나, 유가증권 처분 및 평가손실 등 투자영업비용도 10.3% 감소하여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한 1조 1,146억 원 흑자를 기록함(농협손해보험 제외 시 투자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7.4% 감소한 1조 939억 원임).

〈표 27〉 손해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1/4 (농협제외)
총수익	보험영업	47,615	12,899	13,624	14,358	15,349	56,229	15,681	15,310
	투자영업	4,740	1,439	1,646	1,158	1,342	5,584	1,491	1,470
	기타	3,345	244	255	708	367	1,574	492	491
	소계	55,700	14,582	15,525	16,224	17,058	63,388	17,664	17,272
총비용	보험영업	48,204	12,651	13,676	14,613	15,853	56,795	15,703	15,316
	투자영업	1,005	420	693	155	262	1,529	377	376
	기 타	3,351	268	279	752	407	1,705	523	524
	소계	52,560	13,339	14,648	15,520	16,522	60,030	16,602	16,216
수지차	보험영업	-589	247	-53	-255	-504	-566	-22	-6
	투자영업	3,735	1,019	953	1,003	1,080	4,055	1,115	1,094
	기타	-5	-23	-23	-44	-40	-131	-32	-33
	소계	3,140	1,243	877	704	536	3,358	1,061	1,055
법인세		710	280	230	232	165	906	251	250
당기순이익		2,031	963	647	472	371	2,452	810	805
		(31.8)	(8.6)	(64.4)	(80.4)	(-24.2)	(20.7)	(-15.9)	(-16.4)

주: 1) 기간별 수치는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실적임
2)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운용〉

■ FY2012 1/4분기 일반계정 자산 기준 운용자산별 비중은 유가증권 51.1%, 대출채권 18.1%, 현금과예금 6.8%, 부동산 4.8% 순임.

○ 유가증권의 항목별 비중은 매도가능증권 42.4%, 만기보유증권 3.8%, 당기손익인식증권 3.3%,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5% 순으로 나타남.

○ 일반계정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줄어들었으나, 현금과예금, 유가증권, 대출채권의 비중은 확대됨.

■ FY2012 1/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운용자산이익률은 현금과예금 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으나, 운용자산의 비중이 높은 유가증권 이익률이 하락하면서 0.6%p 하락한 4.3%를 기록함.

○ 유가증권 중 당기손익인식증권, 만기보유증권의 이익률이 상승했으나 매도가능증권,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이익률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전체 유가증권 이익률은 1.2%p 하락한 4.1%를 기록함.

○ 현금과예금 이익률은 1.2%p 상승하여 3.8%를 시현한 반면, 부동산은 0.2%p 하락한 1.3%를 나타냄.

〈표 28〉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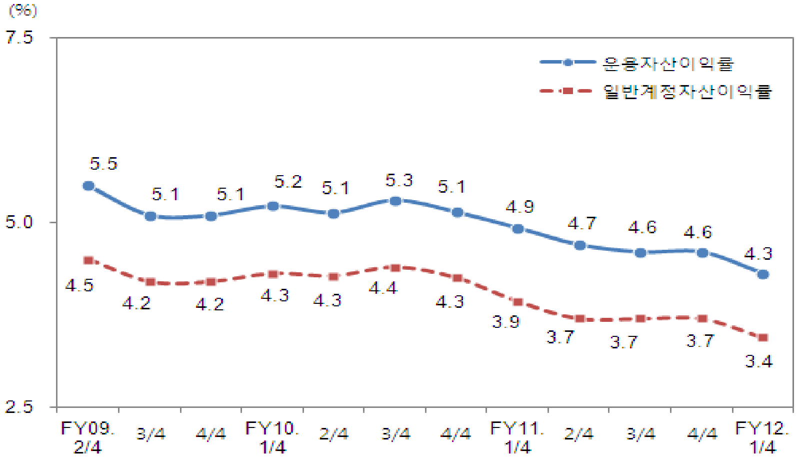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1/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금과예금	5.8	2.6	5.7	5.3	6.0	3.8	6.3	3.6	6.8	3.8
유가증권	50.2	5.3	49.9	4.7	49.9	4.6	51.0	4.7	51.1	4.1
○ 당기손익인식증권[3)]	3.9	2.8	4.0	-0.7	3.7	1.2	3.7	2.1	3.3	3.3
- 주 식	0.5	-4.1	0.3	-32.4	0.3	-25.1	0.2	-17.1	0.1	-21.3
- 채 권 등	1.2	4.7	1.4	8.0	1.2	7.7	2.1	5.0	2.0	4.9
- 수익증권	2.2	3.1	2.4	-0.3	2.3	2.2	1.4	2.1	1.3	3.6
○ 매도가능증권	41.9	5.4	41.6	5.2	41.8	5.0	42.7	4.9	42.4	4.2
- 주 식	4.1	6.1	3.7	2.1	4.1	1.9	4.5	2.9	4.2	-0.3
- 채 권 등	28.9	5.2	28.8	5.7	28.9	5.4	35.0	5.3	34.7	4.9
- 수익증권	9.0	6.0	9.1	5.1	8.8	5.0	3.2	3.6	3.5	3.4
○ 만기보유증권	3.1	5.1	3.0	5.4	3.1	5.4	3.0	5.5	3.8	5.4
- 채 권 등	2.9	5.2	2.8	5.4	2.8	5.4	3.0	5.5	3.8	5.4
- 수익증권	0.2	4.1	0.3	6.2	0.3	5.1	0.0	0.0	0.0	0.0
○ 투자주식[4)]	1.3	7.2	1.2	4.4	1.4	3.1	1.5	2.7	1.5	-0.2
대출채권	17.6	5.8	18.5	5.6	18.7	5.7	18.5	5.8	18.1	5.8
부동산	5.6	1.5	5.4	1.4	5.3	1.3	5.0	1.3	4.8	1.3
운용자산	79.1	4.9	79.6	4.7	80.0	4.6	80.7	4.6	80.7	4.3
비운용자산	20.9	0.0	20.4	-0.1	20.0	0.0	19.3	0.0	19.3	-0.1
일반계정자산	100.0	3.9	100.0	3.7	100.0	3.7	100.0	3.7	100.0	3.4
일반계정자산	96.3	3.9	96.7	3.7	96.6	3.7	96.2	3.7	96.3	3.4
특별계정자산	3.7	-	3.3	-	3.4	0.0	3.8	0.0	3.7	0.0
총자산	100.0	3.7	100.0	3.6	100.0	3.5	100.0	3.5	100.0	3.3
총자산 규모	1,127,714		1,164,544		1,232,944		1,298,013		1,385,178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환산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1 1/4 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명칭이 변경됨
4) 투자주식은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임

자료: 손해보험회사,『업무보고서』, 각 월호

■ 기준금리 하락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FY2012 1/4분기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한 3.4%로 나타남.

〈그림 8〉 운용자산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 추이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업무보고서』, 각 월호

〈수익성〉

1) 자본이익률(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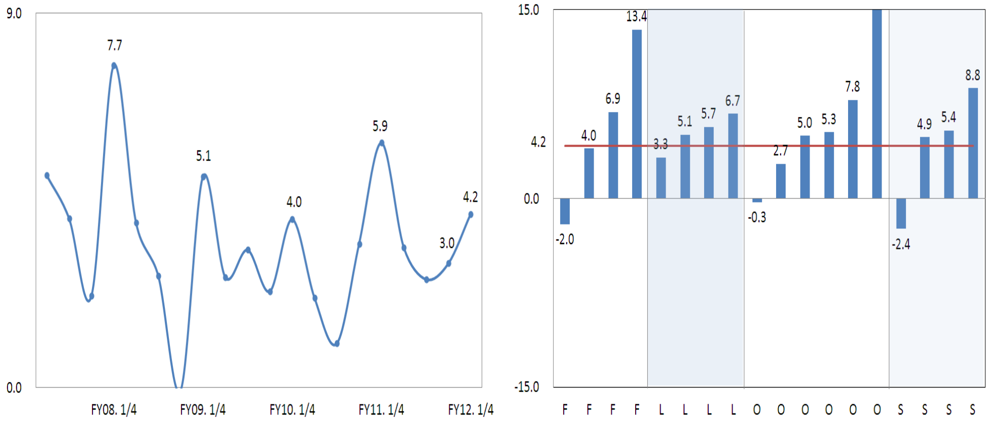
■ FY2012 1/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원수보험료는 크게 증가했으나 당기순이익이 하락하여 1.7%p 하락한 4.2%를 기록한 반면, 전분기대비로는 1.2%p 상승함.

○ 대형사는 모두 양(+)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하였으나, 일부 중소형사, 외국사, 전업사는 당기순손실로 음(-)의 자본이익률을 시현함.

4)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R_t/E_t^o: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을 매출이익률(R_t/S_t: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자산회전율(S_t/A_t^o: 기중자산대비 매출액), 레버리지비율(A_t^o/E_t^o: 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로 분해하여 분석하며, 분석대상은 이번 분기부터 농협손해보험의 진입으로 국내외 18개 회사임.

〈그림 9〉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 현황

(단위: %)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2 1/4분기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1/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에서는 전업사만이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으나, 전분기대비 당기순이익이 개선되면서 모든 그룹이 상승함.

○ 대형사의 자본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1.5%p 하락한 4.3%를 기록하였으며,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자본이익률은 보험영업이익 악화로 당기순이익이 하락하여 전년동기대비 하락함.

○ 한편, 전업사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이 개선되면서 전년동기대비 0.7%p 개선되었으며, 전분기대비로도 대폭 개선되면서 5.4%를 기록함.

〈표 29〉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추이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4/4	연간[2]	1/4	2/4	3/4	4/4	연간	1/4
대형사	4.3	14.8	5.8	3.8	2.7	3.6	17.6	4.3
중소형사	1.4	3.1	6.3	0.8	2.8	-0.4	9.9	3.4 (3.5)
외국사	-2.2	-1.8	9.1	3.3	3.6	0.5	20.9	2.6
전업사	-8.9	-31.4	4.7	2.8	-2.4	-0.6	4.2	5.4
전체	3.5	11.3	5.9	3.4	2.6	3.0	16.4	4.2 (4.2)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3) FY2011 4/4분기까지는 17개사, FY2012 1/4분기는 농협손해보험 포함하여 18개사임
4) ( ) 안은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한 자본이익률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1/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자본이익률은 매출이익률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대형사는 전년동기대비로는 자산회전율과 매출이익률 하락으로 자본이익률이 하락한 반면, 전분기대비로는 매출이익률과 레버리지비율 증가로 자본이익률도 상승함.

○ 중소형사, 외국사는 매출이익률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자본이익률이 하락하였으나, 전업사는 매출이익률의 개선으로 자본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모두 상승함.

〈표 30〉 손해보험산업 그룹별 자본이익률 분해

(단위: 배, %)

구분	레버리지비율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		
	FY2011 1/4	FY2011 4/4	FY2012 1/4	FY2011 1/4	FY2011 4/4	FY2012 1/4	FY2011 1/4	FY2011 4/4	FY2012 1/4
대형사	6.7	6.5	6.7	13.7	13.8	13.1	6.3	4.0	4.9
중소형사	13.7	14.0	13.9	15.4	14.2	14.8	3.0	-0.2	1.7
외국사	3.1	2.4	2.4	24.6	23.0	23.2	11.9	0.9	4.7
전업사	4.8	4.9	4.6	19.8	17.4	17.5	4.9	-0.7	6.7
전체	7.5	7.3	7.4	14.2	14.0	13.5	5.5	2.9	4.1

주: 1) 레버리지비율(배) = 기중자산 / 기중자본
2)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3)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① 레버리지비율(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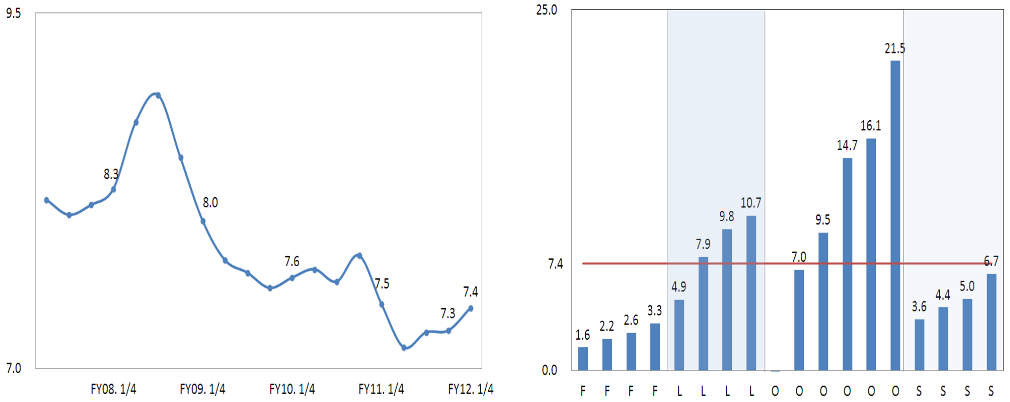
■ FY2012 1/4분기 손해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은 7.4배로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으나, 전분기대비 상승함.

○ 손해보험회사 그룹별로는 대부분의 중소형사 및 대형사가 산업평균수준(7.4배)을 상회하고 있으나, 외국사 및 전업사들은 평균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 음(-)의 레버리지비율을 기록한 중소형사도 있음.

〈그림 10〉 손해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 현황

(단위: 배)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2 1/4분기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레버리지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1/4분기 손해보험 그룹별 레버리지비율을 전년동기대비와 비교하면 중소형사만 상승하였고, 전분기의 경우에는 대형사만 상승함.

○ 중소형사의 경우 자산증가로 전년동기대비 레버리지비율이 상승하였으며, 자본증가로 전분기대비 레버리지 비율이 하락함.

○ 외국사, 전업사의 경우 자본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높아 전년동기대비 레버리지 비율이 하락함.

〈표 31〉 손해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배)

구분	FY2010		FY2011					FY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대형사	7.1	7.4	6.7	6.5	6.6	6.5	7.1	6.7
중소형사	12.8	12.8	13.7	13.3	13.4	14.0	14.7	13.9
외국사	4.4	4.4	3.1	2.5	2.4	2.4	3.0	2.4
전업사	4.9	4.5	4.8	4.9	4.9	4.9	4.7	4.6
전체	7.8	8.0	7.5	7.1	7.3	7.3	7.9	7.4

주: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32〉 FY2012 1/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산 및 자본증가율

(단위: %)

구분	자산증가율[1)]		자본증가율[1)]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대형사	22.6	5.2	14.8	0.5
중소형사	32.5 (21.8)	15.1 (5.8)	31.1 (10.0)	22.1 (2.4)
외국사	5.4	2.5	9.0	2.5
전업사	4.0	-0.5	14.9	5.5
전체	24.3 (22.0)	7.2 (5.2)	15.3 (14.1)	3.0 (0.9)

주: 1) 손해보험회사의 자산 및 자본증가율은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 국내외 18개사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2) ( ) 안은 농협손해보험을 제외한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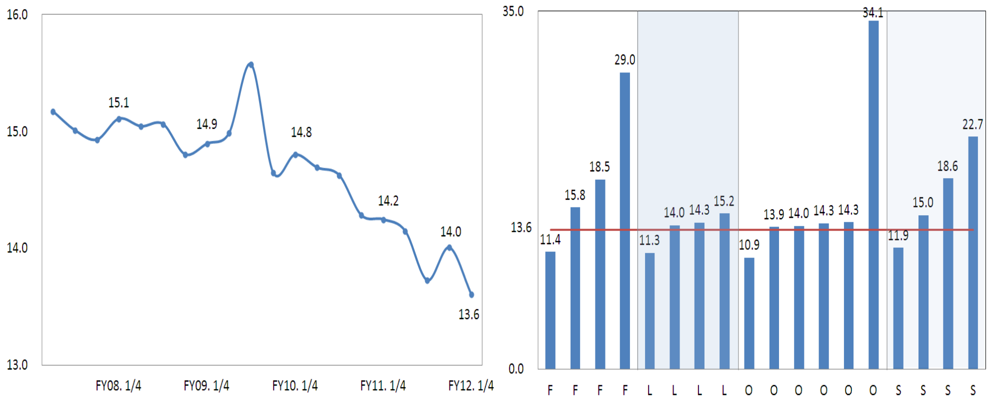
② 자산회전율(기중자산대비 매출액)

■ FY2012 1/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산회전율은 13.6%로 전분기(0.4%p하락)에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하다 다시 하락하기 시작함.

○ 일부 외국사와 전업사의 높은 자산회전율은 산업평균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음.

〈그림 11〉 손해보험산업 자산회전율 현황

(단위: %)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2 1/4분기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산회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1/4분기 손해보험산업 보험영업회전율과 투자영업회전율은 각각 12.4%, 1.2%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의 자산회전율이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이유는 보험영업회전율과 투자영업회전율이 모두 하락하였기 때문임.

○ 외국사와 전업사의 보험영업회전율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4%p, 2.2%p로 하락폭이 크지만, 타 그룹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표 33〉 손해보험산업 자산회전율 분해

(단위: %)

구분	자산회전율			보험영업회전율			투자영업회전율		
	FY2011 1/4	FY2011 4/4	FY2012 1/4	FY2011 1/4	FY2011 4/4	FY2012 1/4	FY2011 1/4	FY2011 4/4	FY2012 1/4
대형사	13.7	13.8	13.1	12.2	12.7	11.9	1.5	1.1	1.2
중소형사	15.4	14.2	14.8	14.1	13.1	13.6	1.3	1.1	1.2
외국사	24.6	23.0	23.2	23.9	22.3	22.5	0.7	0.7	0.7
전업사	19.8	17.4	17.5	18.8	16.6	16.6	1.0	0.8	0.8
국내외 17개사	14.2	14.0	13.6	12.8	12.9	12.4	1.4	1.1	1.2

주 : 1)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2) 보험영업회전율 = 보험영업수익 / 기중자산
3) 투자영업회전율 = 투자영업수익 / 기중자산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③ 매출이익률(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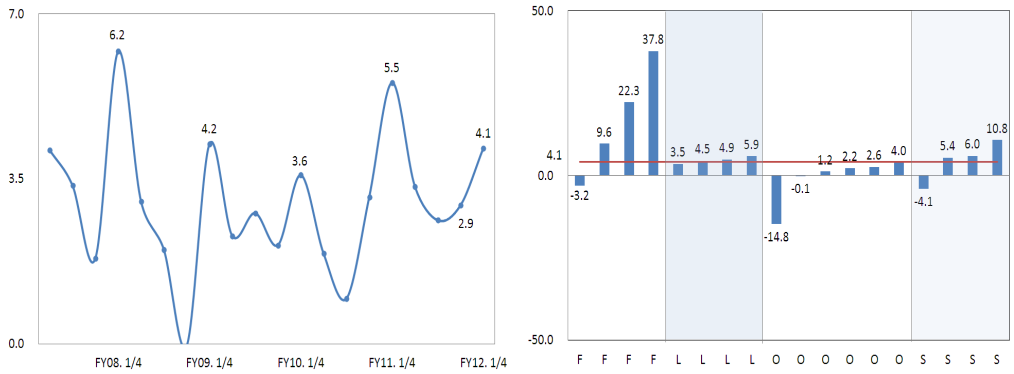
■ FY2012 1/4분기 손해보험산업 매출이익률은 4.1%로 나타나 전년동기대비 1.4%p 하락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1.2%p 상승함.

○ 이는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대형사와 외국사의 매출이익률은 모두 양(+)의 값을 기록하였으나, 대다수 중소형사는 산업평균수준(4.1%)을 크게 하회하는 음(-)의 매출이익률을 나타냄.

〈그림 12〉 손해보험산업 매출이익률 현황

(단위: %)



주 : 1) 오른쪽 그림은 FY2012 1/4분기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매출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2 1/4분기 손해보험산업 투자영업이익률은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반면, 보험영업이익률은 1.7%p 상승하여 보험영업이익률 상승이 매출이익률 상승을 주도함.

○ 보험영업이익률의 경우 모든 그룹이 전분기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대형사, 중소형사는 음(-)의 보험영업이익률을 기록함.

○ 한편,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투자영업이익률 하락으로 손해보험산업 전체 투자영업이익률도 전분기대비 하락함.

〈표 34〉 손해보험산업 매출이익률 분해

(단위: %)

구분	매출이익률			보험영업			투자영업		
	FY2011 1/4	FY2011 4/4	FY2012 1/4	FY2011 1/4	FY2011 4/4	FY2012 1/4	FY2011 1/4	FY2011 4/4	FY2012 1/4
대형사	6.3	4.0	4.9	0.8	-1.5	-0.2	7.6	7.0	6.9
중소형사	3.0	-0.2	1.7	-1.8	-5.9	-3.4	5.7	6.0	5.7
외국사	11.9	0.9	4.7	10.6	-0.7	3.7	2.9	2.8	3.0
전업사	4.9	-0.7	6.7	1.5	-4.7	3.5	4.5	4.1	4.2
국내외 17개사	5.5	2.9	4.1	0.4	-2.5	-0.8	7.0	6.7	6.5

주: 1)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이익 + 특별계정이익 - 법인세비용
2) 보험영업이익률 = 보험영업이익 / 영업수익*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3) 투자영업이익률 = 투자영업이익 / 영업수익*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12 1/4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확대된 반면 임직원, 설계사 및 대리점 채널 비중은 축소됨.

- ○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 확대로 5.7%p 증가한 12.2%를 기록함.
- ○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 확대로 임직원 채널 비중은 1.6%p 감소한 14.5%를 기록하였으며, 설계사 및 대리점 채널 비중도 각각 2.6%p, 1.4%p 줄어든 29.7%, 42.8%를 나타냄.

〈표 35〉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농협포함)	1/4 (농협제외)
임직원	81,690	22,603	19,022	34,353	21,138	97,115	24,396	24,311
	15.6	16.1	13.4	20.7	13.1	15.9	14.5	14.9
설계사	168,389	45,467	47,161	48,001	49,012	189,640	49,886	49,695
	32.2	32.3	33.2	28.9	30.5	31.1	29.7	30.4
대리점	232,577	62,156	63,637	68,432	64,971	259,195	71,963	71,963
	44.5	44.2	44.8	41.2	40.4	42.5	42.8	44.0
중개사	4,176	1,107	1,113	1,275	930	4,424	1,113	1,113
	0.8	0.8	0.8	0.8	0.6	0.7	0.7	0.7
방카슈랑스	34,692	9,208	10,824	13,879	24,416	58,327	20,458	16,342
	6.6	6.5	7.6	8.4	15.2	9.6	12.2	10.0
공동인수	922	183	217	214	333	946	148	148
	0.2	0.1	0.2	0.1	0.2	0.2	0.1	0.1
전체	522,445	140,723	141,973	166,153	160,799	609,648	167,964	163,57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원수보험료 실적은 분기치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FY2012 1/4분기 말 임직원 수와 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한 반면 대리점 수는 감소함.

○ 임직원 수는 농협손해보험 임직원 수가 포함되고 비정규직 직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813명 증가한 3만 1,816명을 기록함.

○ 설계사 수는 전속설계사 수가 상위 4사 및 국내 중·소형사[5])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교차설계사 수도 농협손해보험 포함에 힘입어 늘어남에 따라 전체 5,864명 증가한 16만 7,101명을 나타냄.

○ 대리점 수는 대리점 대형화 추세로 법인대리점은 6개 증가하고 개인대리점은 399개 감소하여 전체 393개 줄어든 3만 9,425개를 기록함.

〈표 36〉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0	FY2011				FY2012	
	4/4	1/4	2/4	3/4	4/4	1/4 (농협포함)	1/4 (농협제외)
임직원	28,951	29,537	30,060	30,470	31,003	31,816	31,447
설계사	162,144	161,858	161,129	161,441	161,237	167,101	165,900
전속	84,144	85,372	86,517	87,893	88,179	92,179	92,177
교차	78,000	76,486	74,612	73,548	73,058	74,922	73,723
대리점	41,963	41,519	41,034	40,543	39,818	39,425	39,415
개인	30,091	29,647	29,254	28,670	27,844	27,445	27,440
법인	11,872	11,872	11,780	11,873	11,974	11,980	11,975

주: 교차모집설계사는 FY2008 2/4분기부터 허용되었으나, 설계사의 세분은 FY2008 4/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수록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5)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사를 제외한 국내사를 의미함.

Ⅳ. 해외보험시장 동향

1. 미국 동향[1)]

가. 생명보험

■ 2012년 2/4분기(4~6월) 미국 생명보험 시장규모는 유니버셜보험과 종신보험 증가세가 정기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의 부진을 상쇄하면서 신계약의 연납화 보험료[2)]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4% 증가함.

○ 종신보험은 전년동기대비 9% 증가하면서 2012년 들어 생명보험 상품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명보험 내 비중도 30%를 상회함.

- 종신보험의 인기는 종신보장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유니버셜보험의 연납화 보험료는 인덱스형 유니버셜보험 판매 호조에 힘입어 6%의 증가율을 나타냄.

- 최근 저금리 환경 지속으로 lifetime guarantee 유니버셜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유니버셜보험의 수요는 주가지수에 연동하는 인덱스형 유니버셜보험으로 이동함.
- 인덱스형 유니버셜보험 판매는 2/4분기 37% 증가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까지 29%의 증가를 기록함.

○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연납화 보험료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6% 감소하였고 정기보험 또한 3%의 감소세를 나타냄.

1)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2) 연납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 2012년 2/4분기 누적 점유율은 연납화 보험료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종신보험만이 2011년 말에 비해 확대되었으며, 유니버셜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은 감소함.

○ 종목별 점유율은 유니버셜보험이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종신보험, 정기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이 각각 31%, 20%, 8%를 차지함.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증가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CY2011					CY2012		
	2/4	3/4	4/4	연간		1/4	2/4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비중
유니버셜	1	3	-2	3	42	0	6	41
기타변액	0	0	0	0	0	0	0	0
변액유니버셜	3	34	36	22	9	-1	-6	8
정기	-5	-4	-4	-6	20	1	-3	20
종신	5	10	5	9	29	10	9	31
계	1	6	2	4	100	3	4	100
연납화 보험료	2,415	2,357	2,691	9,812		2,398	2,511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LIMRA(2012. 9),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2년 2/4분기 미국 개인연금 신규보험료는 변액연금과 정액연금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7.9% 감소한 57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3분기 연속 신규보험료 감소세를 지속함.

○ 변액연금 신규보험료는 주가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4.9% 감소하였으나 전분기대비로는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마감하고 4.9% 증가세로 전환됨.

○ 정액연금 신규보험료는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고정형 거치연금이 30%나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13.6% 감소함.

- 정액연금 중에서 인덱스형 연금만이 유일하게 신규보험료 증가를 기록함.

〈표 2〉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CY2010	CY2011					C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변액연금	보험료	140.5	39.5	40.6	39.8	38.0	157.9	36.8	38.6
	증가율	9.8	22.7	15.3	15.0	-1.3	12.4	-6.8	-4.9
	비중	63.2	66.4	65.6	66.2	66.8	66.2	67.2	67.7
정액연금	보험료	81.9	20.0	21.3	20.3	18.9	80.5	18.0	18.4
	증가율	-25.9	3.6	-2.3	-5.1	-2.6	-1.7	-10.0	-13.6
	비중	36.8	33.6	34.4	33.8	33.2	33.8	32.8	32.3
합계	보험료	222.4	59.5	61.9	60.1	56.9	238.4	54.8	57.0
	증가율	-6.8	15.5	8.6	7.3	-1.7	7.2	-7.9	-7.9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LIMRA(2012. 9), *U.S. Individual Annuities*

■ 2012년 2/4분기 개인연금 판매 채널 비중은 독립중개인이 2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전속설계사가 21.8%, 독립설계사가 15.6%, 증권중개인, 은행, 직접판매 등이 각각 14.0%, 13.7%, 9.6%로 나타남.

○ 변액연금은 독립중개인과 전속설계사의 비중이 각각 32.1%, 23.8%로 나타났으며, 정액연금은 독립설계사의 비중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구분	CY2011				CY2012	
	1/4	2/4	3/4	4/4	1/4	2/4
은행	16.3	15.9	14.9	13.4	13.5	13.7
전속설계사	20.3	21.0	21.7	23.0	23.8	21.8
직접판매	7.0	8.0	7.6	8.2	8.8	9.6
독립중개인	22.6	21.0	21.2	22.1	23.2	23.2
독립설계사	15.6	17.0	17.6	16.2	16.3	15.6
증권중개인	15.1	14.9	14.9	14.8	12.6	14.0
기타	3.2	2.2	2.0	2.3	1.8	2.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LIMRA(2012. 9), *U.S. Individual Annuities*

다. 소득보상보험

■ 2012년 2/4분기 소득보상보험의 신규보험료는 Guaranteed Renewable[3])이 감소한 반면 Non-cancellable[4])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함.

○ Guaranteed Renewable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한 반면 Non-cancellable은 5.8% 증가함.

〈표 4〉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천 건, 백만 달러, %)

구분			CY2010	CY2011					CY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계약건수	Guaranteed Renewable	건 수	344.1	107.2	76.0	81.6	83.1	347.9	107.6	67.5
		증가율	9.0	1.4	2.3	-2.5	3.4	1.1	0.4	-11.2
		구성비	71.0	76.2	69.0	66.6	67.1	70.0	75.4	65.9
	Non-cancellable	건 수	140.5	33.4	34.1	40.9	40.8	149.2	35.1	34.9
		증가율	-7.0	8.6	2.9	8.8	4.5	6.2	5.0	2.5
		구성비	29.0	23.8	31.0	33.4	32.9	30.0	24.6	34.1
	전체	건 수	484.6	140.6	110.1	122.5	123.9	497.1	142.7	102.4
		증가율	3.9	3.0	2.5	1.0	3.8	2.6	1.5	-7.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보험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211.1	64.1	48.8	51.5	53.1	217.6	64.5	46.7
		증가율	6.2	6.2	-0.2	1.3	4.2	3.1	0.6	-4.3
		구성비	42.9	49.1	40.0	38.8	39.9	42.0	47.6	37.6
	Non-cancellable	보험료	280.7	66.6	73.1	81.2	80.1	300.9	71.1	77.4
		증가율	-7.0	6.6	9.2	8.3	5.0	7.2	6.8	5.8
		구성비	57.1	50.9	60.0	61.2	60.1	58.0	52.4	62.4
	전체	보험료	491.8	130.7	121.9	132.7	133.2	518.5	135.6	124.0
		증가율	-1.8	6.4	5.2	5.5	4.7	5.4	3.8	1.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LIMRA(2012. 9),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3)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4)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라. 손해보험

■ 2012년 1/4분기[5] 미국 손해보험 보험영업이익은 원수보험료의 증가와 지급보험금 감소로 전년동기에 비해 적자폭이 43억 달러 감소한 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한 1,12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를 제외한 원수보험료는 3.3% 증가함.

○ 지급보험금은 대재해 손실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4% 감소한 756억 달러를 기록함.

- 손해보험의 대재해 손실은 2011년 1/4분기 66억 달러에 비해 32억 달러 감소한 34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미국 내 대재해 손실은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한 반면 해외 거대재해 손실이 제로수준으로 감소함.

○ 합산비율은 지급보험금 감소로 전년동기 103.3%에서 4.2%p 하락한 99.0%를 기록하였으며,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를 제외할 경우 합산비율은 97.6%로 나타남.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의 원수보험료는 17.0% 감소하였고 지급보험금은 6.9%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산비율은 2011년 1/4분기 176.9%에서 40.6%p 상승한 217.5%로 크게 악화됨.

■ 투자영업이익은 이자수입과 배당금 등의 투자영업이익과 실현자본이익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9.2% 감소한 123억 달러로 나타남.

○ 10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2011년 1/4분기 3.5%에서 2012년 1/4분기 2.0%로 하락하는 등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투자영업 이익률도 3.9%에서 3.6%로 하락함.

○ 실현자본이익도 감소하였으나 실현자본이익과 미실현 자본이익을 합한 총 자본이익은 주가상승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배 가량 증가한 144억 달러를 기록함.

---

5) 미국 손해보험산업 데이터는 입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2012년 1/4분기 자료를 사용함.

■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3억 달러 증가한 10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자기자본이익률도 1.6%p 상승한 7.2%를 기록함.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은 FY2011 1/4분기 -17.7%에서 -38.1%로 악화되었으며, 이들을 제외한 손해보험회사들의 자기자본이익률은 2011년 1/4분기 6.1%에서 8.2%로 개선됨.

〈표 5〉 미국 손해보험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CY2011					CY2012
		1/4	2/4	3/4	4/4	연간	1/4
원수보험료	금액	108,589	109,746	115,740	103,073	437,148	112,382
	증가율	3.4	1.6	4.6	3.8	3.2	3.1
지급보험금	금액	78,459	95,404	89,883	80,432	344,178	75,614
	증가율	5.3	22.9	15.8	0.2	10.8	-4.0
보험영업이익	금액	-4,008	-19,262	-10,548	-820	-34,638	294
	증가율	209.7	532.8	1146.8	-73.0	321.6	-107.3
계약자 배당금	금액	456	348	260	780	1,844	521
	증가율	-10.9	34.4	-23.5	-33.7	-19.8	12.8
총 보험영업이익	금액	-4,463	-19,610	-10,808	-1,600	-36,481	-227
	증가율	147.1	493.7	811.3	-62.0	247.0	-94.9
투자영업이익	금액	12,561	12,222	11,681	12,498	48,962	11,656
	증가율	8.4	1.3	2.1	1.6	2.9	-7.5
실현자본이익	금액	984	2,617	1,862	1,718	7,181	685
	증가율	0.3	103.8	-15.4	33.1	22.7	-30.7
총 투자영업이익	금액	13,545	14,839	13,544	14,216	56,144	12,341
	증가율	7.7	11.2	-0.7	4.6	5.1	-9.2
세전 영업이익	금액	8,610	-7,347	2,007	11,540	14,810	11,786
	증가율	-15.6	-181.7	-79.9	31.6	-61.2	36.6
당기순이익	금액	7,807	-3,065	3,221	11,171	19,134	10,141
	증가율	-11.8	-139.5	-68.3	37.5	-45.6	29.6
자기자본(surplus)	금액	564,656	559,058	538,627	550,308	550,308	570,665
	증가율	4.4	4.9	-1.1	-1.6	-1.6	0.7
지급준비금	금액	560,795	574,977	578,117	572,604	572,604	570,645
	증가율	1.4	2.8	3.8	2.1	2.1	1.2
합산비율		103.3	117.6	108.6	103.4	108.2	99.0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세전영업이익 = 총 보험영업이익 + 총 투자영업이익 + 기타이익
자료: III, P/C Insurers' First-Quarter 2012 Results (2012. 6)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장기간병보험,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입수할 수 있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지역의료공급조직(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의료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셜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나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원고 작성에 사용되는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손해보험은 다양한 세부 종목이 존재하나,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 위주로 제시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77개사	85%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1개사	97%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개사	-	LIMRA
U.S. Individual LTC Insurance	24개사	95%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2. 영국 동향[6)]

가.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생명보험 전체〉

■ 2012년 2/4분기 생명보험 전체 보험료[7)] 규모는 130억 4,612만 파운드로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6.7% 감소하였고, 전분기대비 기준으로는 10.0% 증가함.

- ○ 전년동기대비 보험료 감소는 영국 경기침체에 따른 보험수요 감소에 기인함.
  - 2012년 2/4분기 보험료는 '07~'11년 2/4분기 평균 보험료(165억 3,188만 파운드)대비 21.1% 감소하였으며, 이는 '07~'11년 2/4분기 기간 중 '09년 보험료 126억 2,627만 파운드 다음으로 적은 수준임.
- ○ 전분기대비 보험료 증가는 2/4분기에 가장 많이 거수되는 영국 보험시장의 계절적 요인에 기인함.

■ 2/4분기 분할납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7.9% 감소한 13억 6,930만 파운드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07~'11년 2/4분기 기간 중 가장 적은 보험료임.

- ○ 2012년 2/4분기 분할납 보험료는 '07~'11년 2/4분기 평균 분할납 보험료 수준인 15억 2,454만 파운드 대비 10.2% 감소함.
- ○ 분할납 보험시장은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최근 가장 침체된 것으로 나타남.

■ 2/4분기 일시납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2% 감소한 116억 7,681만 파운드를 기록하였는데, '07~'11년 2/4분기 기간 중 '09년 112억 953만 파운드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음.

- ○ 2012년 2/4분기 일시납 보험료는 '07~'11년 2/4분기 평균 보험료(150억 734만 파운드) 대비 22.2% 감소함.
- ○ 일시납 보험시장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최근에 가장 침체된 것으로 나타남.

---

6)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7) 분할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 합계.

〈표 6〉 영국 생명보험 분할납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분할납 신규보험료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9.1	9.1	9.4	7.5	35.0	7.4	6.0
	증가율	-49.1	-46.5	-25.7	-24.6	-38.9	-18.6	-33.7
	구성비	0.6	0.5	0.8	0.6	0.6	0.5	0.4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886.0	1,003.3	800.0	781.6	3,470.9	910.3	914.4
	증가율	21.8	7.2	0.7	7.1	8.9	2.7	-8.9
	구성비	62.3	60.1	65.3	63.6	62.6	67.2	66.8
퇴직연금	보험료	259.0	381.6	154.4	192.8	987.8	160.0	168.2
	증가율	26.6	54.8	-26.6	-22.7	8.4	-38.2	-55.9
	구성비	18.2	22.9	12.6	15.7	17.8	11.8	12.3
역외영업	보험료	10.9	8.7	7.1	5.3	31.9	4.4	3.8
	증가율	38.2	-0.1	-23.6	-51.1	-12.9	-59.7	-56.0
	구성비	0.8	0.5	0.6	0.4	0.6	0.3	0.3
보장성보험	보험료	257.8	265.5	253.3	241.2	1,017.7	272.3	276.9
	증가율	-2.9	-3.6	-2.6	-7.7	-4.2	5.6	4.3
	구성비	18.1	15.9	20.7	19.6	18.4	20.1	20.2
합계	보험료	1,422.7	1,668.1	1,224.2	1,228.4	5,543.3	1,354.4	1,369.3
	증가율	16.3	12.5	-4.9	-2.6	5.5	-4.8	-17.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표 7〉 영국 생명보험 일시납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일시납 신규보험료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2,523.5	2,333.8	2,069.9	2,047.7	8,974.9	1,992.2	2,053.4
	증가율	-6.3	-6.6	-13.9	-19.9	-11.6	-21.1	-12.0
	구성비	22.6	18.9	21.0	15.8	19.4	19.0	17.6
퇴직연금 계좌	보험료	3,984.3	5,033.2	3,785.6	3,244.0	16,047.2	3,859.8	4,915.4
	증가율	-2.0	9.4	12.4	4.0	5.9	-3.1	-2.3
	구성비	35.6	40.9	38.5	25.0	34.7	36.7	42.1
퇴직 연금	보험료	3,072.4	3,400.1	2,270.4	6,403.3	15,146.2	3,432.5	3,551.8
	증가율	14.8	6.0	-7.6	42.6	18.0	11.7	4.5
	구성비	27.5	27.6	23.1	49.4	32.7	32.7	30.4
역외영업	보험료	1,554.3	1,498.1	1,662.8	1,211.4	5,926.7	1,169.4	1,105.6
	증가율	3.4	-14.8	9.4	-25.3	-7.4	-24.8	-26.2
	구성비	13.9	12.2	16.9	9.3	12.8	11.1	9.5
보장성 보험	보험료	53.9	54.3	51.2	55.9	215.3	53.2	50.5
	증가율	-12.6	0.5	-8.5	-3.7	-6.2	-1.2	-7.0
	구성비	0.5	0.4	0.5	0.4	0.5	0.5	0.4
합계	보험료	11,188.5	12,319.6	9,839.9	12,962.3	46,310.3	10,507.1	11,676.8
	증가율	1.7	1.6	0.3	9.4	3.4	-6.1	-5.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투자 · 저축보험 신규보험료〉

■ 2012년 2/4분기 분할납 기준으로 보험료는 모든 종목이 부진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33.7% 감소함.

○ 금액으로는 전년동기대비 310만 파운드 감소하였으며, 이중에서 생사혼합저축보험(endowments savings)과 어린이신탁(stakeholder child trust)[8]보험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1억 파운드 감소함.

■ 같은 기간 일시납 기준 보험료는 유배당채권(with profit bonds)을 제외한 모든 종목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12.0% 감소함.

○ 변액연동채권(unit-linked bonds)은 전년동기대비 3억 3,900만 파운드 감소하였는데 투자 · 저축보험료의 전년동기대비 감소액(2억 8,100만 파운드)을 초과함.

- 변액연동채권의 계약건수는 전년동기대비 9,000건 감소하였고, 판매채널별로는 독립재정자문가(2억 1,500만 파운드)와 전속대리점(1억 2,500만 파운드) 판매가 감소함.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

■ 2012년 2/4분기 퇴직연금계좌 분할납 기준 보험료는 모든 종목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8.9% 감소함.

○ 금액으로는 전년동기대비 8,900만 파운드 감소하였으며, 이중에서 개인퇴직계좌(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s)는 3,700만 파운드 감소함.

- 개인퇴직계좌는 채널별로는 IFA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3,300만 파운드 감소함.

○ 1/4분기 호조를 보였던 단체개인연금계좌(group personal pensions)는 2,800만 파운드 감소함.

- 계약건수는 전년동기대비 31,000건 감소하였고, 채널별로는 전속대리점(3,100만 파운드) 판매가 감소함.

8) 어린이신탁보험의 대부분은 stakeholder 어린이신탁보험임.

■ 일시납 기준으로 퇴직연금계좌 보험료는 개별개인연금계좌(insured self invested personal pensions)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함.

○ 개별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억 4,300만 파운드 감소하였고, 감소금액은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판매 감소액 1억 1,800만 파운드를 초과함.

- 계약건수가 전년동기대비 2,000건 감소하였고, 채널별로는 특히 IFA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1억 3,400만 파운드 감소함.

○ DWP(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에서 지급되는 개인연금(rebate) 역시 전년동기대비 9,300만 파운드 감소함.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 분할납의 경우 경기침체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보험은 퇴직연금으로, 2012년 2/4분기에는 DC형 및 DB형 보험료 모두 줄어들면서 전년동기대비 55.9% 감소함.

○ DC형 퇴직연금은 전년동기대비 67.3% 감소하여, 분할납 퇴직연금 보험료 판매 감소액의 51.4%를 차지함.

- 채널별로는 IFA 판매 감소액이 8,500만 파운드를 기록하여 DC형 퇴직연금 전년동기대비 판매 감소액 1억 1,000만 파운드의 77.3%를 차지함.

○ DB형 퇴직연금은 전년동기대비 71.9% 감소하여, 분할납 퇴직연금 보험료 판매 감소액의 43.0%를 차지함.

- 채널별로는 전속대리점(5,400만 파운드), 직접판매(5,900만 파운드)의 판매 감소가 DB형 퇴직연금 전년동기대비 판매 감소액(9,200만 파운드)을 초과함.

■ 반면, 일시납 퇴직연금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호조세를 유지하여 2012년 2/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함.

○ 경기불황기에도 수익을 보장해주는 맞춤형퇴직연금(trustee investment plans)은 전년동기대비 5억 200만 파운드 증가하여 같은 기간 일시납 퇴직연금 판매액 증가액 1억 5,200만 파운드를 초과함.

- 채널별로는 IFA를 통한 판매가 판매액 증가의 82.1%를 차지함.

○ 일시납 DC형 퇴직연금은 분할납과 마찬가지로 전년동기대비 1억 700만 파운드 감소한 반면, 일시납 DB형 퇴직연금은 경기침체기에도 전년동기대비 9,700만 파운드 증가하였음.

〈역외영업 신규보험료〉

■ 2012년 2/4분기 역외영업 보험료는 분할납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56.0% 감소하여 5분기 연속 감소함.

○ 보험료는 모든 종목에서 부진하여 전년동기대비 500만 파운드 감소함.

■ 일시납 역외영업은 세계경기 둔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보험으로, 2012년 2/4분기 보험료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3억 9,250만 파운드 감소함.

○ 공동투자채권(personal bonds (pooled))[9]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경기불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 전년동기대비 가장 큰 폭인 4억 100만 파운드 감소함.

○ 그밖에 개인채권(personal bonds)과 투자채권(investment funds) 역시 전년동기대비 각각 2,400만 파운드, 1,400만 파운드 감소함.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

■ 분할납의 경우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일하게 호조를 보인 종목은 보장성보험으로, 2012년 2/4분기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함.

○ 정기보험, 종신보험, CI보험 모두 부진한 가운데 단체생명보험(group life)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800만 파운드 증가하였으며, 판매 증가액은 같은 기간 분할납 보장성보험료 증가액 1,200만 파운드를 초과함.

- 단체생명보험의 경우 계약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5,8000건 증가하였고, 채널별로는 IFA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1,300만 파운드 증가함.

---

9) 뮤츄얼 펀드, 투자신탁, Unit Trusts 등과 같은 공동투자 채권임.

■ 2012년 2/4분기 분할납 보장성 보험료의 18.2%에 해당하는 일시납 보장성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0% 감소함.

○ 일시납 보장성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80만 파운드 감소하였으며, 장기간병보험(long term care)은 일시납 보장성보험 중 가장 큰 폭인 200만 파운드 감소하였음.

○ 일시납 보장성보험은 분할납과는 달리 보험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장성보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나. 모집형태별 신규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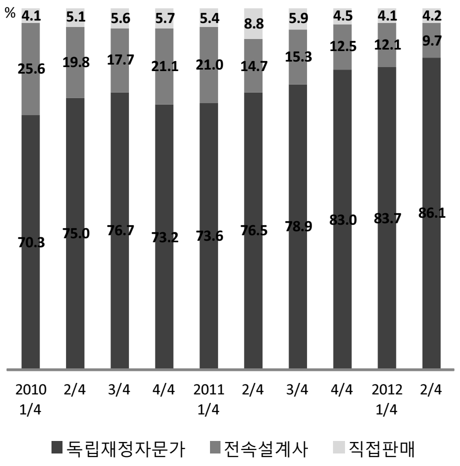
■ 2012년 2/4분기 분할납 기준으로 독립재정자문가(IFA)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직접판매와 전속대리점의 비중은 감소함(〈그림 1〉 참조).

○ 독립재정자문가의 판매 비중은 퇴직연금, 퇴직연금계좌, 개인 보장성보험에서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9.6%p 증가한 86.1%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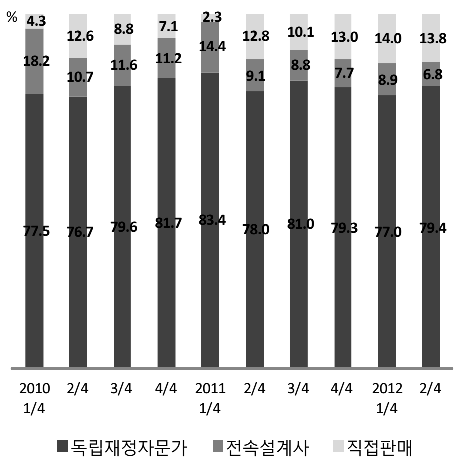
○ 전속대리점의 판매 비중은 퇴직연금, 퇴직연금계좌, 보장성보험에서 줄어들어 전년동기대비 5.0%p 감소한 9.7%를 기록함.

○ 직접판매의 비중은 퇴직연금, 퇴직연금계좌, 개인 보장성보험에서 줄어들어 전년동기대비 4.6%p 감소한 4.2%로 나타남.

〈그림 1〉 판매채널별 분할납 보험료 비중



〈그림 2〉 판매채널별 일시납 보험료 비중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일시납 기준으로 독립재정자문가(IFA)과 직접판매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전속대리점의 비중은 크게 감소함(〈그림 2〉 참조).

○ 독립재정자문가의 판매 비중은 역외영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에서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1.4%p 증가한 79.4%를 기록함.

○ 직접판매의 판매 비중은 퇴직연금과 보장성보험에서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1.0%p 증가한 13.8%를 기록함.

○ 전속대리점의 판매 비중은 역외영업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줄어들어 전년동기대비 2.3%p 감소한 6.8%로 나타남.

■ 반면, 방카슈랑스 채널의 경우 일시납 보험은 유럽의 은행위기와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분할납은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분할납 기준 방카슈랑스 판매는 특히 퇴직연금계좌와 보장성보험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200만 파운드 감소한 8,700만 파운드를 기록함.

○ 일시납 기준 방카슈랑스 판매는 역외영업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의 견조한 판매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판매는 100만 파운드 감소에 그친 11억 6,700만 파운드를 기록함.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신규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s	투자 · 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3. 일본 동향[10)]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12 1/4분기 생명보험 신규계약액은 사망보험을 중심으로 한 개인보험과 개인연금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한 19조 8,363억 엔을 기록함.

〈표 8〉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억 엔, 전년동기대비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개 인		금 액	154,803	174,097	178,917	169,856	677,673	167,733
		증가율	−1.4	2.9	3.9	9.3	3.6	8.4
		구성비	85.1	88.5	85.4	85.3	86.1	84.6
	사 망	금 액	126,306	145,014	146,156	139,434	556,910	137,851
		증가율	−0.4	5.3	3.2	9.9	4.5	9.1
		구성비	69.4	73.7	69.7	70.0	70.7	69.5
	생 사 혼 합	금 액	27,080	27,407	30,885	28,764	114,136	28,775
		증가율	−6.4	−9.5	5.8	5.3	-1.3	6.3
		구성비	14.9	13.9	14.7	14.4	14.5	14.5
	생 존	금 액	1,417	1,676	1,876	1,659	6,628	1,107
		증가율	9.1	34.8	29.6	33.4	26.7	-21.9
		구성비	0.8	0.9	0.9	0.8	0.8	0.6
개인연금		금 액	16,487	18,615	26,131	18,325	79,558	18,472
		증가율	−6.5	−5.5	62.0	12.5	14.0	12.0
		구성비	9.1	9.5	12.5	9.2	10.1	9.3
단체보험		금 액	10,561	4,063	4,533	11,057	30,214	12,158
		증가율	1.3	−13.3	61.5	59.8	21.7	15.1
		구성비	5.8	2.1	2.2	5.5	3.8	6.1
합계		금 액	181,850	196,775	209,582	199,238	787,445	198,363
		증가율	−1.7	1.6	9.6	11.5	5.2	9.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10)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 개인보험 신규계약액은 생존보험이 21.9% 감소한 반면, 사망과 생사혼합보험이 각각 9.1%, 6.3%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8.4% 상승한 16조 7,733억 엔을 시현함.

- 사망보험에서 비중이 큰 정기보험(49.7%)과 종신보험(28.2%)은 각각 27.0%, 17.0% 증가해 사망보험의 성장세를 견인함.
- 생사혼합보험은 양로보험과 기타보험이 각각 5.5%, 14.2% 성장하면서 전년동기대비 6.3% 상승함.
-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은 내년 4월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의 표준금리[11] 인하(현행 1.5%에서 1.0%)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

○ 개인연금보험은 변액연금보험이 17.1% 감소하였으나, 정액연금보험이 14.3%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한 1조 8,472억 엔을 기록함.

-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현상과 예금 중심의 자산운용을 선호하는 일본 국민의 특성으로 일본의 변액연금시장은 지속적우로 감소하고 있음.

○ 단체보험은 단체신용생명보험[12]의 고성장(346.1%)에 힘입어 15.1% 증가한 1조 2,158억 엔을 기록함.

〈자산 현황〉

■ FY2012 1/4분기 말 총자산 규모는 유가증권, 대출금, 부동산 등의 자산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분기대비 0.6% 감소한 324조 9,089억 엔을 기록함.

○ 현금 및 예금, 그리고 단기자금의 경우 전분기대비 각각 5.1%, 3.8% 감소함.

○ 유가증권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채와 지방채가 각각 0.9%, 2.1% 증가하였으나, 주식이 전분기대비 12.3% 감소함에 따라 전체 0.3%의 하락세를 보임.

---

11)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놓는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로 표준금리를 낮추면 예정금리(보험금 운용을 통한 예상수익률)도 같이 내려가 보험료는 상승함(통상 표준이율이 0.25%p 낮아지면 보험료는 5% 정도 올라감).

12)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거나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사람이 일정액의 보험료(매년 할부금 또는 융자액의 0.2~0.5%)를 내고 사망 또는 고도의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보험회사가 나머지 잔액을 대신 변제해 주는 보험으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보험임.

- 2012년 6~9월 일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8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며 일본 증시에서 이탈하는 모습임.

○ 대출금은 일반대출금이 감소함에 따라 2.2% 감소하였으며, 부동산도 0.8% 감소함.

〈표 9〉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엔,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1/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31,286	-44.7	46,006	47.0	35,512	-22.8	35,155	-1.0	33,354	-5.1
단기자금	18,496	-8.0	21,533	16.4	25,595	18.9	25,093	-2.0	24,137	-3.8
매입금전채권	31,552	3.6	30,515	-3.3	31,189	2.2	28,894	-7.4	28,890	-0.01
금전신탁	20,067	-3.1	19,517	-2.7	19,737	1.1	20,144	2.1	19,658	-2.4
유가증권	2,493,798	0.6	2,483,074	-0.4	2,500,557	0.7	2,575,603	3.0	2,567,069	-0.3
- 국 채	1,344,865	1.6	1,374,469	2.2	1,393,340	1.4	1,412,757	1.4	1,425,411	0.9
- 지방채	122,923	3.2	126,128	2.6	129,152	2.4	131,630	1.9	134,369	2.1
- 사 채	252,272	-0.2	252,680	0.2	251,689	-0.4	253,429	0.7	253,288	-0.1
- 주 식	151,322	-6.7	140,236	-7.3	134,667	-4.0	147,444	9.5	129,284	-12.3
- 외화증권	459,622	0.5	438,671	-4.6	440,819	0.5	469,237	6.4	472,095	0.6
대출금	436,174	-0.6	426,622	-2.2	425,334	-0.3	421,739	-0.8	412,639	-2.2
부동산	65,965	-1.4	66,223	0.4	65,570	-1.0	65,139	-0.7	64,597	-0.8
운용자산	3,112,022	-0.6	3,108,847	-0.1	3,119,521	0.3	3,196,765	2.5	3,176,195	-0.6
비운용자산	77,948	3.1	79,187	1.6	72,151	-8.9	72,760	0.8	72,894	0.2
총자산	3,189,970	-0.5	3,188,034	-0.1	3,191,672	0.1	3,269,525	2.4	3,249,089	-0.6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3)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나. 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 FY2012 1/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해상 및 상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한 2조 1,171억 엔을 시현함.

○ 화재보험은 지진보험 등과 같은 재해 관련 보험 수요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2% 상승한 3,425억 엔을 기록함.

〈표 10〉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억 엔,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연간	1/4
화 재	보험료	3,384	3,234	3,614	3,541	13,773	3,425
	증가율	2.1	2.3	5.0	9.3	4.7	1.2
	구성비	16.5	16.5	18.1	17.9	17.2	16.2
해 상	보험료	521	481	469	478	1,949	512
	증가율	1.4	-0.5	-0.8	-3.4	-0.8	-1.7
	구성비	2.5	2.5	2.3	2.4	2.4	2.4
운 송	보험료	166	148	154	154	622	171
	증가율	0.1	2.6	2.3	5.5	2.3	3.0
	구성비	0.8	0.8	0.8	0.8	0.8	0.8
자동차	보험료	8,812	8,448	8,772	8,729	34,761	9,122
	증가율	0.1	0.9	1.5	2.8	1.3	3.5
	구성비	42.9	43.2	43.8	44.1	43.5	43.1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2,222	2,211	2,217	2,267	8,917	2,410
	증가율	2.7	1.0	16.9	13.6	10.6	8.5
	구성비	10.8	11.3	11.1	11.4	11.2	11.4
상 해	보험료	2,895	2,747	2,626	2,409	10,677	2,882
	증가율	-1.6	2.3	5.8	5.1	2.6	-0.4
	구성비	14.1	14.0	13.1	12.2	13.4	13.6
특 종	보험료	2,539	2,289	2,158	2,237	9,223	2,650
	증가율	0.4	4.6	0.6	6.4	2.9	4.4
	구성비	12.4	11.7	10.8	11.3	11.5	12.5
합계	보험료	20,541	19,558	20,010	19,814	79,923	21,171
	증가율	0.5	2.7	4.0	5.6	3.2	3.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 지난해 동북부 대지진 이후 지진보험을 특약으로 붙인 화재보험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진보험 가입자도 50%를 상회하는 수준임.

○ 자동차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한 9,122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자동차배상책임 원수보험료는 2,410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8.5% 증가함.

- 상품요율 개정과 일본 정부의 에코카 보조금 제도로 인한 신차판매대수 증가가 보험료 자동차보험 성장의 원인이 됨.

○ 상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한 2,882억 엔을 기록하였으나, 특종보험은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한 2,650억 엔을 기록함.

- 특종보험은 공사 관련 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였음.

○ 해상보험은 엔고에 따른 수출 감소와 대규모 계약의 요율 인하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한 512억 엔을 기록함.

〈자산 현황〉

■ FY2012 1/4분기 말 손해보험회사 총자산은 주식 및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 감소로 운용자산이 전분기대비 2.5% 축소되었고, 비운용자산도 0.9% 감소하여 2.4% 감소한 27조 3,348억 엔을 기록함.

○ 현금 및 예금은 전분기대비 18.1% 감소한 7,494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단기자금도 전분기대비 6.0% 감소한 3,573억 엔을 나타냄.

○ 유가증권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국채가 전분기대비 0.6% 증가한 반면, 지방채와 회사채는 전분기대비 각각 1.8%, 1.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주식은 전분기대비 10.4%의 감소율을 기록함.

- 2012년 6~9월 일본의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8주 연속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임.

〈표 11〉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엔, %)

구분		FY2011								FY2012	
		1/4		2/4		3/4		4/4		1/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7,235	-20.0	7,107	-1.8	9,119	28.3	9,146	0.3	7,494	-18.1
단기자금		3,136	-58.6	6,114	94.9	2,691	-56.0	3,801	41.2	3,573	-6.0
환매조건부채권		2,384	42.4	2,125	-10.9	3,730	75.6	4,071	9.1	4,159	2.2
매입금전채권		7,693	-18.9	7,971	3.6	7,430	-6.8	6,741	-9.3	6,221	-7.7
금전신탁		762	-2.3	794	4.1	658	-17.1	581	-11.7	541	-6.9
유가증권	국채	51,390	0.8	52,386	1.9	54,786	4.6	57,769	5.4	58,121	0.6
	지방채	5,207	-2.0	4,693	-9.9	4,457	-5.0	3,924	-12.0	3,852	-1.8
	회사채	31,981	-2.9	31,282	-2.2	29,871	-4.5	29,200	-2.2	28,725	-1.6
	주식	62,804	-2.5	55,645	-11.4	50,904	-8.5	57,242	12.5	51,275	-10.4
	외화증권	47,146	-0.8	45,725	-3.0	44,009	-3.8	43,235	-1.8	45,757	5.8
	기타증권	3,200	-1.3	2,869	-10.4	2,886	0.6	2,981	3.3	2,846	-4.5
	소계	201,729	-1.3	192,600	-4.5	186,914	-3.0	194,350	4.0	190,576	-1.9
대출금		21,240	-2.0	20,291	-4.5	19,776	-2.5	19,219	-2.8	18,986	-1.2
부동산		10,637	-0.8	10,571	-0.6	10,489	-0.8	10,749	2.5	10,693	-0.5
운용자산		254,817	-4.0	247,572	-2.8	240,807	-2.7	248,658	3.3	242,343	-2.5
비운용자산		45,757	45.7	31,255	-31.7	31,011	-0.8	31,300	0.9	31,005	-0.9
총자산		300,575	1.3	278,827	-7.2	271,820	-2.5	279,958	3.0	273,348	-2.4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누적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3)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険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状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険会社総合資金運用状況一覧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険)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険)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険),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険), 재형보험(財形保険),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険),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険),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険)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険)	특종보험

4. 중국 동향[13)]

가. 중국 보험산업 총괄

〈수지상황〉

■ 2012년 2/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3,69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하였음.

○ 2/4분기 정부당국의 은행 지급준비율 및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로 다른 금융상품보다 보험상품의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수입보험료도 증가세로 나타남.

〈표 12〉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단위: 억 위안, %)

구 분		CY2011					C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수입보험료	금액	4,617	3,440	3,197	3,085	14,339	4,835	3,698
	증가율	1.7	-0.5	-3.9	-3.7	-1.3	4.7	7.5
지급보험금	금액	980	979	914	1,056	3,929	1,172	1,091
	증가율	33.9	32.1	15.8	12.6	22.8	19.5	11.4
사업비	금 액	385	437	466	594	1,882	467	505
	증가율	20.6	22.4	26.3	20.6	22.4	21.2	15.6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기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보험산업 전체 지급보험금은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의 대폭적인 증가세가 인보험 지급보험금의 감소세를 상쇄하여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한 1,091억 위안을 기록함.

13)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바람.

■ 보험산업 전체 사업비는 전년동기대비 15.6% 증가한 505억 위안을 기록함.

〈자산운용〉

■ 2012년 2/4분기 보험산업 전체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6.4% 증가한 6조 7,760억 위안을 기록함.

○ 이 중 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5.0% 증가한 6조 1,804억 위안, 비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24.2% 증가한 5,956억 위안을 기록함.

■ 운용자산 중 예치금의 비중은 늘어나고 투자금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임.

○ 예치금은 2조 2,578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9.1% 증가하였으며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함.

○ 투자금은 3조 9,226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2.7% 증가하였으나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9%로 지난 2년 동안 최저 수준임.

○ 상반기 주식시장 불황 등 금융시장 환경 악화로 예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였음.

〈표 13〉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1					C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운용자산계	금액	50,067	52,051	52,611	55,474	55,474	58,882	61,804
	증가율	8.7	4.0	1.1	5.4	20.5	6.1	5.0
	구성비	92.6	90.6	91.9	92.2	92.2	92.5	91.2
예치금	금 액	16,257	17,658	17,183	17,737	17,737	20,698	22,578
	증가율	16.9	8.6	-2.7	3.2	27.5	16.7	9.1
	구성비	30.1	30.7	30.0	29.5	29.5	32.5	33.3
투자금	금 액	33,810	34,393	35,428	37,737	37,737	38,183	39,226
	증가율	5.2	1.7	3.0	6.5	17.4	1.2	2.7
	구성비	62.5	59.8	61.9	62.8	62.8	60	57.9
비운용자산계	금액	3,997	5,419	4,646	4,664	4,664	4,796	5,956
	증가율	-9.9	35.6	-14.3	0.4	5.2	2.8	24.2
	구성비	7.4	9.4	8.1	7.8	7.8	7.5	8.8
총자산	금 액	54,064	57,470	57,257	60,138	60,138	63,679	67,760
	증가율	7.1	6.3	-0.4	5.0	19.1	5.9	6.4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의 누적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기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인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 2012년 2/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대비 3.9% 증가한 2,299억 위안[14])으로 1/4분기에 비해 상승세가 소폭 확대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한 1,962억 위안을 기록함.

○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로 생명보험 상품의 경쟁력이 상승하면서 수입보험료 증가세는 상승세로 전환되었음.

- 2/4분기 은행 지급준비율 및 기준금리 인하로 생명보험 상품과 경쟁하는 정기예금 및 은행 재테크 상품 수익률은 하락했기 때문임.

■ 인보험 중 건강보험과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모두 상승세가 지속됨.

○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0.9% 증가한 237억 위안, 상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한 99억 위안을 기록함.

- 생명보험 판매 부진이 지속되는 국면에서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판매를 강화했기 때문임.

■ 2012년 상반기 인플레이션 하락 지속,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변액보험의 수익률은 상승세를 보았으나 변액연금보험 판매는 부진하였음.

○ 공개된 45개 주식연동형 변액보험 자산운용 계좌의 평균 수익률은 2.8%를 시현하였으며, 39개 채권연동형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계좌의 평균 수익률은 4.3%를 기록함.

○ 이 중 매출실적 부진으로 Axa-minmetals 및 Met life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변액연금보험[15])은 약 -2%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Huatai life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변액연금보험은 판매 중지됨.

14) 인보험 수입보험료에는 인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의 단기의료보험과 상해보험, 그리고 연금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인보험 상품의 수입보험료가 포함됨.

15) 변액연금보험은 중국에서 2011년 8월부터 출시되었는데, 이를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Axa-minmetals, Met life, Huatai life 등 3개가 있음.

〈표 14〉 인보험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1					C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보험료	3,484	2,213	2,082	1,942	9,721	3,534	2,299
	증가율	-1.8	-9.1	-12.9	-14.2	-8.6	1.4	3.9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생명보험	보험료	3,210	1,943	1,829	1,714	8,696	3,203	1,962
	증가율	-2.5	-10.8	-15.1	-16.6	-10.2	-0.2	1.0
	구성비	92.1	87.8	87.8	88.2	89.4	90.6	85.3
- 건강보험	보험료	187	181	165	159	692	229	237
	증가율	1.3	0.6	2.5	4.4	2.2	22.4	30.9
	구성비	5.4	8.2	7.9	8.2	7.1	6.5	10.3
- 상해보험	보험료	87	89	88	70	334	103	99
	증가율	23.3	18.7	20.5	25.2	21.5	17.9	11.2
	구성비	2.5	4.0	4.2	3.6	3.4	2.9	4.3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기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현황〉

■ 2012년 2/4분기 건강보험 지급보험금이 대폭 감소하면서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5.7% 감소한 444억 위안을 기록함.

- ○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6.3% 및 10.5%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의 지급보험금은 42.5%로 대폭 하락함.
- ○ 2011년 2/4분기 감독당국의 피보험자 보호규제 강화정책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보험금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가 주요인으로 분석됨.

〈표 15〉 인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억 위안, %)

구 분		CY2011					C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보험금	551	471	362	358	1,742	599	444
	증가율	49.7	36.1	4.0	-6.2	20.7	8.8	-5.7
- 생명보험	보험금	437	332	263	269	1,301	503	353
	증가율	50.7	23.4	0.0	-6.3	17.3	15.3	6.3
- 건강보험	보험금	96	120	78	66	360	73	69
	증가율	54.8	100.0	18.2	-13.6	36.2	-24.0	-42.5
- 상해보험	보험금	18	19	21	24	82	22	21
	증가율	5.9	18.8	10.5	19.2	15.3	24.7	10.5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기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2년 2/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보험회사의 인보험 시장점유율은 다소 감소한데 반면, 외자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다소 증가함.

- ○ 중국계 인보험회사 시장점유율은 95.3%로 전년분기대비 1.4%p 감소하였으며, 외자계 보험회사 시장점유율은 1.4%p 증가한 4.7%를 기록함.
- ○ 중국계 인보험회사 중 상위 5개사[16]의 시장점유율은 71.5%로 1/4분기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함.
- ○ 외자계 인보험회사들 가운데 AIA China, Metlife, Generail China 등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0.5%, 10.6%, 8.5% 수준임.

16) 인보험의 상위 5개사는 중국인수생명보험, 타이핑양인수생명보험, 핑안인수생명보험, 신화인수생명보험, 중국인민생명보험은 각각 31.9%, 10.3%, 11.9%, 9.3%, 8.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표 16〉 인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분			CY2011					C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중국계	상위 5개사	75.4	72.4	72.1	69.1	72.8	72.9	71.5
		중소형사	21.2	23.0	24.5	25.7	23.2	23.8	23.9
		소 계	96.6	95.4	96.6	94.8	96.0	96.7	95.3
	외자계		3.4	4.6	3.4	5.2	4.0	3.3	4.7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기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 2012년 2/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4.0% 증가한 1,399억 위안을 기록함.

○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손해보험 주력 종목인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는 상승세가 둔화됨.

- 자동차 구입 혜택 축소, 유가 상승 및 일부 대도시의 자동차 구입자격 제한 정책[17]으로 자동차 판매 상승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임.
- 상반기 중국자동차협회(CAAM)에 따르면 전국 자동차 판매량은 960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하였지만 동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임.

17) 자동차 구입자격 제한 정책 시행 지역은 2012년에 기존의 북경, 상해에서 귀양, 광주까지 확대됨.

〈표 17〉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1					C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보험	보험료	1,133	1,227	1,115	1,143	4,618	1,301	1,399
	증가율	13.9	19.9	19.0	21.5	18.5	14.8	14.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2)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기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현황〉

■ 2012년 2/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27.4% 증가한 647억 위안을 기록함.

○ 교통사고율 상승, 대인 배상비용 증가 및 피보험자 보호규제 강화 등으로 손해보험 주력 종목인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세가 지속됐기 때문임.

〈표 18〉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1					C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보험	보험금	429	508	552	698	2,187	573	647
	증가율	17.9	28.6	25.2	25.5	24.5	33.5	27.4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2)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기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2년 2/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가 1,449억 위안[18)]으로 전년동기대비 14.2% 증가한 가운데, 중국계 보험회사와 외자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1/4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남.

○ 2/4분기 중국계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1,431억 위안으로 98.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외자계 보험회사는 18억 위안으로 여전히 1.2%에 그침.

○ 손해보험 상위 3개사인 중국인민재산, 핑안재산, 타이핑양재산은 각각 35.9%, 16.9%, 12.4%의 시장점유율로 손해보험시장에 6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동기에 비해 1.0%p 하락함.

○ 외자계 손해보험회사들 중 상위 3사는 Groupama Avic, Chartis, Liberty Mutual 손해보험회사들로 외자계 시장점유율 중 각각 16.8%, 13.7%, 9.8%를 차지함.

〈표 19〉 손해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분			CY2011					CY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보험	중국계	상위 3개사	68.2	66.2	66.2	65.9	66.6	66.7	65.2
		중소형사	30.7	32.8	32.7	33.0	32.3	32.1	33.6
		소 계	98.9	98.9	98.9	98.9	98.9	98.8	98.8
	외자계		1.1	1.1	1.1	1.1	1.1	1.2	1.2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기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8)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단기 의료보험과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도 포함됨.

라. 연금보험

■ 2012년 2/4분기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16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71% 대폭 증가하였고, 누적 운용보험료 규모는 1,723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41.7% 증가함.

○ 중국은 2004년 4월부터 연금보험을 시범 시행하였으며 2007년 10월부터 연금보험회사의 운용을 정식으로 허용함.19)

○ 2011년 2/4분기 수탁보험료 급락에 따른 역기저효과와 2012년 들어 가속화된 중국 도시화 및 경제체계 개혁, 장부의 기업연금 발전 추진정책으로 기업연금 수탁보험료는 급속히 증가하였음.

○ 현재 중국 기업 및 근로자의 기업연금 가입률과 기업연금의 소득대체율 모두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연금시장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판단됨.

〈표 20〉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0	CY2011					CY2012	
		4/4	1/4	2/4	3/4	4/4	연간	1/4	2/4
수탁보험료	금액	135	169	45	87	109	410	207	167
	증가율	-	128.4	-41.6	22.5	-19.3	14.8	22.0	271.1
누적 운용 보험료	금액	1,039	1,147	1,216	1,265	1,378	1,378	1,561	1,723
	증가율	12.9	10.4	6.0	4.0	8.9	32.6	13.3	41.7

주: 1) 수탁보험료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2) 누적 운용보험료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치임
3) 2010년 4/4분기 수탁보험료 증가율은 결측수치임
4)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기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9) 현재까지 전국에서 연금보험을 운용하는 보험회사는 5개가 있는데 태핑, 핑안, 인수, 창장, 태강 등이 있음.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신종보험인 투자연동형보험, 만능형보험(유니버셜), 배당형보험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생명보험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수보험(人壽保險)	생명보험
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V.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89호 (7. 2)	**기업 · 소비자 경제심리 악화 추세** · 한은의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향후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전망이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7월 업황 전망 BSI'의 경우 제조업 기업과 비제조업 기업이 모두 전월대비 각각 2p, 6p 하락한 84, 77을 기록함. (2012년 6월 BSI 및 ESI, 한은, 6/27)
제189호 (7. 2)	**은행의 집단대출 연체율은 악화,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양호** · 2012년 4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은 1.56%로 2011년 12월 말 1.18%에서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으며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104조 2,000억 원으로 2012년 1월 이후 전월 대비 증가 추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국내은행 가계 집단대출 건전성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금감원, 6/22)
제190호 (7. 9)	**보험 모집조직의 양적 성장 및 질적 개선** · 금감원의 'FY2011 보험회사의 모집조직 · 판매실적 및 효율분석'에 따르면, 2012년 3월 말 기준 보험회사 모집조직은 43만 7,401명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한 반면 보험대리점은 4만 8,796개로 5.8% 감소함. (FY2011 보험회사 모집조직 · 판매실적 및 효율분석, 금감원, 7/4)
제190호 (7. 9)	**3/4분기 중소기업 및 가계 자금난 심화 우려** · 2012년 3/4분기 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완화기조가 약화될 전망인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수요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가계일반자금 대출 수요는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어서 2012년 3/4분기 중 중소기업과 가계의 자금난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2012년 2/4분기 동향 및 3/4분기 전망), 한은, 7/4)
제191호 (7. 16)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 ·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취급유인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수도 늘어남에 따라 2011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2012년에도 증가세가 지속됨.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금감원, 7/6)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91호 (7. 16)	**2012년 6월 주요 고용지표 개선** · 2012년 6월 취업자 수는 2,512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전년동월수준을 유지하였음. (2012년 6월 고용동향, 통계청, 기재부, 7/11)
제192호 (7. 23)	**연금저축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마련** · 금감원은 '연금저축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을 7월 17일 발표함. · 개선방안에는 금융권역별 비교 가능성 제고, 소비자들의 이해도 향상, 불완전판매 예방 등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됨. (연금저축 비교공시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금감원, 7/17)
제192호 (7. 23)	**한은,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0%로 대폭 하향** · 한국은행은 2012년 경제정장률 전망을 3.0%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4월 전망치 3.5%보다 0.5%p 낮아진 수치임. · 2012년 중 취업자 수는 38만 명 증가할 것이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 한국은행, 7/13)
제193호 (7. 30)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자금조달 악화** · 2012년 상반기 기업의 증권공모를 통한 직접금융 조달실적은 주식 발행과 회사채 발행 실적이 줄어듦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10.2% 감소한 66조 1,188억 원을 기록함. (2012년 상반기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현황, 금감원, 7/24)
제193호 (7. 30)	**금융위,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마련** · 정부는 경기부진과 소득여건 개선 둔화가 이어질 경우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서민 취약계층에 연간 1조원 규모를 추가로 공급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금융위원회, 7/19)
제194호 (8. 6)	**퇴직연금 감독규정 변경 예고** · 금융위는 2012년 7월 26일 개정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 규칙」에 대한 후속 조치로 「퇴직연금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함. · 변경 내용에는 과당경쟁 방지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2012년 5월 발표된 '퇴직연금 감독방향'의 세부 내용 구체화 방안도 포함됨. (퇴직연금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 7/31)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第194호 (8. 6)	**산업활동 부진, 전 부문으로 확산** · 2012년 6월 산업활동은 생산, 소비, 투자 등 전 부문에 걸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기계수주 감소폭 확대와 제조업 업황 BSI 하락세로 당분간 기업의 설비투자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2012년 6월 및 2/4분기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7/31 외)
第195호 (8. 20)	**청년층 고용률 OECD평균 하회**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7월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1%이며 OECD에서 발표한 2012년 1분기 우리나라 청년층(15~24세)의 고용률은 23.9%로 OECD평균 39.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OECD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률이 낮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연령층의 고용률에 비해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다는 점은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시사함. (2012년 7월 고용동향, 통계청, 8/16 외)
第195호 (8. 20)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하락세 지속** · 2012년 7월 수입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0% 하락하였고 수출물가는 2.2% 상승하였으며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전년동월대비 0.1%) 하락하였음. · 향후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기준금리 인하, 국제 곡물가격 상승, 전기료 인상, 국제유가 상승 등은 물가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2012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 8/14 외)
第196호 (8. 27)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균소비성향 감소** · 2012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94만 2,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2% 증가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38만 6,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72만 3,000원으로 3.2% 증가함. (2012년 2/4분기 가계동향, 통계청, 8/17)
第196호 (8. 27)	**보험회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 · 2012년 6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106조 1,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5,200억 원 증가함. ·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가계대출 연체율과 기업대출 연체율 하락으로 전월 대비 0.01%p 낮아진 0.82%를 기록함. (2012년 6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금감원, 8/21)
第197호 (9. 3)	**국내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소폭 하락** ·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6월 말 국내은행의 「바젤Ⅱ」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은 13.83%로 전분기 말 대비 0.05%p 하락하였으며, Tier1비율도 11.02%로 0.03%p 하락함. (2012년 6월 말 국내은행의 BIS 현황, 금감원, 8/27)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97호 (9. 3)	**Moody's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사상 최고등급 "Aa3" 부여** · Moody's는 2012년 8월 27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상향 조정하고 전망을 "안정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Moody's가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한 이래로 최고의 등급과 전망임. · 금번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대외신인도 제고와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Moody's, 기획재정부, 8/27 외)
제198호 (9. 10)	**금융위,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발표** ·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이 높은 상품인지도와 가입률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급등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함.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금융위, 8/30)
제198호 (9. 10)	**금감원, 표준위험률 개선**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위험률 적용 대상 담보를 확대하고 담보별 실제경험률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위험률 수준을 조정할 계획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표준위험률 개선, 금융감독원, 8/31)
제199호 (9. 17)	**정부, 5조 9,000억 원 경기회복 추가 지원** ·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와 세계경제 부진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경기를 보완하고 민간부분 활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5조 9,000억 원에 달하는「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2012년 9월 10일 발표함. (경기회복 위해 5.9조 추가 재정지원 대책 발표, 기재부, 9/10)
제199호 (9. 17)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지속** ·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의 증가폭은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가계대출 잔액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폭이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증가폭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012년 7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한국은행, 9/11)
제200호 (9. 24)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 증가세** ·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7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107조 9,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 8,700억 원 늘어났으며, 특히 기업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2012년 7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금감원, 9/17)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00호 (9. 24)	**2012년 2/4분기 가계 및 기업 자금흐름 악화** · 2012년 2/4분기 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규모와 비금융법인 기업의 자금부족 규모가 모두 전분기보다 감소하여 가계와 기업 모두 자금흐름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2012년 2/4분기 중 자금순환(잠정), 한국은행, 9/17)

■ 미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89호 (7. 2)	**미국 주택가격, 3개월 연속 상승세 유지** · 미국 20개 대도시의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S&P/케이스 실러지수가 4월 0.7% 상승(계절조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 (Financial Times, 6/26 등)
제190호 (7. 9)	**미 대법원, 건강보험개혁법 합헌 판결** · 6월 28일 미 연방 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핵심조항인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결함. (New York Times, 6/28 등)
제191호 (7. 16)	**미국 가계대출 큰 폭 증가** · 2012년 5월 미국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171억 달러 증가한 총 2조 5,700억 달러(계절조정)로 2008년 7월 최고치인 2조 5,800억 달러에 근접하였는데, 이는 신용카드 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New York Times, 7/9 등)
제192호 (7. 23)	**미국 주택시장의 뚜렷한 회복 조짐** · 미국의 월별 신규주택 착공건수가 전년대비 30% 가량 증가하고 건축 허가 건수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경기 회복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Washington Post, 7/12 등)
제193호 (7. 30)	**미 주택시장, 장기 회복국면 진입** · 7월 23일 골드만삭스는 미국 주택시장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였다고 진단함. (Bloomberg, 7/23)
제194호 (8. 6)	**미 연준, 추가 부양책 가능성 시사** · 미 연준은 7월 31일과 8월 1일 양일간 개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의 경기상황을 다소 비관적으로 진단하고 추가 부양책 시행에 대한 여지를 남김. (Bloomberg, 8/2 등)

■ 미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96호 (8. 20)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성장률 큰 폭 감소 전망** · 8월 10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사가 실시한 경제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세제혜택종료와 재정지출 감축이 동시에 시작되는 2013년 1월 재정절벽(Fiscal Cliff)이 현실화되는 경우 2013년 경제성장률이 2.2%p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함. (Wall Street Journal, 8/10 등)
제197호 (8. 27)	**미국 산업생산, 4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8월 15일 미 연준은 7월 산업생산이 공장생산과 전력생산 등의 호조로 전월대비 0.6% 증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발표함. (Washington Post, 8/23 등)
제198호 (9. 3)	**유례없는 가뭄으로 보험회사 대규모 손실 전망** · 최근 미국에서는 유례없는 가뭄으로 옥수수와 콩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농작물보험을 판매한 보험회사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함. (Financial Times, 8/26)
제199호 (9. 10)	**8월 ISM 제조업지수, 3개월 연속 하락** · 9월 4일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는 8월 제조업지수가 49.6으로 3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자동차 수요 증가가 제조업 경기 둔화를 일부 상쇄한 것으로 나타남. (Bloomberg, 9/6)
제200호 (9. 17)	**8월 고용지표 부진** · 9월 6일 미 노동부는 8월 비농업부문 일자리가 9만 6,000개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으며, 실업률은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8%대를 상회함. (USA Today, 9/8)
제201호 (9. 24)	**미 연준, 추가 양적완화정책 시행** · 미 연준은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부증권(MBS)을 매입하는 내용의 추가 양적완화정책(QE3)을 발표함. (Financial Times 등, 9/20)

■ 유럽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89호 (7. 2)	**EC, 재정동맹 계획 제시** · 유럽집행위원회(EC)는 EU정상회의에서 유럽 재정위기 해법으로 유럽 은행들에 대한 공동 감독 및 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은행동맹(banking union) 계획, 재정동맹(fiscal union) 계획, 성장협약을 제안함. (Wall Street Journal , 6/26 등)
제190호 (7. 9)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 ·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유로지역 경기침체로 전세계 제조업 경기가 동반 부진해지면서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 (Bloomberg, 7/3)
제191호 (7. 16)	**EU, 경기부양을 위한 프로젝트본드 시험 발행 합의** · 유럽 재정위기로 회원국들이 재정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이 어렵게 되자 EU는 산하기관인 유럽투자은행(EIB)의 자본금을 늘리고, 이를 지렛대 삼아 프로젝트본드를 발행하여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는 전략을 세움. (Bloomberg, 7/11)
제192호 (7. 23)	**IMF,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3.5%로 하향 조정** · IMF는 2012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3.6%에서 3.5%로 0.1%p 낮추었고,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도 당초 전망치 4.1%에서 3.9%로 0.2%p 하향 조정하였음. (IMF, 7/16)
제193호 (7. 30)	**스페인, 구제금융 임박** · 스페인은 지방재정 부실로 긴급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극심한 자금 경색으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전면적 구제금융을 검토할 수 밖에 없게 됨. (Bloomberg , 7/24)
제194호 (8. 6)	**ECB 특단 조치 일부 현실화 가능성 희박** · ECB 총재의 금융시장 안정화 제안은 ECB 내부의 반대와 실효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일부 제안은 현실화 가능성이 낮아짐. (Financial Times , 8/1)
제195호 (8. 20)	**유로존 2/4분기 마이너스 성장** · 재정위기 본격화로 유로존 경제는 2/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국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Bloomberg, 8/15)

■ 유럽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第196호 (8. 27)	**ECB의 국채수익률 상한선 도입 가능성** · 국채수익률 상한선 도입과 함께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로존 위기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Bloomberg, 8/22)
第197호 (9. 3)	**독일 기업들의 선제적인 구조조정** · 유로존의 소비 감소와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둔화 여파로 독일 경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독일 기업들은 인력감축 및 비용절감 등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섬. (Financial Times, 8/23)
第198호 (9. 10)	**대출금리 양극화로 유로존 분열 위험 확대** ·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기업 및 소비자의 대출 금리가 남 · 북 유럽 간에 큰 격차를 보임. 대출 금리 격차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효과 소진, 재정위기국가의 위험노출 규모 축소, 국경 간 대출 자제 등으로 재정위기 국가의 시중 은행들이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임. (Financial Times, 9/3)
第199호 (9. 17)	**ECB 무제한 국채 매입(OMT)의 내용과 평가** · 유럽중앙은행(ECB)은 9월 6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국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조치를 발표함. OMT는 국채 매입 한도와 시점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국채가 디폴트 상황에 빠질 때 가장 먼저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 ECB의 선순위권도 행사하지 않기로 함. (Wall Street Journal, 9/6)
第200호 (9. 24)	**은행동맹 추진 난항 예상** ·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결정으로 유럽 재정위기 해법에 전환점이 마련되면서 은행동맹으로의 신속한 이행이 예상되었으나, 자국 이기주의가 재연되면서 은행동맹 추진에 난항이 예고됨. 독일은 ECB가 초대형 은행 60여 개만을 전담하여 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행시기도 2014년으로 늦출 것을 주장함. (Financial Times, 9/18)

일본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第189호 (7. 2)	**일본 경제성장, 수출에서 내수 주도로 전환** · 일본은행의 6월 금융경제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지진 이후 일본 경제는 대지진 피해 재건 관련 수요에 따른 공공투자 및 설비투자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개인 소비 역시 안정된 추세를 보임. (일본은행, 6/19)
第190호 (7. 9)	**기업 업황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비관적 경기 전망 유지** · 일본의 2/4분기 대기업 제조업체의 단칸지수는 -1을 기록해 지난 3월 조사에 비해 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엔화 강세가 재부각되고 있어 향후 경기는 비관적으로 전망함. (일본은행, 7/2)
第191호 (7. 16)	**상반기 해외M&A 건수 22년 만에 최대치 기록** · 2012년 상반기 일본의 해외기업 M&A 건수는 262건으로 2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금액은 3조 4,904억 엔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임. (니혼게이자이, 7/4)
第192호 (7. 23)	**NKSJ 산하 손보재팬과 니혼코아, 전국 각지 영업망 40% 통합** · NKSJ 산하 손보재팬과 니혼코아 손해보험이 이르면 올해부터 전국 각지의 영업거점을 통합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2014년 상반기 통합 계획에 앞서 조기 통합하여 합병 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임. (니케이, 7/17)
第193호 (7. 30)	**지방공기업 파산으로 국가재정 부담 가중 전망** · 2011년 제3섹터와 지방3공사 등의 파산 건수가 전년대비 85.7% 증가한 26건으로 기록해 1994년 조사 시작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니혼게이자이, 7/23)
第194호 (8. 6)	**日, '8년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발표** · 일본은 국가전략회의에서 2020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2% 달성하기로 하였으며, 재생전략은 환경, 의료, 농수산업 등 세 분야에서 적어도 100조 엔 규모의 신규시장과 480만 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였음. (J-CAST, 7/31)
第195호 (8. 20)	**日, 소비세율 인상법안 통과** · 일본은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로 각각 인상하는 세제 개혁 관련 법안을 상원의원의 본 회의를 거쳐 통과시켰음. (산케이1, 8/10)

일본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第196호 (8. 27)	**日, 6월 전산업활동지수 두 달만에 상승** ·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6월 전산업활동지수(계절조정치)가 전월대비 0.2% 상승한 96.5를 기록해 2개월 만에 다시 개선되었다고 보도함. (경제산업성, 8/23)
第197호 (9. 3)	**증권 · 보험회사 파산처리 제도, 국제적 기준으로 논의** · 일본 금융청은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증권·보험회사 등에도 일시적으로 공적자금을 직접 투입하거나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은행과 같이 금융시스템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함. (로이터, 8/28)
第198호 (9. 10)	**日, 7월 실질 GDP, 3개월 만에 감소** · 일본경제연구센터(JCER)에 따르며 7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월대비 1.2% 감소했으며,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에코카 보조금의 효과가 줄어들면서 개인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임. (일본경제연구센터, 9/3)
第199호 (9. 17)	**日, 11월에 재정파탄 우려** · 일본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재정고갈로 인해 이달 배분 예정이던 4조 엔의 지방교부금 가운데 1조 4,000억 엔을 오는 10월 이후로 지급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 (산케이, 9/7)
第200호 (9. 24)	**일본은행(BOJ), 추가 금융완화 단행** · 일본은행은 19일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현재 70조 엔 규모인 국채 매입 기금을 80조 엔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추가 매입 채권은 장 · 단기 국채 각각 5조 엔으로 함. (아사히, 9/19)

중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89호 (7. 2)	**보험중개시장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 6월26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중개기관(대리점, 브로커, 방카슈랑스 등)의 리스크 관리 및 전문성 강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보험중개기관의 등록 최저 자본금을 상향 조정하고 주주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함. (하쉰망, 신랑망, 6/27)
제190호 (7. 9)	**중국, 세금개혁안 시범시행 지역 확대** · 6월 30일 중국 북경재정국은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와 대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WSJ, 신랑망, 7/2 등)
제191호 (7. 16)	**물가 안정으로 경기부양책 추가 실시 전망** · 중국의 6월 중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었음. (신랑망, 하쉰망, 7/12 등)
제192호 (7. 23)	**상반기 수입보험료 상승세 둔화** · 7월 17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경제성장 둔화로 올해 상반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다고 발표함. (신랑망, 7/18)
제193호 (7. 30)	**보험회사 자산운용 자유화 확대**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 자산운영 자유화를 위하여『보험자금투자채권임시조례』(이하 채권조례),『보험자금투자위탁관리임시조례』(이하 위탁조례),『보험자금 투자 주식 및 부동산 관련 문제의 통지』(이하 통지)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음. (신랑망, 신화망, 7/25)
제 194호 (8. 20)	**자동차의무보험 영업수지 적자규모 지속 확대** · 8월 10일 중국보험협회는 2011년 중국 자동차의무보험 영업수지 적자가 자동차의무보험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인 92억 위안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신랑망, 하쉰망, 신화망, 8/14)

중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第195호 (8. 27)	**차티스, 자동차의무보험 운영자격 취득 예정** · 8월 20일 북경일보(北京日報)에 따르면 차티스(Chartis)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자사의 경영범위를 기존의 책임보험에서 자동차의무보험까지 확대했고, 이에 따라 차티스는 중국에서 자동차의무보험 운영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최초의 외국계 손해보험사가 될 예정임. (신랑망, 금융계, 하쉬망, 8/22 등)
第196호 (9. 3)	**중국인수생명, 상반기 당기순이익 하락** · 중국인수생명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5.5% 하락한 97,4억 위안을 기록함. (신랑망, 하쉬망, 8/29 등)
第197호 (9. 10)	**저소득층을 위한 중대질병보험제도 도입** · 8월 30일 중국 정부는 저소득층인 농민 및 도시 미취업자의 중대질병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城鄕주민중대질병보험제도도입관련지침』(關　于開展城鄕居民大病保險의指導意見)을 발표하였음. (인민망, 신랑망, 9/4 등)
第198호 (9. 17)	**8월 소비자물가 상승세 전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하락 지속** · 9월 9일 국가통계국은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 2% 상승해 지난 3월 이후 5개월간 지속된 하락추세에서 반등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 여지를 제한할 것으로 분석됨. (신랑망, 인민망, 09/10 등)
第199호 (9. 24)	**중국, 부동산 시장 혼조세**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8월 전국 상업주택 평균가격은 전월대비 3.53% 하락하였으며 주요 도시의 상업주택 평균 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되었음. (신랑망, 09/09, 인민망, 09/10, WSJ, 09/18 등)

Ⅵ.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3/4	4/4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 성장률		4.4	4.7	4.2	3.4	3.5	3.4	2.8	2.3
경상수지		10,122	8,469	2,610	5,492	6,896	10,430	2,560	11,189
수 출		116,756	126,617	127,691	142,723	141,394	140,369	134,851	140,219
수 입		105,190	114,704	121,849	135,062	134,196	131,208	133,399	130,764
실업률		3.5	3.3	4.2	3.4	3.1	2.9	3.8	3.3
금리	국고채(3년)	3.70	3.30	3.80	3.68	3.60	3.41	3.55	3.39
	회사채(3년)	4.63	4.16	4.59	4.46	4.34	4.26	4.35	4.04
소비자물가지수		100.4	100.9	102.8	103.6	104.7	104.9	105.9	106.1
환율	원/달러	1,142.00	1,138.90	1,107.20	1,078.10	1,179.50	1,145.70	1,137.80	1,153.80
	원/엔화	1,363.34	1,397.08	1,331.89	1,335.69	1,536.61	1,485.16	1,380.74	1,453.79
KOSPI		1,872.8	2,051.0	2,106.7	2,100.7	1,769.7	1,849.8	2,014.0	1,854.01
외환보유고		289,775	291,571	298,618	304,485	303,384	306,402	315,952	312,378

주: 1)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임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증감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3/4	4/4	1/4	2/4	3/4	4/4	1/4	2/4
보 험	106,839	97,513	95,956	109,637	117,629	123,927	122,280	139,507
- 생 보	80,183	68,578	64,883	78,241	89,732	97,036	96,041	105,806
- 손 보	26,655	28,935	31,073	31,396	27,897	26,891	26,239	33,701
은 행	33,397	274,211	201,600	145,827	242,881	263,282	269,108	120,525
- 일 반	44,878	150,020	123,112	162,787	197,704	173,064	190,485	108,131
- 신 탁	-11,481	124,191	78,488	-16,960	45,177	90,218	78,623	12,394
증 권	-7,803	18,619	34,410	-33,405	34,901	10,078	44,117	-33,365
투 신	-78,660	-111,569	-131,059	-10,171	80,566	-105,662	50,029	83,820
종 금	-13,827	9,480	-10,921	-40,343	-2,093	-52,656	11,809	-490

주: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및 구성비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	보험료	44,496	170,897	40,937	43,061	43,773	51,654	179,425	58,357
	증가율	8.8	11.6	1.5	3.1	-1.2	16.1	5.0	42.6
	구성비	21.0	20.6	19.4	20.8	18.5	23.1	20.4	23.8
사망	보험료	71,632	287,162	71,520	71,649	71,772	72,171	287,112	76,376
	증가율	-1.0	-0.8	-0.3	-0.3	-0.2	0.8	0.0	6.8
	구성비	33.8	34.6	34.0	34.6	30.3	32.2	32.7	31.1
생사혼합	보험료	28,786	105,215	27,350	28,489	29,406	37,134	122,378	46,073
	증가율	23.1	28.2	13.1	14.5	7.4	29.0	16.3	68.5
	구성비	13.6	12.7	13.0	13.8	12.4	16.6	13.9	18.8
변액보험	보험료	52,949	194,130	52,972	54,714	52,149	53,102	212,937	52,354
	증가율	18.9	12.9	17.8	20.0	3.1	0.3	9.7	-1.2
	구성비	25.0	23.4	25.2	26.4	22.0	23.7	24.2	21.3
개인계	보험료	197,863	757,403	192,778	197,913	197,100	214,061	801,852	233,160
	증가율	9.2	8.7	6.4	7.5	1.5	8.2	5.9	20.9
	구성비	93.3	91.2	91.5	95.6	83.2	95.6	91.3	95.1
단체	보험료	14,242	72,672	17,839	9,040	39,798	9,831	76,508	12,126
	증가율	38.6	-0.5	59.9	12.5	1.4	-31.0	5.3	-32.0
	구성비	6.7	8.8	8.5	4.4	16.8	4.4	8.7	4.9
합계	보험료	212,105	830,074	210,617	206,953	236,899	223,891	878,360	245,286
	증가율	10.8	7.9	9.5	7.7	1.5	5.6	5.8	16.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보험	지급보험금	26,149	95,267	22,312	26,191	25,789	26,428	100,720	25,718
	증가율	18.3	12.0	8.5	22.2	-4.9	1.1	5.7	15.3
	지급률	58.8	55.7	54.5	60.8	58.9	51.2	56.1	44.1
사망보험	지급보험금	37,843	147,289	36,023	37,941	38,191	40,956	153,111	42,030
	증가율	1.8	-1.3	0.0	3.4	4.0	8.2	4.0	16.7
	지급률	52.8	51.3	50.4	53.0	53.2	56.7	53.3	55.0
생사혼합보험	지급보험금	14,872	58,198	12,250	13,020	13,229	14,533	53,032	30,094
	증가율	-24.8	-17.5	1.8	4.1	-29.6	-2.3	-8.9	145.7
	지급률	51.7	55.3	44.8	45.7	45.0	39.1	43.3	65.3
변액보험	지급보험금	35,562	129,385	33,532	26,282	23,464	31,495	114,772	27,824
	증가율	52.1	59.2	29.7	-8.4	-40.2	-11.4	-11.3	-17.0
	지급률	67.2	66.6	63.3	48.0	45.0	59.3	53.9	53.1
개인보험계	지급보험금	114,425	430,139	104,117	103,433	100,672	113,413	421,635	125,666
	증가율	11.7	11.4	10.2	4.1	-17.4	-0.9	-2.0	20.7
	지급률	57.8	56.8	54.0	52.3	51.1	53.0	52.6	53.9
단체보험계	지급보험금	32,797	106,952	28,259	13,788	39,190	14,077	95,315	13,814
	증가율	40.0	22.1	52.0	9.3	-8.7	-57.1	-10.9	-51.1
	지급률	230.3	147.2	158.4	152.5	98.5	143.2	124.6	113.9
전체	지급보험금	147,222	537,091	132,376	117,221	139,863	127,490	516,950	139,480
	증가율	17.0	13.4	17.1	4.7	-15.2	-13.4	-3.8	5.4
	지급률	69.4	64.7	62.9	56.6	59.0	56.9	58.9	56.9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 · 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보험	사업비	8,972	32,942	8,802	9,138	8,827	9,168	35,935	9,077
	증가율	17.7	8.1	12.3	17.2	5.9	2.2	9.1	3.1
	사업비율	20.2	19.3	21.5	21.2	20.2	17.7	20.0	15.6
사망보험	사업비	20,460	75,645	19,017	20,312	20,788	20,939	81,056	21,511
	증가율	11.9	2.5	1.8	10.8	14.3	2.3	7.2	13.1
	사업비율	28.6	26.3	26.6	28.3	29.0	29.0	28.2	28.2
생사혼합보험	사업비	6,232	21,844	6,058	6,147	5,878	6,216	24,299	5,972
	증가율	24.0	9.2	26.8	20.8	2.3	-0.2	11.2	-1.4
	사업비율	21.6	20.8	22.2	21.6	20.0	16.7	19.9	13.0
개인보험계	사업비	35,663	130,431	33,877	35,597	35,493	36,324	141,291	36,590
	증가율	15.3	5.0	8.3	14.0	10.0	1.9	8.3	8.0
	사업비율	18.0	17.2	17.6	18.0	18.0	17.0	17.6	15.7
단체보험계	사업비	1,212	4,216	979	1,052	1,209	1,121	4,362	1,117
	증가율	23.0	13.1	-10.7	10.2	26.9	-7.5	3.4	14.1
	사업비율	8.5	5.8	5.5	11.6	3.0	11.4	5.7	9.2
전체	사업비	36,875	134,647	34,857	36,649	36,702	37,445	145,652	37,707
	증가율	15.5	5.2	7.6	13.9	10.5	1.5	8.2	8.2
	사업비율	17.4	16.2	16.5	17.7	15.5	16.7	16.6	15.4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3/4	4/4	연간	1/4	2/4	3/4	4/4	1/4
화재	보험료	779	657	2,660	624	598	758	656	782
	증가율	-2.4	-3.2	-3.7	0.4	-0.7	-2.7	-0.2	25.3
	구성비	0.5	0.5	0.5	0.4	0.4	0.5	0.4	0.5
해상	보험료	1,939	1,728	7,721	2,393	2,138	1,833	2,335	2,356
	증가율	4.4	-12.1	-4.1	14.8	8.5	-5.5	35.2	-1.5
	구성비	1.3	1.3	1.5	1.7	1.5	1.1	1.5	1.4
자동차	보험료	32,103	32,143	124,133	31,977	33,128	32,803	32,507	32,615
	증가율	12.7	13.8	10.6	9.1	8.3	2.2	1.1	2.0
	구성비	21.9	24.2	23.8	22.7	23.3	19.7	20.2	19.4
보증	보험료	3,417	3,483	13,074	3,547	3,634	3,908	4,083	4,081
	증가율	10.0	11.4	6.4	11.0	22.0	14.4	17.2	15.1
	구성비	2.3	2.6	2.5	2.5	2.6	2.4	2.5	2.4
특종	보험료	9,955	8,469	37,120	10,409	10,270	11,026	9,525	12,377
	증가율	11.6	11.4	11.5	7.7	13.7	10.8	12.5	18.9
	구성비	6.8	6.4	7.1	7.4	7.2	6.6	5.9	7.4
해외 원보험	보험료	702	623	2,326	636	667	854	1,007	997
	증가율	6.2	16.6	11.9	46.9	17.4	21.8	61.6	56.6
	구성비	0.5	0.5	0.4	0.5	0.5	0.5	0.6	0.6
장기 손해	보험료	72,151	73,551	281,813	76,818	81,166	86,877	96,572	98,381
	증가율	21.4	16.5	21.0	15.3	16.9	20.4	31.3	28.1
	구성비	49.3	55.3	53.9	54.6	57.2	52.3	60.1	58.6
개인 연금	보험료	6,444	6,908	24,697	7,586	8,200	9,145	9,343	9,857
	증가율	29.6	33.6	38.4	37.2	40.9	41.9	35.2	29.9
	구성비	4.4	5.2	4.7	5.4	5.8	5.5	5.8	5.9
퇴직 보험	보험료	3,940	111	5,284	516	4	92	224	1
	증가율	-42.3	-80.7	-39.1	-46.3	-98.6	-97.7	102.3	-99.8
	구성비	2.7	0.1	1.0	0.4	0.0	0.1	0.1	0.0
퇴직 연금	보험료	14,890	5,218	23,616	6,218	2,169	18,857	4,547	6,516
	증가율	194.9	161.7	190.9	160.7	93.2	26.6	-12.8	4.8
	구성비	10.2	3.9	4.5	4.4	1.5	11.3	2.8	3.9
계	보험료	146,321	132,891	522,444	140,723	141,973	166,153	160,799	167,964
	증가율	21.8	17.5	19.2	16.5	16.0	13.6	21.0	19.4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을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4/4	1/4	2/4	3/4	4/4	1/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300.2	47.4	61.0	66.3	62.6	59.1
	사업비율	55.1	49.8	55.9	45.3	52.7	48.4
	합산비율	355.3	97.2	116.9	111.6	115.3	107.5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109.6	58.7	42.2	63.5	60.2	64.3
	사업비율	30.8	22.3	35.2	31.3	42.1	26.8
	합산비율	140.4	81.1	77.4	94.7	102.3	91.1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33.8	43.9	43.0	65.0	67.5	61.0
	사업비율	19.4	8.1	11.0	14.6	14.4	10.0
	합산비율	53.2	52.0	54.0	79.6	81.9	70.9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66.4	61.6	69.2	70.9	69.6	61.1
	사업비율	27.5	21.1	19.4	17.2	23.6	19.5
	합산비율	93.9	82.7	88.5	88.2	93.2	80.7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41.9	43.5	56.6	53.8	55.5	53.6
	사업비율	70.0	50.0	41.3	46.0	50.1	40.6
	합산비율	111.9	93.5	97.9	99.8	105.6	94.3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69.9	54.4	78.5	112.1	131.0	65.5
	사업비율	26.8	26.7	27.5	29.4	29.4	35.3
	합산비율	96.7	81.1	106.0	141.5	160.4	100.8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7.1	79.6	83.3	85.4	80.6	78.2
	사업비율	30.0	20.7	20.2	20.8	22.0	20.8
	합산비율	107.1	100.2	103.5	106.2	102.5	99.0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0.5	81.7	82.6	83.2	84.6	84.3
	사업비율	17.8	16.8	16.8	16.4	16.7	16.6
	합산비율	98.4	98.5	99.4	99.6	101.2	100.9
전체	경과손해율	77.8	78.2	80.7	82.7	82.8	80.4
	사업비율	22.3	18.3	18.2	18.1	18.9	18.2
	합산비율	100.1	96.5	98.9	100.8	101.7	98.6

주: 1) 기간별 수치는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이며, FY2011부터 IFRS가 적용됨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임
3) *는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혜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혜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2011-4 저출산 · 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 7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 11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 12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 8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 10

■ 경영보고서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 5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 6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 8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 9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 10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혜은

2012. 7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 7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혜은 2012. 9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 9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 9

■ 조사보고서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 영문발간물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9
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0.9
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1.9
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2.9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Insurance Business Report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2년 가을호 (통권 63호)

발행일	2012년 10월
발행인	김 대 식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57, 3775-9059)로 연락하여 주십시오.